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工學博士學位論文

창조인력의 지역 선호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gional Preference Factors of Creative
Class: Focusing on the Creative Milieu Characteristics of
Yeonnam-dong, Seoul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도시설계 전공

박 은 실

창조인력의 지역 선호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gional Preference Factors of Creative Class:
Focusing on the Creative Milieu Characteristics of
Yeonnam-dong, Seoul

지도교수 안 건 혁

이 論文을 工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3年 12月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도시설계전공

박 은 실
박은실의 工學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3年 12月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 초록]

창조환경이란 물리적인 환경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요소들 간의 복합적인 체제 속에서 나타난다. 특히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창조환경에는 어떤 특별한 요인들이 상존하며 이것은 창조성의 지리적 조건, 즉 창조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정보가 교환되는 교류의 장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창조인력이 밀집했던 지역은 일정한 시기나 유사한 조건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의 창조성은 창조인력, 창조적 결과물, 창조적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환경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장소의 특성을 창조환경이라고 칭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창조인력이 밀집되는 현상을 보면서 창조인력과 창조환경의 상호관계와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지역요인은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조인력의 지역 선호요인에 의해 창조환경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 지역 내에서도 창조인력의 세분화 된 특성에 따라 창조환경 구성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창조환경의 특성에 관한 실천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창조인력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 연남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연남동이 고유한 창조환경으로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연남동에 거주하는 창조인력을 대상으로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0개의 변수가 총 8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5가지 요인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을 ‘독창적 영역’, ‘관용적 정서’, ‘전통

문화’, ‘고유한 경관환경’, ‘방문객 유입’, ‘지지기반’, ‘개선된 경관환경’, ‘홍대문화’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그 요인들을 기반으로 창조인력의 세부 군집을 그룹화 한 후에 군집별 특성의 지역선호 요인과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창조환경 특성과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요인과 연남동 창조환경의 구성요인에 대한 비교를 통해 연남동만의 독특한 창조환경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인 창조환경 특성 중에서 ‘독창적 영역’, 관용적 정서, ‘네트워크’ 요인은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연남동만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은 일반적으로 ‘문화환경’ 요인에 속하는 ‘전통적 문화’, ‘고유한 경관환경’, ‘개선된 경관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연남동의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 간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즉, 연남동 창조환경의 특성은 강한 특성을 보이는 요인과 약한 특성을 보이는 요인이 있다. 일반적인 창조환경 특성요인에서 ‘독창적 영역’과 ‘네트워크’ 부분은 연남동 창조환경의 중심 특성인 ‘독창적 영역’ 요인으로 합쳐져서 가장 강한 핵심적인 선호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모든 군집에서 ‘독창적 영역’ 요인을 가장 선호하는 창조환경 특성으로 꼽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요인은 ‘관용적 정서’ 요인이다. 연남동에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이며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요인은 시장기능을 담고 있는 ‘지지기반’ 요인이다.

셋째,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 간에 창조인력의 선호도와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연남동 창조환경의 30개 요소를 선호도를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부 요소를 총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선호도가 높고 편차가 낮은 그룹이 갖는 요소는 대부분의 연남동 창조인력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요소들으로써 연남동 창조환경의 중심 특성이라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선호도도 낮고 편차도 낮은 그룹은 설문 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요소로써 ‘홍대 문화의 영향권 내 위치’를 들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연남동 창조인력들이 연남동을 홍대

문화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기 보다는 새로운 문화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연남동에 입지한 창조인력은 크게 세 군집으로 구분되며 각 군집별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역동적환경추구형> 경우, 문화예술창작과 기획을 주로 하는 그룹으로 연남동의 창조적인 분위기와 주거 환경 개선을 선호하며 홍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문화환경추구형>의 경우, 카페 및 음식점을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남동의 전통적인 문화, 새로운 방문객들의 증가, 주거 환경 개선을 선호하는 그룹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환경추구형>은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으로 주로 홍대에서 이주해왔지만, 현재는 연남동에서 공장 등의 개인 작업을 주로 하며 연남동의 창조인력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기는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군집별로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설문 대상의 응답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창적 영역’, ‘관용적 정서’, ‘전통문화’, ‘고유한 경관환경’ 요인이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유입’과 ‘개선된 경관환경’ 요인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요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가 낮고 이 두 요인이 창조지역의 핵심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특징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각 군집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설문 대상의 응답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역동적환경추구형>인 문화예술 관련 창조인력들의 경우, 핵심적인 창조환경 특성과 창조적인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는 반면,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에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전통적문화환경추구형>의 경우에는 ‘독창적 영역’, ‘관용적 정서’, ‘고유한 경관환경’, ‘방문객 유입’이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방문객 유입’요인의 경우 카페 및 음식점을 운영하는 창조인력이 주류를 이루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창조인력 집적지역은 창조적인 환경을 형성해 내고 궁극적으로 창조

환경으로 발전하게 된다. 초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지만 창조환경의 특성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갖춘 성장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문화적인 창조성과 생산성을 갖추지 못한 채 소비 공간과 자본의 유입은 이내 급속한 상업화로 이어져 지역의 창조성과 실험성은 사라진다. ‘자생적인 문화생태계’를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의 단계를 지나 지역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환경과 창의성을 발현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연남동의 창조인력의 유입은 홍대 앞 문화의 지리적 이전과 진화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연남동만의 고유한 창조환경을 형성하고 발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남동에 유입된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환경요인을 일반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창조인력 내에서도 선호요인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 곳의 창조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창조환경의 조성은 다양한 요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 다양한 창조인력 그룹 간의 특성 차이와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드러났듯이 연남동에는 세 군집의 창조인력이 존재하며 이들이 연남동에 거주하는 이유와 연남동에 매력을 느끼는 요소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더 나아가 각 그룹 간에서는 상충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곳의 창조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그룹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성장하고 더 창조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창조성, 창조인력, 창조환경, 홍대문화, 연남동, 지역선호요인

학 번 : 2003-30947

이 름 : 박 은 실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1. 연구의 내용	15
2. 연구의 방법	17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9
제2장 창조인력과 창조환경 이론적 고찰	24
제1절. 창조인력과 창조환경 등장 배경	24
제2절. 창조인력 이론적 배경	25
1. 창의성 개념 확대	26
2. 인적자본과 창조인력	29
3. 창조자본과 창조계층	35
제3절. 창조환경 이론적 배경	36
1. 창의성 발현 환경	36
2. 창조환경 개념 및 유형 (미시적 관점)	41
3. 창조환경 개념 및 시각 (거시적 관점)	46
제4절. 분석의 틀	55
1. 개념 및 용어의 정리	55
2. 창조환경 구성요인	59
제3장 연남동 창조인력 유입배경 및 현황	68
제1절. 연남동 일반 현황	68
1. 연남동 역사적 변천 및 토지이용 변화	68
2. 거주민 현황 및 특성	71

3. 연남동 도시기반 여건 및 개발계획	75
제2절 연남동 창조인력 현황 및 특성	80
1. 연남동 창조인력 유입 배경	80
2. 연남동 창조인력 현황 및 특성	93
제4장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 및 요소	108
제1절. 연남동 창조환경 요소 도출	108
1. 조사개요 및 방법	108
2. 조사대상	108
제2절.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 요소	110
1.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을 이루는 구성요소	110
2. 소결	144
제5장 연남동 창조인력의 지역 선호요인 분석과 창조환경 특성	146
제1절. 창조인력 지역 선호요인 조사	146
1. 창조환경 특성 조사	146
2. 창조환경 특성 분석	149
제2절. 연남동 창조인력 지역 선호요인과 창조환경 특성	152
1. 설문 응답자의 일반 특성	152
2. 연남동 창조환경 요인분석	154
3. 연남동 창조인력 군집분석	162
제 3절. 소결 및 시사점	168
제6장 결 론	17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70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시사점	176
[부록 1] 심층면접 질문지	186
[부록 2]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인식 설문지	189
[부록 3] 인터뷰 종합분석	198
ABSTRACT	212

〈표 차례〉

〈표 1-1〉 심층면접 및 인터뷰 대상자 개요	18
〈표 1-2〉 조사기간	21
〈표 1-3〉 연구의 흐름	23
〈표 2-1〉 1인 창조기업/사업과 타기업/조직 비교	33
〈표 2-2〉 창조산업 분류	34
〈표 2-3〉 창조계층 분류, Florida	36
〈표 2-4〉 창의성 체제 모델: 창의성 발현을 위한 환경	40
〈표 2-5〉 우리나라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 현황	46
〈표 2-6〉 창조환경 개념	54
〈표 2-7〉 창조인력 범주	56
〈표 2-8〉 창조환경 개념 및 유형	58
〈표 2-9〉 창조환경의 속성	60
〈표 2-10〉 창조환경 구성요인	61
〈표 2-11〉 창조환경 구성요인	63
〈표 2-12〉 창조인력에 관한 선행연구	64
〈표 2-13〉 창조환경 관련 선행연구	65
〈표 3-1〉 서울시 1차 휴먼타운 시범지	76
〈표 3-2〉 연남동 창조인력 관련업종 및 소자본상점 이주년도 현황	95
〈표 3-3〉 연남동 거주 문화예술인 현황	96
〈표 3-4〉 연남동의 창조인력 관련업종 개점 시기	100
〈표 3-5〉 카페현황	102
〈표 3-6〉 레스토랑/음식점 현황	103
〈표 3-7〉 주점/바 현황	103
〈표 3-8〉 소규모상점 및 사무실 현황	104
〈표 3-9〉 작업실(미술) 현황	104
〈표 3-10〉 공방 현황	105
〈표 3-11〉 음악 작업실 현황	105
〈표 3-12〉 디자인사무실 현황	106
〈표 3-13〉 게스트하우스 현황	107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109
<표 4-2> 연남동 창조인력 심층면접 질문지	110
<표 4-3> 창조인력 심층면접 대상자 및 업종 작업의 특성	115
<표 4-4>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 요소	145
<표 5-1> 심층인터뷰 결과 추출된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 요소	148
<표 5-2> 연남동 창조인력 일반 특성	153
<표 5-3>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에 대한 선호도	155
<표 5-4> 선호도 및 편차에 따른 연남동 창조환경 요소 구분	157
<표 5-5> KMO 및 Bartlett 검정	158
<표 5-6> 요인분석을 통해 설명된 총분산	158
<표 5-7> 회전된 성분행렬	160
<표 5-8> 창조환경 구성요인 세부 요소	161
<표 5-9> 연남동 창조환경 선호에 따른 군집분석	163
<표 5-10> 군집 간 차이 추가 분석	165
<표 5-11>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응답 대상	167
<표 5-12> 회귀분석 결과: 군집 1 대상	167
<표 5-13> 회귀분석 결과: 군집 2 대상	168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대상지역 마포구 연남동	20
〈그림 1-2〉 키맵과 대표가로	20
〈그림 1-3〉 경의선 주변지역	20
〈그림 1-4〉 창조인력 유형 및 구분	22
〈그림 1-5〉 창조환경 다이어그램	22
〈그림 2-1〉 창조인력 유형 및 구분	57
〈그림 2-2〉 창조환경 다이어그램	59
〈그림 2-3〉 연구 분석 모델	66
〈그림 3-1〉 연남동 토지이용 변천	69
〈그림 3-2〉 연남동 변화과정	70
〈그림 3-3〉 연구대상지역 범위	71
〈그림 3-4〉 서울시 주요 외국인 타운 및 외국인 거주 현황	73
〈그림 3-5〉 휴먼타운 마스터플랜	77
〈그림 3-6〉 연남동 휴먼타운 및 재건축정비구역	77
〈그림 3-7〉 경의선공원화 계획, 연남동 구간	79
〈그림 3-8〉 경의선 공원화 계획 구간	80
〈그림 3-9〉 홍대 앞 공시지가 변화	81
〈그림 3-10〉 연남동 건축년도 현황	84
〈그림 3-11〉 연남동 건축물 층수	85
〈그림 3-12〉 연남동 건축물 용도별 구분	86
〈그림 3-13〉 연남동 건축물 용도시설별 구분	87
〈그림 3-14〉 연남동 창조인력 분포현황	97
〈그림 3-15〉 변화 이전 용도별 변화	99
〈그림 3-16〉 연도별 용도 변화	101
〈그림 4-1〉 창조환경 구성요인	111
〈그림 4-2〉 폴아브릴 수제 아이템공방	113
〈그림 4-3〉 건담 매니아 아지트 겸 디자이너 작업실	113
〈그림 4-4〉 연남동 키맵과 대표가로길	118
〈그림 4-5〉 카페 분포도	118

<그림 4-6> 게스트하우스 분포도	118
<그림 4-7> 레스토랑 분포도	118
<그림 4-8> 주점 분포도	119
<그림 4-9> 상점 분포도	119
<그림 4-10> 커뮤니티 공간 분포도	119
<그림 4-11> 디자인 사무실 분포도	119
<그림 4-12> 출판사&기획사 분포도	120
<그림 4-13> 작업실 분포도	120
<그림 4-14> 리브레	123
<그림 4-15> 수제커피전문점	123
<그림 4-16> 대안공간	123
<그림 4-17> 오래된 골목풍경	123
<그림 4-18> 동진시장	123
<그림 4-19> 동진시장 대표가로	124
<그림 4-20> 동진시장 대표가로 입면도	125
<그림 4-21> 경의선 공원	127
<그림 4-22> 카페와 디자인사무실	127
<그림 4-23> 휴먼타운 대표가로 길공원길	127
<그림 4-24> 휴먼타운 대표가로 길공원길 입면도	129
<그림 4-25> 카페와 커뮤니티 공간	131
<그림 4-26> 책상이 있는 바	131
<그림 4-27> 경성고등학교 지역 대표가로 가로수길	131
<그림 4-28> 경성고등학교 지역 대표가로 가로수길 입면도	132
<그림 4-29> 상점+카페 something out	134
<그림 4-30> 작업실+매장 나무와 가죽	134
<그림 4-31> 주점 CUESTA	134
<그림 4-32> 카페 이십	134
<그림 4-33> 상점 피노키오	134
<그림 4-34> 휴먼타운 길공원	135
<그림 4-35> 길공원 마켓	135
<그림 4-36> 휴먼타운	135
<그림 4-37> 연남마에스트로 회원들	142
<그림 4-38> 일상예술창작센터	14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1세기 생산양식 측면의 변화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 기업 도시,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다. 국가나 도시경쟁력의 주요 이슈는 더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 자본의 흐름이 아니라 지역의 창조적 경쟁력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창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창조성이란 사람, 산출물, 과정,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데 창조환경이란 물리적인 환경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요소들 간의 복합적인 체제 속에서 나타난다. 특히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창조환경에는 어떤 특별한 요인들이 상존하며 이것은 창조성의 지리적 조건, 즉 창조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정보가 교환되는 교류의 장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네트워크와 교류는 특정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창조산업의 발달은 비공식적인 소셜라이프에 있으며 창조인력은 약한 유대관계의 공동체와 지지세력(David E. Andersson, 2011; Teresa Amabile, 1996)에 의해 발전한다. 창조적인 공동체는 전통적인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이 발달한 공동체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창조적인 교환활동이 중심이 되었던 특정 장소는 시간이 흘러도 그 영향력이 지속되며 시간이 갈수록 진화를 거듭하게 된다. (Dick Hebdige, 1989) 이런 장소들이 갖는 특별한 자질을 앤더슨(Ake E. Andersson, 2011)은 ‘개방된 시스템(Open system)’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창조인력이 밀집한 지역은 일정한 시기나 유사한 조건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창조환경의 특성은 이렇게 창조인력이 밀집되

어 창조적 공동체의 상호작용, 협업, 네트워킹, 평가의 기능을 수행할 때 더욱 발전한다. (Jane Jacobs, 1992; Peter Hall, 1999) 창조환경은 문화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가 한 곳에서 어울리는 경제활동의 중심지(John Howkins, 2009)이며 특정 문화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호해지는 현대 문화예술의 특성상 다양한 실험의 장소이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에도 문래 등 예술인들이 밀집한 예술창작촌, 대학로 등 특정 장르의 문화자원이 밀집한 문화지구, 신사동, 삼성동 등 문화소비공간 밀집지역이 존재하지만 창조인력이 밀집한 창조환경 특성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환경에 창조인력이 밀집되는 현상을 보면서 창조환경의 특성에 관한 실천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서울에서 창조인력 유입과 밀집현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마포구 연남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남동(延南洞)은 연희동 남쪽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으며 1975년에 연희동에서 분리되었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함께 신흥주거지로 형성되어 고급주택도 존재하지만 다가구주택 건축규제 완화로 인해 다세대·다가구 등도 혼재된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다. 연남동은 경의선 철도가 도시를 가로지르거나 감싸고 있는 폐쇄적 구조로 인해 홍대 상권의 인접지역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경관 변화와 개발의 속도가 느린 지역이었다. 학교를 제외한 공공시설이나 공원하나 없이 주거지가 대부분인 연남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장소 특성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화교타운과 차이나거리, 30년도 넘는 서울의 대표적인 기사식당 거리 등이다. 더구나 동진시장 주변에는 아직도 비정형의 거리와 좁은 골목길, 오래된 점포, 낡은 주거지, 한옥이 남아 있어 70년대 경관이 드문드문 존재하는 조용한 주택가이다. 이렇게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느린 동네인 연남동에 최근 몇 년간 공간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남동 변화의 주요 요인은 홍대문화의 확산과 이전 현상과 관련이 깊다. 높은 임대료에 밀려 상수동, 창천동 등으로 이동하였던 홍대 앞 예술인들과

기획자, 공예가, 수제 장인들, 바리스타, 각 나라 요리사, 외국인 등이 연남동에 유입 되면서 특색 없던 건물 저층부에 문화예술시설과 카페, 주점, 공방, 아틀리에, 게스트하우스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에 연남동에 유입된 창조인력의 수는 기존에 거주했던 창조인력 관련업종 종사자의 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연남동은 현재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서울에서 가장 다양하고 독특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이 개통되면서 연남동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서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마을공동체가 발달한 성미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 여의도, 목동, 상암동 미디어시티 등 영상단지 파주 출판단지 등과 인접해 있어 창조인력과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경의선 공원화와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개발사업도 병행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그동안 추진되었던 창조인력과 창조도시 관련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거시적 차원의 창조도시 담론, 창조계층의 계급구조 분석, 그리고 창조계층의 지리적 분포 규명에 치우쳤다면 본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창조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요인을 추출하고 창조인력과 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창조환경 특성이 어떠한지 체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창조성에 대한 연구는 인간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조직, 경제, 환경과 도시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창조성이란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 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창조성은 창조인력, 창조적 결과물, 창조적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반이 조성된 환경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소의 특성을 창조환경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창조성은 21세기 사회전반에 적용되는 주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첫째,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지역특성과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창조인력과 창조환경의 상호관계와 창조인력의 지역 선호요인에 의해 형성된 창조환경의 특성을 살펴봄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독창적 영역, 시장기능, 문화환경, 네트워크, 관용적 정서 등 일반적인 창조환경 5가지 특성요인과 지역 선호요인간의 관계성을 파악한다.

둘째, 한 지역 내에서도 창조인력의 세분화 된 특성에 따라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요인들 간에 개별적인 특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연남동 창조인력의 세분화 된 특성과 창조환경 특성을 이루는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창조인력들이 인지하는 특성 및 요소들을 군집화 된 그룹들로 세분화해서 연남동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이렇게 세분화 된 군집 특성을 바탕으로 군집 간, 군집 별로 지역선호 요인과 편차, 선호도, 만족도 등을 군집 간 특성을 통해 비교한다.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남동의 창조인력 밀집요인 및 연남동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창조환경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해석한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환경 및 입지조성에 시사점을 주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논문은 서론의 문제제기와 연구목표 설정, 2장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기초연구, 3장의 현지 직접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4장, 5장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창조환경 특성과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연구, 6장의 연구결과와 시사점 도출의 결론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창조인력 및 창조환경 등장배경, 관련개념의 정의, 유형의 구분 등에 대해서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창조인력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인간 개인/조직차원의 창의성’, ‘인적자본과 창조인력’, ‘창조자본과 창조계층’ 등 3가지 차원에서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규정하는 창조인력의 개념은 창의성을 실제로 활용하는 영역인 과학·기술·경제·문화의 창의성에 관련한 학자들인 알렉스 오스본, 미하이 칩센미하이, 테레사 아머빌(Alex F. Osborn, 1952; Mihaly Csikszentmihalyi, 1996; Teresa Amabile, 1996)의 창조인력 개념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창조인력의 개념은 창조계층(Creative Class)의 계급개념을 최초로 주장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2002)의 분류 기준이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창조환경의 개념은 ‘창의성 발현 환경’,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지구나 구역 단위의 ‘미시적 차원의 창조환경’, 도시와 지역 차원의 창조도시 등의 ‘거시적 차원의 창조환경’으로 구분하여 개념을 정리한다. 다음으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을 추출한다. 도출된 5가지 특성은 ‘독창적 영역’, ‘시장기능’, ‘문화환경’, ‘네트워크’, ‘관용적 정서’ 요인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창조환경 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의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1) 본 창조환경 구성요인은 은 다음과 같은 학자들의 창조환경 개념과 이론을 통해 도출됨. 자세한 내용은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봄 (Åke Emanuel Andersson, 1985, Mihaly Csikszentmihalyi, 1996, Peter Hall, 1998, Simonton, 2004, Gunnar, T., 2011, Charles Landry, 2000, Jane Jacobs, 1961, 1984, Richard Florida, 2002.)

3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지역인 연남동 지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창조인력의 유입배경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시적 연구와 공간적 위계에 의한 공시적 연구를 기본으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연남동의 역사적 변천 및 토지이용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특히 1970년대 주택지 형성시기와 현재까지 연남동 행정구역의 변화, 거주자 현황 및 특성, 도시기반 여건 및 개발계획에 대해 살펴본다. 가장 큰 용도의 변화는 2008년을 전후해서 연남동에 창조인력이 밀집되면서 지역 장소성이 변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형성된 홍대문화의 분화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창조인력이 유입된 지리적, 사회적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연남동 창조인력의 유입배경과 창조인력 분포현황은 연남동 창조인력의 현지직접조사를 통해 지역별, 업종별, 연도별 분포특성을 파악하고 3개 지역에 밀집된 창조인력의 특징과 함께 동진시장, 휴먼타운, 경성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의 대표가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창조환경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연남동의 창조인력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의 내용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은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인 ‘독창적 영역’, ‘시장기능’, ‘문화환경’, ‘네트워크’, ‘관용적 정서’ 특징에 맞는 응답내용을 여러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비교하면서 분석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창조환경의 세부구성요소 30개를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과 선호요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성, 작업 특성, 연남동에 대한 인식, 창조환경 요소 선호의 4항목으로 구성된다. 창조환경 요소 선호의 경우 앞서 사전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30개 요소에 대한 설문 대상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 중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 및 창조환경 요소 선호 관련 항목은 7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연남동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요인 8가지를 추출하였으며 군집분석을 통해 <역동적환경추구형>, <전통적문화환경추구형>, <안정적환경추구형> 등 3개의 창조환경

특성별 세부그룹이 도출되었다. 각 그룹은 연남동 창조환경특성 요인별로 상이한 선호도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연남동 창조인력의 군집분석을 통한 창조환경의 특성과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문헌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고찰과 현장조사와 설문을 기반으로 한 실증연구로 구성되며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기초연구는 관련 개념들의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고찰로서 창조성, 창조인력, 창조환경에 대한 개념과 창조환경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분석틀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대상지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은 서울시, 마포구 기초통계자료, 국내외 각종 사회조사, 통계청 GIS자료를 활용하고, 지역의 공간적 특성은 필지, 건물, 오픈스페이스, 가로의 단위로 나누어 건축물대장 등의 문헌과 직접관찰, 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지조사는 연남동에 입주한 창조인력 관련업종 현황과 용도변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조인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가시적으로 드러난 창조인력 관련 매장을 현장관찰을 통해 살펴보고 선행연구, 현지답사 및 심층인터뷰 자료, 다음로드뷰, 언론 매체 및 미디어자료, 출판자료 등을 통해 추가로 종합하였다. 그 외에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술가 주거지와 개인 작업실은 마포구 예술인현황자료를 기초로 추가적인 탐색과 추적조사를 병행하여 주소지가 파악된 경우에 한해 종합하였다.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은 예술가 개인 작업실은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홍대지역과 연남동에서 활동하는 핵심적인 전문가 5인²⁾의 자문과 선행연구를 통해 심층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은 창조인력 54명을 포함하여 주민, 행정, 홍대 앞 잡지 기자, 기

획자 등으로 나누어 총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 기간은 2013년 10.1~10.23까지 총 23일간 이루어졌으며 심층 인터뷰 대상의 선정은 앞서 조사된 연남동 창조인력 현황파악을 통해 3개 지역별, 장르별, 작업유형별로 구분하여 균형 있게 선정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 문항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연남동의 창조환경적 특성을 자유롭게 서술하였다. 그 외에 연남동에서 벌어지는 행사와 활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경험적 관찰과 대면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구하였다.

〈표 1-1〉 심층면접 및 인터뷰 대상자 개요: 63명 (창조인력 54명)

구분	분야	활동	명수
연남동 창조 인력	예술가 (12)	예술가	10
		예술가 작업실	2
	문화시설 (3)	갤러리 운영	1
		공연, 연주실운영	1
	공방 (11)	작업실+공방	5
		공방+매장+교육	6
	커피/카페 (7)	커피, 카페	4
		커피+워크숍, 강연회	1
		카페+디자인사무실+매장	2
	디자인 (7)	디자인사무실+매장	4
		건축사무실	1
		패션, 의상실	2
	출판 (4)	출판사, 출판관련	2
		서점, 핸드북출판	2
주민	레스토랑/음식 (4)	음식점, 요리	3
		음식점+예술활동	1
	주점(3)	이자카야, 포차, 바	3
	커뮤니티(4) 문화기획	커뮤니티시설 및 문화기획가	4
		마을주민	2
	업소	부동산, 게스트하우스	2
외부	전문가	문화기획가, 기자	4
행정	마포구	행정가 마포구	1
합계			63

- 2) 공간문화센터 최정환 대표 등 지역활동가 3인, 정지연 홍대 스트리트 H 편집장, 팩토리 대표 홍보라 등

다음으로는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과 선호요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7일 간 진행했으며 연남동 내 주요 지역인 동진시장, 휴먼타운, 경성중고등학교 주위에 위치한 창조인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배포한 230부 중에서 총 20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미완료 설문 및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유효 응답수는 170부로 이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 분석을 통해 설문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연남동 창조환경 요소별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인 분석의 결과로 추출된 요인 점수를 이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군집 별 선호도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군집별 개인 특성에 대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그룹별로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인터뷰 결과와 설문결과 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1. 연구의 공간적 범위

연구의 대상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일대이다. 연남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행정동이며 마포지역에서는 가장 역사가 짧은데 연남동(延南洞) 동명은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갈려나와 연희동 남쪽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동교동·창전동, 서쪽의 성산동, 남쪽의 서교동, 북쪽의 서대문구 연희동과 접하고 있다. 동을 이루는 지역은, 처음에는 연희동 지역 중 남서쪽 경계로부터 경의선까지와 서대문구 수색동에 이르는 서부지역이었는데, 성산대로 개통으로 연희동 남측이 이 동으로 편입되었고, 1977년에는 동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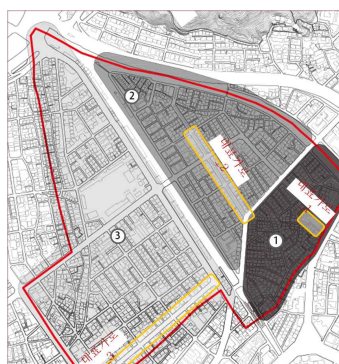
일부도 포함되었다. 3) 연남동은 꽤 오랫동안 주거단지로 마을의 특성을 유지해 왔으며 대부분이 저층의 조용한 주거지역이다. 19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주택가로 개발되었으며 법정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림 1-1〉 연구의 대상지역 마포구 연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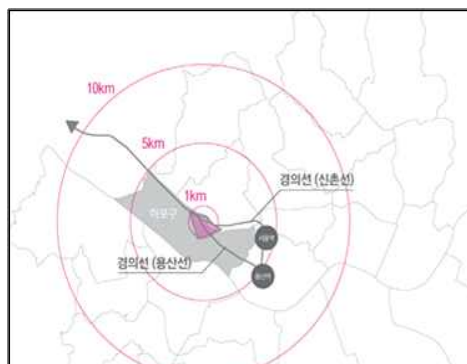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2008년 이후 창조인력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남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인 현황분석, 업종별 분포, 연도별 분포현황 등은 연남동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대표적인 가로에 대한 분석은 물리적인 환경 특성이 상이한 3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창조인력 관련업종이 밀집 되어있는 ①동진시장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 ②휴먼타운 주변지역, 비교적 큰 건물들이 있는 ③경성고등학교 주변지역에서 공항철도 홍대역 부근까지를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2〉 키맵과 대표가로



〈그림 1-3〉 경의선 주변지역



3)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연남동, <http://terms.naver.com/entry.nhn>

3.2. 연구의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남동 일대 창조인력 및 문화예술관련 시설의 이전과 건축물의 용도변화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홍대 앞 공시지가 변화시점과 관련이 있는데 마포구의 공시지가 변화율을 살펴보면 2006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정체되고 있다. 그러나 홍대 앞의 공시지가는 2008년 이후 다시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연남동에 창조인력이 유입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연남동 창조인력의 유입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6년간의 변화된 장소 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표 1-2〉 조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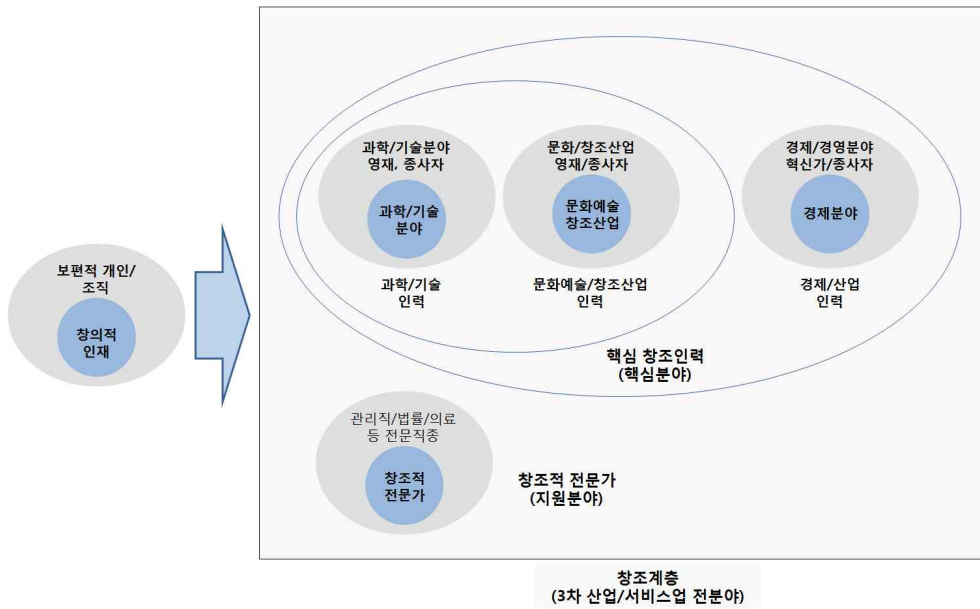
조사	기간	비고
예비조사	2013년 8월	전문가/사전인터뷰
현장조사 및 관찰조사	2013년 9.1~10.30	현장 직접조사
현장조사	2013년 9.20~9.30	매장 현황조사
면접조사	2013년 10.1~10.23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2013년 11.1~11.7	설문

3.3. 연구의 대상

- 본 연구의 대상인 창조인력의 범위는 핵심 창조인력 중에서 문화예술과 창조산업 분야 종사자로 한정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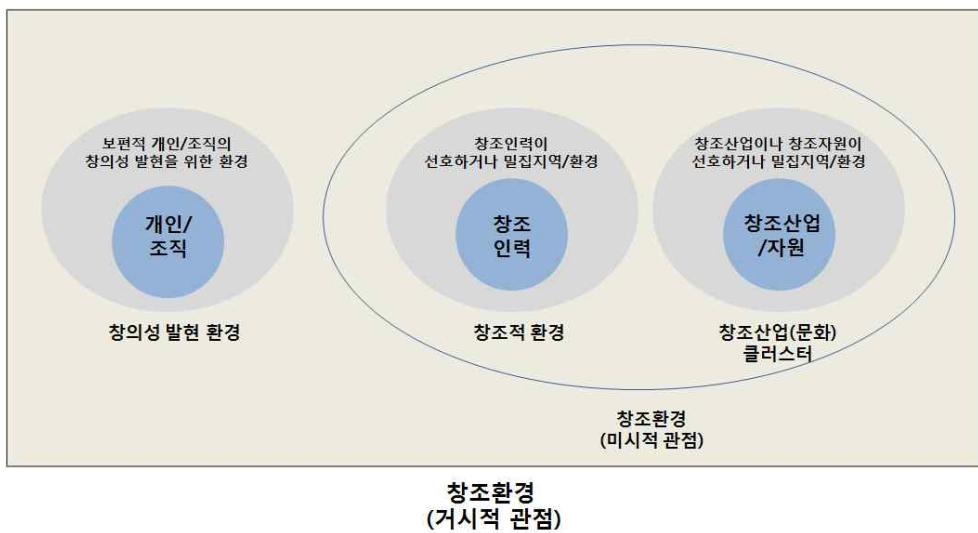
4) 자세한 내용은 2장,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봄

<그림 1-4> 창조인력 유형 및 구분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창조환경의 의미는 창조인력이 선호하거나 밀집되어 있는 미시적 관점의 창조환경을 뜻한다.

<그림 1-5> 창조환경 다이어그램



〈표 1-3〉 연구의 흐름

연구목표 문제제기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론적고찰 문헌연구	제2장 창조인력 및 창조환경 이론적 고찰 -창조인력 및 창조환경 등장배경 -창조인력 이론적 배경 및 개념정의 -창조환경 이론적 배경 및 개념정의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실증조사 문헌연구 현장조사 심층면접	제3장 연남동 창조인력 유입배경 및 현황 연남동 일반현황 -역사적 변천 및 토지이용 변화 -거주민 현황 및 특성 -도시기반 여건 및 개발계획 연남동 창조인력 현황 및 특성 -연남동 창조인력 유입배경 -연남동 창조인력 현황분석 :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 창조인력 분포현황 및 특성 : 지역별 분포특성 : 업종별 분포특성 : 연도별 용도변화 : 대표가로 분석	제4장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 요소 조사방법 및 분석의 틀 -심층인터뷰 조사방법 및 현황 -창조환경 구성요소 도출 -분석의 틀 창조환경 특성 요소 -독창적 영역 특성 -시장기능 특성 -문화환경 특성 -네트워크 특성 -관용적 정서 특성 소결 및 시사점
분석 설문조사	제5장 연남동 창조인력의 지역 선호요인과 창조환경 특성 -조사 배경 및 의의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심층인터뷰 결과와 비교분석 -소결 및 시사점	
시사점	제6장 결론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제2장 창조인력과 창조환경⁵⁾ 이론적 고찰

제1절. 창조인력과 창조환경 등장 배경

도시의 역사에서 자족성을 갖지 못한 지역은 언제나 쇠퇴하는 운명을 맞았고 생산성을 갖추지 못한 소비 공간의 대규모 개발은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왔다. 따라서 창의성과 내생적 발전에 근거한 '창조도시', '창조환경' 이론이 급격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장소와 도시의 경쟁력은 혁신성과 창의성을 지닌 '창조인력'의 집적과 '창조환경'에 의해 좌우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창조환경과 관련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도시정책과 관련한 최초의 창조도시 컨퍼런스는 1996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되었고 이때부터 창조도시 개념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도시발전 전략과 정책차원의 창조도시 사업은 1997년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선정한 26개의 '혁신적인 도시정책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비롯되었다. 1996년 헬싱키 컨퍼런스의 주요 참석자였던 피터 홀(Peter Hall),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 프랑코 비안치니(Franco Bianchini),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아케 앤더슨(Åke Emanuel Andersson) 등은 이후에 창조도시 관련 저서를 잇달아 발간하기 시작했다. 홀의 『문명의 도시(Cities in Civilization, 1998)』, 랜드리 의 『창조도시(Creative City, 2000)』, 플로리다의 『창조계층(Creative Class, 2002)』, 등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2000년대 들어서 창조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⁶⁾ 그러나 창조환경의 이론적 기초는 존 러스킨(John Ruskin, 1851)과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가 1880년대에 시

5) 본 2장의 내용은 박은실, “창의경제의 기반 창의도시”, 「창의경제와 문화예술의 역할」,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에 수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함.

6) 박은실, “문화와 도시계획: 오래된 역사, 새로운 만남”, 『컬처노믹스 시대의 도시론 : 도시문화전략의 쟁점·경험·과제』, 국토연구원, 2014(발간예정). pp.105-106.

작한 미술공예운동인 예술경제학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는 도시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한 루이스 뎀포드 (Lewis Mumford, 1938),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1961, 1984), 창조환경과 창조성의 관계성을 연구한 군나르 톤퀴스트(Gunnar Törnqvist, 1978), 테레사 에머빌(Teresa Amabile, 1983), 미하이 칩센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 1988), 아케 앤더슨(1985, 1989), 딘 키스 사이먼튼(Dean Keith Simonton, 1984, 2004), 홀(1998)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창의성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환경’과 ‘창조도시’에는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고 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창조인력’이 유입된다. 현대의 도시는 창의적인 인간자본을 필요로 하며 플로리다에 의하면 ‘창조계층’이 입지한 지역은 도시경쟁력과 혁신성에서 앞서 간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창조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창조인력의 유입을 통한 지역의 창조적 가치창출과 창조환경 조성’에 있다. 창조환경의 개념과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은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도시경제의 시스템적 차원, 물리적 차원 등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창조인력을 비롯한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창조환경의 개념을 분석하고 창조인력과 상호작용하는 창조환경 구성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창조인력 이론적 배경

창의성(Creativity)이란 단어가 오늘날 널리 쓰이는 것과는 달리 세계 제2차 대전 이전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이전에는 주로 상상(imagination), 발명(invention), 발견(discovery), 재능(genius) 등의 단어가 사용되었다.⁷⁾ 그러나 1950년 조이 폴 길포드(Joy Paul Guilford)가 미국 심리학회(APA)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해 처음 역설한 이후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창의성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창의성이란 주제에 대

7) Törnqvist, G., The Geography of Creativity,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1, pp. 1-3.

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적혀있다. 길포드는 ‘창의성이란 새로운 관점에서 어떤 특정한 현상이나 사안을 표현하는 아이디어 또는 산출물과 관련한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과학인재의 양성이 전쟁 승리에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도널드 맥किन(Donald W. MacKinnon)⁸⁾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의 연구에서부터 창의성 연구가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 창의성은 두 가지 차원의 해석이 있다.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의 창의적인 결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괄목할만한 업적으로 사회를 발전시켜야 하며 과학자, 발명가, 예술가의 몫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반면에 일반적인 사람들 누구나 보편적 창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점점 창의성이란 예술과 사상, 기술혁신과 더불어 경제와 생산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다중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1. 창의성 개념 확대

신의 영역인 ‘창조’를 제외하고 인간 영역의 ‘창의성 이론(Theory of Creativity)’은 대체로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인간 ‘개인적 차원’의 창의성과 기업이나 조직 등의 ‘조직적 차원’의 창의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시대, 민족, 문화에 따라 창의성 개념이 다변화하면서 점차 어떤 한 분야의 연구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창의성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요소를 종합하는 ‘복합적’, ‘생태학적’, ‘환경적 차원’의 창의성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적 차원의 창의성은 창의적인 사람, 혹은 개인이나 조직의 창의성 발현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창의적인 사람이나 창의적 인재에 관한 문제는 타고난 개인의 기질이나 특성에 관한 것이어서 한정된 소수의 인재를 의미하지만 개인과 조직창의성의 발현은 보편적인 사람이나 조직에게 잠재된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환경에

8) MacKinnon, D.W., Creativity and Transliminal Experience,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Volume 5, Issue 4, pages 227-241, December 1971.

서 개인과 조직의 창의성이 발현 된다는 후자의 경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은 ‘창의적이다’는 단정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1-1. 개인적 차원의 창의성

인간 개인적 차원의 창조성은 ‘인간 창의성’의 본질에 관해 연구하는 인문학과 심리학, 인지과학 분야 둘째, ‘인간 창의성의 발달과정’과 ‘발현능력의 규명’을 위한 교육학 분야 등에서 다루고 있다. 첫째, 인문학과 정신분석학, 심리학 등에 기초한 ‘인간창의성’의 개념에 관한 연구들은 선천적 창의성에 관련한 예술, 과학 분야의 천재들에 관한 정신 병리학적인 현상을 연구한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아놀드 루드비히(Arnold Ludwig), 아브라함 머슬로우(Abraham Maslow, 1954),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환경의 영향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인 마가렛 보든(Margaret A. Boden), ‘다중지능 이론’의 창시자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 등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창의적 인간’과 ‘창의성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둘째 교육학이나 교육심리학 계열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창의성은 교육에 의한 후천적 발달과정과 발현과정을 통해 학습된다는 연구들로서 폴 토렌스(Ellis Paul Torrance)와 데이비드 크로플리(David Cropley)등이 있다. 교육학에서의 창의성⁹⁾이란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거나, 비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등 창의성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초기에 창의성은 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포함하는 확산적 사고의 관점에서만 연구되었으나, 그 후에는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적 능력, 인성, 지식, 환경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칙센미하이는 개인에 있어서는 타고난 재능과 훈련이 중요하지만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창의적인 삶을 일궈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확산적 사고, 유연성, 융통성, 독자성 등이 창의성을 발달시키며 창의성의 발달을 위해서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9)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2000, 1.

1-2. 조직차원의 창의성 : 창의적 조직/기업

조직차원의 창의성은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제해결 능력과 방식으로 서 ‘기업이나 조직차원’의 창의성과 ‘경제적 혁신 측면의 창의성을’ 말할 수 있다. 조직차원의 창의성은 프로세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이나 조직에 의해 학습될 수 있다는 점(Leonard and Swap, 1999)을 고려해야 한다. (손태원 등, 2002) 조직의 창의성은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 가능한데 조직차원의 창의성과 조직 내 개인의 창의성이 존재한다. 연구자에 따라 창의성을 촉진하는 구성요소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리더쉽, 조직구조, 전략, 자원, 문화에 관한 요인이 존재한다.¹⁰⁾

반면에 요셉 슈페터(Joseph Schumpeter, 1954)는 창조적 리더십의 주제를 그의 자본주의 논의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창조적 리더십의 의미와 요소를 당대의 경제학에 편입시키려 했다. 슈페터는 창의성, 진화, 그리고 엘리트를 사회과학적 설명의 중심된 이슈로 보았으며 그것의 함축적 의미를 경제학과 다른 학문분야에서 파헤쳤다. 창조적 엘리트라는 주제는 슈페터의 『자연과 정치경제의 주요 원칙들(The Nature and Major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908)』에서 처음 사용했고, 경제 과정에서의 창조적 엘리트의 역할은 그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론을 펼쳐 보였던 그의 저서 『경제 발전 이론,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1911)』등에 잘 나타나 있다.¹¹⁾ 이렇게 경제 혁신을 주장한 슈페터는 경제학이 순수 논리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산물이 아니라 사회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지식사회학(Sociology of Knowledge)의 관점을 경제학사에 도입한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처음 언급했지만 경제 분석의 역사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새로이 생겨나는 기업과 시장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몰락하는 기업,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 새 테크놀로지의 확산으로 인한 구 테크

10) 최익성의 학습과 나눔 블로그에서 발췌, <http://blog.daum.net/01020604634/49>

11) Jerry Z. Muller, The Mind and the Market, 2002, 제리 멀러 저, 서찬주, 김청환 역, 『자본주의의 매혹』, Human & Books, 2006. pp.405-406.

놀로지의 쇠퇴,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다. 슈페터는 경제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Joseph Schumpeter, 1954) 최근에는 이렇게 기업이 정신을 발휘해서 경영의 혁신을 꾀하거나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제 분야의 창의성으로 보고 있다.

2. 인적자본과 창조인력

2-1. 인적자본과 창조인력

인적 자본이란¹²⁾ 미래 금전적 소득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인간에 내재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이라고 할 때는 자본과 토지 등 물적 자본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나, 경제가 발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교육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인적 자본의 종류는 그 형성과정에 따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본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자본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선천적 자본은 지능이나 천부적 재능 등의 능력과 자질을 말하며, 후천적 자본은 교육, 보건, 훈련, 정보 등에 의해 습득된 지식과 기술이다. 인적 자본론에 의하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개인의 능력과 노동생산성이 커지므로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높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적 자본론은 특히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인 게리 베커(Gary Stanley Becker)에 의해 강조되었는데, 베커는 경제학의 분석영역을 폭넓은 인간행동과 상호작용으로 확대한 공로로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시카고대학교 교수인 베커는 노동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였다. 한국과 대만 등이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도 교육을 잘 받은 질 좋은 인적 자본(노동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

12)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인적자본론.

고 하였다.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인적자본의 중요성은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다. 루카스는 인간자본의 밀집에서 생기는 생산 효과를 지역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한다. 그는 이것을 제이콥스의 외부성이라 칭하고 있다. 루카스는 제이콥스의 근본적인 식견을 토대로 인간자본의 인재와 연관된 생산성 효과가 없다면 도시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³⁾ 인간자본론에서는 지식노동자를 넘어 창조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미국의 국립과학원¹⁴⁾과 유엔무역개발부(UNCTAD, 2008)는 창의성을 실제로 활용하는 영역인 ‘과학’·‘기술’·‘경제’·‘문화’의 창의성이 창조경제의 동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인력을 창조인력으로 보고 있다.

2-2. 창조인력

1) 창조활동 종사자

① 문화예술 및 창조활동 종사자

데이비드 스로스비(David Throsby, 2001)는 문화산업 및 창조활동 종사자의 범주를 중심에서 주변모델로 도식화하면서 중심부에 예술을 위치시키고 생산과정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주변의 문화산업으로 배치하였다. 동심원 모델은 아이디어와 이미지의 원천으로서 ‘창작자’에 기초하고 있으며 예술이 곧 관련 산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창조활동 종사자의 범위는 스로스비 모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핵심자리에 위치한 예술은 전통적인 예술 분

13) Florida, R.,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Perseus Books Group, 2002, .p.341.

14) National Research Council, Beyond Productivity: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National Academy Press, 2003. pp.20-6.

류로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미술과 공예, 비디오아트, 행위예술, 멀티미디어 예술 등이 포함되고, 2차 주변부에 속하는 문화산업에는 영화, TV, 라디오, 신문, 출판 등이 포함됨. 또한, 원의 맨 바깥에 위치하는 3차 주변부는 포괄적인 문화산업으로 광고, 건축, 디자인, 관광 등이 포함되었다.¹⁵⁾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창조인력의 핵심인 문화예술분야 관련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예술인복지법」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범위에 근거하여 창조인력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상에서의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이며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1인 창조기업

창조인력의 핵심인 문화예술분야, 창조활동분야의 종사자 중에서 창조산업의 영역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그룹이 있는데 소위 1인 창조기업/사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다. 1인 창조기업은 창조경제가 요구하는 창의성(Creativity)을 가장 중요한 프리미엄 자산이자 암묵적 지식으로 보유한 선도적인 1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심상민(2010.8.)¹⁶⁾은 1인 창조기업을 창조경제 DNA를 지닌 전형적 개척자로 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창조경제의 원천적인 핵심 역량이자 DNA인 창의성(Creativity)은 새롭고(New), 쓸모가 있어야 하고 (Useful and Productive), 속한 현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15) 전병태 외, 「창조경제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16) 심상민, “1인창조기업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8. PP. 5-26.

있는 생각과 실행능력을 뜻한다. 창의성은 개인의 경험과 유전이라는 제1요소와 현장의 사회성과 인정의 제2요소, 문화적 확산과 보존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제3의 요소가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되는 개념이다. 칙센트미하이에 따르면 창의성이라는 개인과 현장, 영역 3개 요소 상호작용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결국 실행하는 창안자(Creator)가 1인창조기업의 표본이 된다. 성공적인 1인 창조기업은 스스로가 창안자(Creator)이면서 발상에만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보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 국면을 극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적 성과를 실현해내는 전략가형 창업자이자 경영자가 곧 1인 창조기업”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0월에 중소기업청이 일자리 창출과 취업난 해결 방편으로 1인 지식(서비스)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고 2011년 4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10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률에 말하는 '1인 창조기업'은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 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명인 기업'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잠재적 기업인 프리랜서도 포함된다. 단, 가족기업과 도제기업은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4명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아이디어'란 국민으로부터 공모한 창의성 있는 기초 지식부터 전문지식까지 포함하는 아이디어를 말하며, 전문기술·지식은 국가가 관련 산업의 보존·전수 등을 위해 지정한 인증자 및 국가자격자가 보유한 기술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은 산업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발명, 실용신안, 상표, 저작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로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이 혼자 창업해 매출·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기업의 개인은 자신이 가진 지식 및 경험, 기술들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이윤을 창출해낸다. 꼭 1명으로 운영되는 기업뿐 아니라 2~3인 규모의 가족기업이나 스승·제자 관계로 운영되는 도제(徒弟)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¹⁷⁾

〈표 2-1〉 1인 창조기업/사업과 타기업/조직 비교

구분	1인창조기업/사업	1인 지식기업	프리랜서/프리에이전트	사회적 기업
기본개념/중심가치 (비전과 미션)	-창의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사업 실행 강조	지식경제기반 핵심 전략 6대 부분에 한정	-창조적 혁신을 보좌하는 에이전시 역할에 그침	-공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상적 접근
지배구조/구성	-발견적 1인 창조기업/사업 생태계와 유기적 연결	-독자 비즈니스차원 고용, 활동 중시	-일시적 외부 계약을 통한 협력(하청)관계	-이념형을 같이 하는 단체, 커뮤니티 중심으로 운영
활동역역/사업범위	-창조적 비즈니스에 집중	-국가 전략사업과 연동해 정책효과 촉구	-디자인, 기술 등 아웃소이 특성이 강한 영역 중심	-비영리 공적 비즈니스 영역이 우선 채택
활동방식	-창안자 CEO가 전략, 수익모델, 대외협력 등 총괄	-비교적 단순 기능을 수행하는 생계형 사업 위주	-생태계 공동체 등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방임 일탈형 성향 보유	-시장/산업보다는 사회·문화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
주요성과	-창조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지속적 성장 추구	-기존 산업내 필수 요소 담당하는 위상 구축	-기발하고 다양한 문화 창조자로서 활약하기도 함.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운동으로 기능

출처: 심상민 (2010.8)

2) 창조(문화)산업 종사자

창조도시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창조산업은 1998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창조산업 전략보고서’¹⁷⁾를 통해 공론화되었다. 창조산업에 대한 국제적으로 동일한 개념은 없지만 학자, 국제기구, 나라별로 그 기준과 산업에 대해 나름의 분류를 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문화산업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문화부문에 한정된 문화산업보다 창조산업이 좀 더 포괄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창조산업 분야의 개념 정립을 시도한 호킨스(Howkins, 2001)는 창의성으로부터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사업활동을 창조산업으로 정

17)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누리집(홈페이지) 제작 등 IT서비스, 만화, 드라마, 영화제작 등 문화콘텐츠 서비스, 전통식품, 공예품 분야의 제조업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 지식·기술 등 분야의 1인 중심 기업을 말한다. 시사상식사전(박문각), 시사경제용어사전(기재부, 2010), 중소기업청(2011)

18) 영국은 1997년에 창의산업특별팀(Creative Industries Task Force)을 설립하여 문화산업이 포함된 창의산업을 연구함. 이어 1998년에 영국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 Sport, U.K)가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발간.

의하였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003)는 저작권산업의 기준으로 창조산업을 분류하였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08년 앞선 여러 가지 개념들을 포괄하여 확장된 개념의 창조산업에 대한 분류를 하였다(UNCTAD, 2010)¹⁹⁾ 우리나라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2010, 개정)」상에서 규정한 문화산업의 범위인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일반적으로 창조산업의 범위에 두고 있으며 문화상품 전 과정을 에 관여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²⁰⁾ 등이 창조인력의 범주에 속한다.

〈표 2-2〉 창조산업 분류

UK DCMS	Symbolic Text Model	Concentric Circles Model	WIPO Copyright Model	UNCTAD	한국
광고 건축 미술/골동품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비디오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TV/라디오 비디오/ 컴퓨터게임	핵심문화산업 광고 영화 인터넷 음악 출판 TV/라디오 비디오/ 컴퓨터게임 주변문화산업 창조예술 경계문화산업 가전 패션 소프트웨어 스포츠	핵심창조예술 문학 음악 공연예술 시각예술 핵심문화산업 영화 박물관/ 도서관 포괄적문화산업 문화재서비스 출판 사운드 레코딩 TV/ 라디오 비디오/ 컴퓨터게임 유관산업 광고 건축 디자인 패션	핵심저작권산업 광고 민간저작권협회 영화/비디오 음악 공연예술 출판/문학 소프트웨어 TV/라디오 시각/그래픽예술 의존저작권산업 레코딩머티리얼 가전 악기 신문 복사/사진도구 부분저작권산업 건축 의복/신발 디자인 패션 가사제품 장난감	문화유산 ■ 전통적문화예술 예술/공예 축제/의식 ■ 문화유적/유적지 고고학유적 박물관/도서관/전시관 예술 ■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골동품 ■ 공연예술 공연/연극/무용/오페라 /서커스/인형극 미디어 ■ 출판물 책/신문/기타 ■ 오디오비주얼 영화/TV/라디오/방송 기능적창조물 ■ 디자인 환경/그래픽/패션/보석 /장난감 ■ 뉴미디어 소프트웨어/비디오게임 /디지털콘텐츠 ■ 창조적서비스 건축/ 광고/ 레크리에이션 R&D/ 디지털관련 서비스	출판/인쇄 영화/비디오 게임/음악 만화/캐릭터 애니메이션 모바일문화콘텐츠 초/에듀테인먼트 방송/영상물 광고/공연 미술품 공예품 문화재 관련 디자인 (산업디자인 인제외) 디지털문화콘텐츠 초/사용제작문화 콘텐츠/ 멀티미디어 전통산업 전시회/박람회/ 건본시장 축제산업 (전시산업법 제2조 제2호 제 외) 각 문화산업의 혼 합된 산업
영국문화매체 체육부 1998	Hesmondhalgh, 2002	European Commission, 2006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03	유엔 무역개발회의, 200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010.6

출처: Creative Economy, UNCTAD, 2010, 재구성

19) 박은실, 「서울컬처노믹스 전망과 대안」, 서울시 의회 세미나, 2008. 10.

20) 여기서 제작이란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3. 창조자본과 창조계층

창조계층을 경제발전에 따른 하나의 계급구조로 인식한 플로리다(Florida, 2002)²¹⁾의 주장은 창조계층과 창조성지표²²⁾에 관한 논의에서 비롯된다. 플로리다에 의하면 창조계층은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첫째, 과학자, 기술자, 소설가, 연예인, 디자이너, 건축가등 새로운 형식이나 디자인을 생산해내는 창조계층의 핵심그룹이 있다. 둘째, 하이테크, 의료 금융 법률 서비스, 사업경영 등의 지식집약형 산업에 종사하는 창조적 전문가그룹이다.

플로리다가 주장하는 창조계층에 관한 이론적 기초는 마르크스(Karl Marx, 1906), 슈페터(Joseph Schumpeter, 1942)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1993), 다니엘 벨(Daniel Bell, 1961, 1973) 등에 기초를 두고 발전시킨 개념이다. 마르크스와 슈페터는 경제성장안에서 혁신과 사회경제구조의 교차점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로버트 소로우 (Robert Solow, 1956),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 1988), 파울 로마 (Paul Romer, 1986, 1987, 1990) 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성을 규명하면서 하이테크 종사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Robert Barro (1991), Edward Glaeser (1994, 1998)는 도시와 국가성장을 견인할 기술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1) Florida, R., op. cit., 2002,

22) 플로리다는 (Florida, 2002)하이테크 지표(High-Tech Index), 혁신 지표(Innovation Index), 동성애자 지표(Gay Index), 보헤미안 지표(Bohemian Index)를 복합한 것이 지역의 창조성 지표(Creativity Index)이며 이는 지역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 논리에 근거하여 Florida는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조계층이 좋아하는 문화예술시설이나 매력적인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은실, 2005. pp. 29-34.)

〈표 2-3〉 창조계층 분류, Florida (2002)

구분		직업
창조계층 (creative class)	코어클래스 (super-creative class)	-컴퓨터와 수학관련 직업, -건축과 공학 직업, -생명, 물리과학, 사회과학직업, -교육, 훈련, 사서 직업, -미술, 디자인, 연예, 오락, 스포츠 미디어 직업
	창조적 전문가 (creative professional)	-관리직업, -사업과 재정운영 직업, -법률에 관한 직업, -건강관리 개업의와 전문직업 -고소득의 판매와 판매관리 직업

이들은 복잡한 문제를 지식에 의존해 창조적으로 해결하며 현대의 도시는 이같이 고수준의 창조자본을 필요로 한다. 이런 창조계층이 입지한 지역은 경쟁력에서 앞서 갔으나 반면 노동계급과 서비스 계급이 몰리는 지역들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플로리다는 두 가지 점에서 창조자본론이 인간자본론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1) 창조적 사람들이라는 인간 자본의 유형을 경제적 성장의 열쇠로 인지한다. 2) 단순히 지역들이 그 사람들의 특정 인재 덕택에 축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신, 이러한 사람들의 위치 결정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고 본다.

제3절 창조환경 이론적 배경

1. 창의성 발현 환경

1-1. 4Ps의 상호작용

창의성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창의성을 개인 내적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즉,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지적, 성격적, 동기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심리측정적인 연구결과들은 창의

적인 사람들의 특성 이외에 창의적인 사람들과 창의적인 산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현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창의성 연구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특정 영역에서 창의적인 사고의 본질과 그것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는 질문 즉, 창의성은 개인의 이러한 잠재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현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한다(Csikszentmihalyi, 1988, 1999)는 의견이 확산되었다.²³⁾

창의성을 복합적 체계 속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이루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고전적 의미의 창의성의 요소(4Ps of Creativity)에 대한 구분은 멜 로즈²⁴⁾에 의해 이루어졌다. 로즈는 1961년에 발표한 ‘창의성에 관한 분석(An Analysis of creativity)’을 통해 창의성 개념에 관한 56개 정의를 구분하여 창의성의 요소를 창의적 과정, 창의적 산출물, 창의적 사람, 창의적 환경(process, product, person, press)등의 4가지로 정리하였다. 이것을 고전적인 의미의 ‘창의성의 4가지 요소(The 4Ps of Creativity)’라고 부른다. 로즈의 연구 이후에 단순히 창조성의 요소를 구분하는데서 나아가 4p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근래에는 창의성의 4가지 요소가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와 상호작용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1990년 아이작센과 푸치오 (Isaksen & Puccio, 1990)는 국제 창의성 연구 학술대회(International Creativity Research Conference)에서 많은 창의성 연구자가 4개의 그룹(1961년 로즈의 4p 창의성 요소)으로 나누어 토론을 한 결과 4가지 요인이 상호작용을 할 때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창의적 사람’은 ‘창의적 환경’ 속에서 ‘창의적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창의적 산출물’을 창출할 수 있고 이것이 4p의 상호작용 본질이다. 즉 창의성이란 단순히 어떤 범주나 인성의 특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유용한 아

23) 최지은 외, 「창의적 환경지원 교수학습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0.

24) Rhodes, M., An analysis of creativity. Phi Delta Kappan, 42, 1961., pp.305-310.

이디어를 생산해 내는 다원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Isaksen, Murdock, Fierstien, & Treffinger (Eds.), 1993, pp.299-330) 는 주장이다. 고로 창의성에 대한 이해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학문의 상호작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창의성 연구에 대한 ‘상호작용 모델’은 복합적인 요소가 모여서 발생하는 것이다.²⁵⁾

창조성을 구성하는 4p 중에서 창조적 환경에 의미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쓰인다. 4p를 최초로 분류한 로즈(1961)는 마지막 p의 의미를 ‘press’로 표현하며 이를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로’로 정의했다. 타디프(Tardif)와 스텐버그(Stenberg, 1989)는 ‘press’ 대신에 ‘place’라고 정의하며 주로 영역(domain), 분야(fields), 상황(contexts)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 외에 hucker(1995), Ekvall(1995), Yong(1995), Kanter(1995), Grossman 과 King(1995)는 창의적인 환경을 의미하기 위해 문화,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감정적 분위기 등을 사용했다. 즉 창의적 환경은 학자에 따라 ‘press’나 ‘place’를 의미하기도 하고 p대신에 직접적으로 환경(environment)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테일러(Taylor)는 이를 ‘총체적이고 복잡한 일체의 상황’²⁶⁾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물리적인 환경을 넘어서 문화적, 사회적인 영향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창의성이 발현되는 환경

1) 창의성 체제(통합) 모델

아서 퀴슬러(Arthur Koestler, 1964)는 『창조의 행위(Act of Creation)』에서 많은 창조행위는 개인, 그룹, 그리고 문화적 사고 차이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치 기준이 충돌하는 것은 ‘창조적 충돌’이라 하고 있다. (Kaufman, James and Robert Sternberg (eds),

25) 전경원, 『동·서양의 하모니를 위한 창의학』, 학문사, 2005.

26) ibid., 2005.

2006) 플로리다는 “창의성은 지능이 아니다. 창의력은 종합하는 능력을 수반한다. 이것은 데이터와 통찰력, 그리고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새롭고 유용한 것을 건져내는 일이다.”고 말한다. (UNCTAD, 2010, 10) 즉 창의성은 창의적인 산물이나 아이디어와 관련되며, 그 산물은 그것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평가를 받아야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창의성이란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물²⁷⁾이다.

특히 폴리카스트로와 가드너(Emma Policastro & Gardner, 1999)는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현상학적 접근(Phenomenal approach)’을 시도하면서 종합적이고 생태학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모델은 푸치오의 (Isaksen, Puccio, & Treffinger, 1993) ‘생태학적인 접근’, 칙센미하이의 (Csikszentmihalyi, M., 1989, 1996) ‘체계모델’, 스톤버그와 루바트(Sternberg & Lubart, 1996)의 ‘투자이론’, 아머빌(Amabile, 1983, 1989, 1996)의 ‘상호작용 모델’, 폴리카스트로와 가드너(Emma Policastro & Gardner, 1999)의 생태학적 모델 등이 있다.

칙센미하이와 가드너는 창의성은 발달적인 문제, 인지적 과정, 사회적 맥락의 영향력, 그리고 영역(domain)의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Feldman, Csikszentmihalyi & Gardner, 1994). 제라드 푸치오(Gerard Puccio)²⁸⁾는 이러한 ‘창의성 시스템’이 혁신, 패러다임, 새로운 질서 등을 이끌게 된다고 하였다. 심리측정학자들은 창의적 현상을 개인(개인차, 보통의 개인)으로부터 찾으려고 하지만 (Lubart, 1999), 현상학적 접근의 연구가들은 창의적 과정을 ‘전문가’와 그가 헌신하는 ‘작업’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미시적, 거시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는 ‘체제적’ 관점²⁹⁾을 취하는 공통점이 있

27) 최지은, 「창의성의 체제모델에서 양방향성에 대한 시계열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8) 미국 버펄로대학(Buffalo State University) 교수이며 창조성센터 소장. 이 대학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조학 석사과정이 있음. 창조성 연구에 관한 기초를 닦은 알렉스 오스본(Alex Osborn)이 1950년에 설립한 창조교육재단(CEF·Creative Education Foundation)은 버펄로 창조성센터의 전신이며 창조성 교육의 출발이 됨.

29) 최지은 외, op.cit., 2010, p. 24

다. 다시 말해 창의성이란 개인의 지적, 성격적, 동기적 성향과 유사한 그 어떤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종합체이자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산물이라 볼 수 있다.

〈표 2-4〉 창의성 체제 모델: 창의성 발현을 위한 환경

연구자	모델명	개념
Isaksen, Puccio, & Treffinger	생태학적 시스템 모델	-개인과 그 작업, 환경을 둘러싼 미시적, 거시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Amabile (1983, 1989, 1996)	요소모델	-창의성의 3개 요소인 영역-관련기술, 창의성-관련기술, 과제-관련동기의 상호작용 이론화 -개인(person)-영역(domain)-분야(field)의 3가지 요소가 상호 작용하는 교차점에서 창의성 발현
Csikszentmihalyi (1988, 1996)	창의성 체계모델 (Systems model of creativity)	-개인차원의 연구가 아닌 영역, 혹은 분야에 관한 연구 필요하며 세 하위체제 사이의 상호작용 -영역(문화), 분야(사회체제), 개인(유전, 개인경험)
Woodman & Schonfeldt (1989)	창의성의 상호작용 모델	-창의성은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 행동의 복합적 산출물
Sternberg & Lubart (1991, 1996)	투자(융합)이론 (investment theory)	-창의성의 6가지 자원(지적능력, 동기, 특성, 배경지식, 성격, 환경)의 복합적 상호작용 강조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마치 투자과정처럼 높은 성장잠재력이 있으며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
Policastro & Gardner (1999)	생태학적 모델	-창의적 개인과 창의적 산물의 사회와의 관계
최지은 (2001, 2010)	상호작용 모델	-개인이 가진 특성의 종합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

2) 창의 생태계

이러한 개념은 창의 생태계라는 보다 유기적인 시스템에 관한 연구로 발전될 수 있다. 창의 생태계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은 창의성과 관련된 개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을 반영하고 있다. 창의 생태계의 목적은 '지역 환경을 개발하고, 생태지식을 촉진하며 사회 내에서 예술의 역할을 보다 제대로 인식함과 동시에 보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창의성을 촉진'하는데 있다. 호킨스(J. Howkins)는 2009년 발간된 그의 저서인 『Creative Ecologies』에서 유기체와 그 환경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여러

종이 하나의 생태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호킨스는 창의성이 ‘다양성’, ‘변화’, ‘학습’ 및 ‘수용’의 네 가지 생태환경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호킨스는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올바른 장소와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최상의 학습방법은 자신보다 뛰어나고 현명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왜 어떤 아이디어는 발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생태계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는 왜 실패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생태 원칙을 도출하였다. 호킨스의 관점에서 볼 때 창의생태계는 ‘다양한 개인들이 자신을 체계적이고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틈새 공간(niche)이며,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다 (UNCTAD, 2013, 6. pp. 24-25)

2. 창조환경 개념 및 유형 (미시적 관점)

2-1. 창조인력 선호 환경

1) 창조인력 집적요인

딘 키스 사이먼튼(Dean Keith Simonton)은 1970년대 이후 창의적 개인과 사회적 상호 작용이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Simonton, 1984a, 1984b) 더 나아가 최근에는 창조환경과 정치제도의 관계성에 관해 고려하기 시작했다. (Simonton, 1996) 창의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구에서 창의성은 ‘영역활동’, ‘지적수용’, ‘인종적 다양성’, ‘정치적 개방’ 등의 4가지 특성을 지닌 환경과 시대에서 변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인간은 외부적인 자극을 필요로 하며 이것은 지식기반 집적경제의 근본원인으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도시환경의 창조환경으로의 형성과정에 대한 접근을 진행하였다³⁰⁾ 이러한 사이먼튼의 연구는 비록 마이크로 한 수준에 관

한 것이었지만 이후 앤더슨과 플로리다의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환경의 조건에서 특별한 창의성이 나온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사이먼튼은 “고립되어 있는 천재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만들거나 기존에 규명된 과학적 현상을 뒤집는 혁명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과학의 진보는 다수의 협력과 동료들과의 토론, 논쟁,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가설은 기각되거나 새롭게 다듬어 지며 새로운 생각과 분야 역시 이런 노력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또는 전통적 사고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思考)하는 능력’이 창의성이며 이러한 능력을 지닌 창조인력은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다³¹⁾고 주장한다.

또한 가드너는 “창조인력이란 특정 영역에서 오랫동안 공헌하며 동료들의 지지와 그 분야에 영향을 미친 전문가라고 주장한다. 또한 새로움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창조적 작업’이란 그 영역에서 미래 작업에 중요한 의미를 지녀야 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창조적 산물이 ‘나’ 창조적 개인’ 모두 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론적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체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Policastro & Gardner, 1999) 그는 창조환경을 창조인력과 상호작용 속에서 찾으려고 했으며, 창조적 과정을 ‘전문가’와 그가 헌신하는 ‘작업’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미시적, 거시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한다.³²⁾

플로리다(Florida)는 “창의성은 공통된 사고 과정을 공유할 뿐 아니라 상호 교류와 상호자극을 통해 서로를 강화한다. 그러므로 역사상 다른 형태의 창의성을 발휘해 온 창조인력은 충만하고 다면적인 창조환경에 모여 서로를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띤다고 주장하며 창의성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환경과 창조도시에는 창조계층(Creative Class)의 유입이 가속화 된다”고 말한다. (Florida, 2002, p. 61)

30) David Emanuel Andersson et al., Handbook Of Creative Cities,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1.

31) Athene Donald, The Observer, Guardian, Sunday 3 February 2013

32) 최지은 외, op.cit., 2010, p. 24

홀(Hall, 1998)은 도시는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도시가 독자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도시로 모여든 사람과 기능은 다시 시너지효과 (Synergy Effect)를 통해 가치 창출을 증가시킨다. 특히 이렇게 인간 창의성이 번성하고 창조인력이 밀집되는 특정한 환경과 시기에는 ‘다양한 이민자의 유입’, ‘예술과 과학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 ‘자유무역’ 등의 불변의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말한다. 이상과 같이 어떤 특정한 시기나 환경에서 창의성의 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이고 체제적으로 작용할 때 지역 창의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창조도시라는 용어가 근래에 와서 널리 퍼지기는 했지만 학자들은 도시의 역사에서 과거에 가장 창조적이었던 도시들로서 아테네, 피렌체, 비엔나 등의 도시들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다. (Andersson, 2011: Hall, 1998: Simonton, 2004)

2) 창조인력 집적지역 및 창조환경 유사개념

한편으로 창조인력이 집적되어 있는 창조환경의 유사 개념으로써 문화지구, 창조지구, 문화클러스터, 등의 개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문화지구란 창조인력이 밀집된 개념보다는 문화자원이나 기반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일컬어 문화지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화지구 (Cultural District)란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 관리제도를 일컫는다.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반영되어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인사동과 대학로 등이 문화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한스 몸마스는(Hans Mommaas, 2004)³³⁾ “문화클러스터의 핵심 성공요인은 집적된 창의인재의 전문성, 문화적 수월성, 시장기능 등의 복합용도가 축적된 공간을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지에 의해 좌우 된다”고 하였다. 즉 문화

33) Mommaas, Hans. Cultural Clusters and the Post-industrial City: Towards the Remapping of Urban Cultural Policy, Urban Studies, Vol. 41, No. 3, 2004. March. pp. 507-532.

클러스터의 가치는 장소와 결합된 문화상품과 서비스들이 집적된 장소에서 시장(마켓)의 강점을 발휘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몸마스의 개념은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창조환경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창조환경 내의 요인들 간에 상호작용 관계성이 부족하다.

고정민(2009)³⁴⁾은 “창조지구란 창조적인 인력들이 모여 창조와 창의성을 발휘하는 연구 개발이나 창작활동을 하는 온 오프라인의 일정 지역”이라 말한다. 산업클러스터가 주로 상업화를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집적지라면 창조지구는 실험적인 아이디어의 창조를 목적으로 한 일정 지역을 뜻하며 산업의 전 단계인 인큐베이팅의 실험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창조지구의 유형은 ‘연구개발 창조지구’, ‘문화예술창조지구’, 온라인상의 ‘사이버 창조지구’로 구분하였다. 고정민의 창조지구 개념 역시 인적자본을 강조한 점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하나 창조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박세훈(2011)³⁵⁾이 주장하는 문화클러스터는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자기 조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문화예술의 생산 및 관련기능의 지리적 집합체”로 정의했다. 이는 예술가 중심의 문화클러스터를 연구한 스테른과 세이퍼트의 정의(Stern and Seifert)의 정의를 따른 것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문화클러스터는 문화예술이 산업화되기 이전의 창작기능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위미하며 자생성, 역동성, 풍부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박세훈의 문화클러스터 역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창조인력의 상호작용 환경에 대한 네트워크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문화예술분야와 창조산업 분야의 창조인력이 혼합되어 있는 본 연구의 창조환경과는 차이가 있다.

2-2. 창조(문화)산업 클러스터

창조인력이 집적되어 있는 대표적인 환경으로는 창조산업의 시너지 효과

34) 고정민, 『창조지구, 문화생산의 전위』,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9.

35) 박세훈 외,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1

를 위해서 조성하거나 형성된 창조산업 클러스터, 문화산업클러스터 등이 있다. 마샬은 20세기 초에 영국의 산업단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특정한 공간에 산업과 기업이 집중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 1890)의 산업지구(Marshallian Industrial district)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인 공업단지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써 창조생산품의 성장은 집적의 외부경제효과(Agglomeration Externalities), 즉 인접한 기업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유익한 파급효과에 기인한다. 음악, 영화, 시각예술, 패션, 디자인에 종사하는 기업이 클러스터로 집중되는 경향은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필수요소가 되어버린 사회, 경제, 문화적 상호작용을 반영한 것이다. 앨런 스콧(Allen Scott, 2000)은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기업은 공간적인 상호연관성을 줄일 수 있고 공간적으로 집중된 노동시장이 지니는 다수의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 다른 방식으로 전문화되었지만 보완적인 생산자가 모여드는 곳 마다 존재하는 풍부한 정보 흐름과 혁신 잠재력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1990)가 주장했듯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산된 창조 상품과 서비스는 효율성의 향상과 생산성 증대,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UNCTAD, 2013. 6, p. 20.)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에서 문화산업클러스터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관련 기업, 인력, 연구개발, 사업서비스 및 다양한 도시 서비스 활동들이 공간적으로 집적해 있으며, 이들 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된 집중체”로 보고 있다. 문화산업 클러스터(Cluster)의 구성은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원센터 등이 있어야 하며 문화산업 관련 기관들을 집적(Cluster)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재 ‘문화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단지를 조성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문화산업단지, 지방문화산업단지로 나누고, 장소에 따라 일반지방문화산업단지와 도심첨단문화산업단지로 구분한다. 지방문화산업단지는 다시 산업형태별로 전통문화산업단지, 첨단문화산업단지, 종합문화산업단지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5〉 우리나라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 현황

문화산업 단지(2개)	청주('02년), 춘천(' 08년)
문화산업 진흥지구(11개)	부산·대구·대전·부천·전주·천안·제주·인천·고양('08년) 안동·성남(' 10년)
문화산업 진흥시설(2개)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07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1년)
지방문화산업 지원센터(10개)	대전, 청주, 부천, 부산, 대구, 광주, 춘천, 제주, 전주, 목포

3. 창조환경 개념 및 시각 (거시적 관점)

3.1. 창조도시 초기개념: 창조환경

1950년대 후반 지리학자 톨슨 헤거스트란드(Torsten Hagerstrand)와 톤퀴스트(Törnqvist, Gunnar)에 의해 처음 연구가 시작된 지역 창조성에 관한 연구는 1978년에 톤퀴스트에 의해 ‘창조환경(Creative Milieu)’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그가 연구한 창조환경의 4가지 특성은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 역량(Competence), 그리고 창의성(Creativity)에 관한 특정 장소의 환경에 관한 것이었다. 톤퀴스트는 사람들 간에 공유되는 정보가 축적되면 지식이 되고, 지식들은 특정한 활동들과 관련되어 특별한 외부환경을 만들어낸다고 믿었다. 이러한 활동들이 적절하게 시너지를 맺으면 창의성이 발현되는데 그 창의성이 발현된 환경을 ‘창조환경’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1900년대 비엔나처럼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의 특정 도시나 지역에 창의성이 집중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지역과 장소는 오랜 동안 발달되어진 특별한 종류의 능력과 경험을 기초로 한다. 한편으로는 이런 창조환경은 ‘혼돈(Chaotic)’ 속에서 도시구조의 불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겪게 된다고 말한다.³⁶⁾

이러한 톤퀴스트의 ‘창조환경(Creative Milieu)’ 개념을 발달시킨 또 다른

인물은 스웨덴의 지역경제학자인 앤더슨(Åke Emanuel Andersson)이다. 창의 도시 개념이 도시 정치가, 경제학자, 계획가들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 되기 이전인 1985년 앤더슨은 창조성과 지역경제와의 관계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앤더슨은 『창의성, 도시의 미래(1985a)』에서 대도시의 미래는 창의성에 의해 대변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창의적인 지식조정자 (Creative knowledge handlers)’들은 후기산업사회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더슨의 ‘지식조정자’에 함축된 의미는 플로리다(2002)가 주장하는 ‘창의적인 인재(Talent)’와 유사하며 인간자본의 축적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³⁷⁾

앤더슨은 1989년에 또 다른 저서 『창조성과 지역개발 (Creativity and Regional development), 1989)』에서 중요한 기반시설의 설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지역 간의 네트워크와 연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통기반시설의 투자에 대해 강조하였다. 톤퀴스트의 ‘창조환경’과 앤더슨의 ‘창조적 지식사회’에 대한 주장은 언어적으로 제한적³⁸⁾이었지만 북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어갔고 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창조도시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앤더슨은 인간의 창의성이 번성하는 ‘창조도시’는 항상 다양한 이민자의 유입과 무역의 발달뿐만 아니라 예술과 과학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강조한다.³⁹⁾ 기원전 5세기 아테네, 13세기~15세기 플로렌스, 1880년~1927년 비엔나, 1950~60년대의 뉴욕, 현대의 샌프란시스코 등은 예술, 과학, 기술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뚜렷한 능력을 보유하며 발달해 왔다. 이런 환경들은 여러 요인들이 ‘역동적인 시너지 과정 (Process of Dynamic Synergy)’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런 시너지는 종종 작은 스케일에서 다양성과 다양한 활동들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앤더슨(1985)은 ‘창조환

36) Hall, P, Cities in civilization,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98. p.18.

37) David E. Andersson, et al., op.cit., 2011, p. 3.

38) 초기의 앤더슨의 저서들은 스웨덴어로 출간되어서 글로벌한 독자층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덴마크 등지에서 앤더슨의 이론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갔다. 이후 실제로 북유럽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창조도시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39) ibid., p. 4.

경'에 대해 규제 없는 금융,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 경험과 기회의 조화, 다양한 환경, 개인의 이동과 소통을 위한 내·외부적인 가능성, 불안정한 도시구조 등의 6가지 특징으로 설명하였다.⁴⁰⁾

프랑스 학자인 필립 아이달로(Philippe Aydalot)에 의해 발전된 개념인 '혁신적, 창조적 환경(Innovative or Creative Regional Milieu)'의 개념은 톤귀스트와 앤더슨(Ake Andersson)의 '창조도시'의 개념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이론은 간접적으로는 프랑소와 페루(François Perroux)의 성장이론으로부터 도출된 발터 슈퇴르(Walter Stohr)의 특정지역 내에서의 '요소 시너지(Synergy of Factors)'⁴¹⁾ 개념과 앤더슨의 '창조환경'이론이 접목된 개념이다. 아이달로는 세 개의 혁신에 대해 주장한다. 첫 번째는 대기업에 의한 내부의 재구조화와 관련된 혁신이며, 다음은 구시대적인 활동과 새로운 기술 간의 창의적 종합을 통한 오래된 산업 환경의 재편이다.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써, 연구배경을 지닌 새로운 기업이 실제적인 지식생산을 제조업에 적용하는데 있다. 아이달로는 혁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적 맥락에서 기업을 이해하여 기존 기업에 의해 새로운 기업이 창출되고 혁신이 채택되도록 돕는 외부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혁신적, 창조적 환경'은 혁신과 혁신기업의 인큐베이터이다. 이런 장소들이 갖는 특별한 자질을 앤더슨(Ake Andersson)은 '개방된 시스템(open system)'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보리 요한슨과 라 웨스틴은 (Börje Johansson & Lars Westin, 1994)⁴²⁾ 이같이 '창조적 경제지역'은 매우 높은 혁신비율을 가지고 풍부한 수입채널의 네트워크를 가진 장소라고 주장한다. 그런 장소는 항상 대도시 지역에 있고 대도시지역은 활력 있는 R&D 기능과 잘 훈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⁴³⁾고 주장한다.

40) Hall, op. cit., 1998, pp. 18-19.

41) 시너지 요소는 교육훈련기관의 범위, R&D의 집중, 양호한 기술관리 컨설팅, 위험자본, 지역적으로 뿌리를 둔 의사결정 기능 등

42) Borja, J. and Castells, M. Local and Global: Management of Cities in the Information Age, arthscan Publications, London, 1997.

43) ibid., pp. 298-299.

3.2. 도시계획 및 산업적 측면

루이스 머퍼드(Lewis Mumford, 1938)⁴⁴⁾는 『도시의 문화(The Culture of Cities, 1938)』, 『예술과 기술 (1952)』 등에서 “억제되지 않고 성장하는 거대도시(Megalopolis)는 전쟁, 갈등, 환경의 재앙에 이르러 결국 그 스스로 소멸되고 쇠퇴한다.”고 주장하였다.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대도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빠르게 기계문명화, 산업도시화 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머퍼드는 신기술이 지배하는 도시가 아닌 인간의 창조적인 삶을 조장하고 촉진시키며 도시민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생명력 있는 공간을 조성⁴⁵⁾하고자 노력하였다. 머퍼드는 인간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장하였다. 대도시의 성장 위주의 산업시스템에서 인간의 창조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급한 과제로 내세웠다. 전 지역에 걸쳐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위해 자원과 산업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에 도시계획의 역할이 있다고 주장(Mumford, 1925, 1938)⁴⁶⁾하면서 도시의 확장성보다 창조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제인 제이콥스는 머퍼드의 주장과 견해를 달리한다. 그녀는 머퍼드가 대도시를 바라보았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머퍼드의 『도시의 문화』 같은 책은 도시의 해악을 열거한 음침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토록 나쁜 대상이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가치가 있었겠는가? 탈집중론자들은 도시를 이해하거나 성공적인 대도시를 육성하는 것에 관련이 없었으며 그럴 생각도 없었다.”⁴⁷⁾ 제이콥스는 도시계획 이론에서 계속 회피해 왔던 대도시의 혼잡성과 용도의 혼합에 대해 고민했다. 그 이유는 많은 계획가들이 대도시의 집중화와 슬럼화 문제를 새로운 지역을

44) 생물학자로서 사회학, 인구학, 경제학, 인류학, 종교학, 도시학 등 다양한 연구를 했던 패트릭 게데스(Patrick Geddes)와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자로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토르스테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의 영향을 받았다.

45) Hall, op.cit., 1998, p.211.

46) Mumford, L., The Culture of Cities, Mariner Books, 1938.

47)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york : Vintage Books.
유강은 역, 미국대도시의 죽음과 삶, (주)그린비 출판사, 2010. pp.43-44.

개발하면서 분산시키거나 전면 철거 후에 재개발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제이콥스는 유명한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1)』에서 그리니치빌리지 같은 도시 지역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찬양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복합용도의 거리는 문명과 창조성의 근원이라 주장했다.⁴⁸⁾

톤퀴스트와 앤더슨이 주장한 특정한 시기의 특정장소가 지니는 창조성에 대해 홀(Peter Hall)은 『문명의 도시(Cities in civilization, 1998)』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홀은 도시의 창의성과 혁신의 이론을 생산하는 도시 문명 중심의 문화 정책에 대한 폭 넓은 신념 및 가치체계, 문화후원, 관객과 Pericles의 아테네, 15세기 피렌체에서 셰익스피어의 런던 사례 연구를 통해 시장(Market)주변 문제 내 예술의 장소를 설명하면서 도시와 문화정책 연구의 원리를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

홀은 거대도시들의 무질서와 혼돈 사이에 잉태되는 창조성과 혁신의 능력에 대해 주목하였고 그러한 문화적으로 혁신적인 도시들의 특성은 거대하고, 활기차고, 다국적이며, 외부인을 유입하는 매력을 지닌 도시들로 규정지어진다고 강조한다. 홀의 의도는 황금시대의 서양의 대도시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의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홀은 역사를 통해서 21개 도시의 혁신성과 창의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가 강조하는 도시의 창조와 혁신의 범위는 예술적 여건, 기술의 혁신, 예술과 기술의 결합요인, 그리고 도시혁신을 통한 질서의 설립, 예술과 기술이 결합한 행정과 산업 등에 관한 미래의 도시에 관한 것이다. 많은 도시들이 흥망성쇠를 겪으며 발전해 왔으나 역사적으로 황금시대를 이루었던 도시들의 공통점은 물리적인 형태의 완성도를 넘어서 창조성과 혁신성을 지닌 도시들이었다.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도시들은 경제적, 사회적 자본을 넘어 문화자본이 축적된 도시들이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도시역사에 있어서 문화는 활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시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문화의 활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48) 박은실, “창의경제의 기반 창의도시”, 「창의경제와 문화예술의 역할」,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3-3. 사회·경제학적 관점

제이콥스는(1984)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1776)』을 염두에 두고서 창조도시의 경제적 실현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제이콥스는 뉴욕이나 런던 같은 세계 도시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피렌체 같은 작은 규모의 도시를 주목했다.⁴⁹⁾ 볼로냐와 피렌체의 경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중소기업들의 클러스터가 밀집해 있다. 이들 도시의 주역인 전통장인기업은 소규모 기업들의 네트워크 형 집적이 보여주는 거대한 ‘소기업군’, ‘공생적 관계’, ‘직장 이동의 용이함’, ‘경제성’, ‘효율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도시의 노동력 또한 유연하게 고도의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의 인력들이며 이들 도시의 특징은 수입대체에 의한 자전적 발전과 혁신, 그리고 즉흥성에 의한 경제적 자기수정 능력이라고 파악된다.⁵⁰⁾ 이처럼 제이콥스는 창조도시란 탈 대량생산 시대에 풍부한 유연성과 혁신적인 경제적 자기수정 능력을 갖춘 도시라 정의한다.

제레미 리프킨 (Jeremy Rifkin, 2005)은 ‘노동의 종말’, ‘노동사회의 종언’에서 산업시대의 안정적 고용형태는 급격히 퇴조하고 모든 노동자는 직업을 자주 바꾸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플로리다는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들과 일을 연결하는 조직적 모체는 이제 기업이 아니라 지리적 장소가 되었고, 새로운 경제계급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공동체의 건설과 창조적 집적지역을 조성하여 ‘창조자본(Creative capital)’을 구축(R. Cushing, 2001)한다는 주장이다. 플로리다(Florida, 2011)는 창조적 자본이론을 통해 경제적 발전은 다양하고 관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 개방적인 지역을 선호하는 창조적인 사람들에 의해 촉진된다고 강조한다. 창조적인 사람들이 다양하게 혼합된 지역들은 새로운 결합을 생성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게다가

49) 박은실. “도시재생과 문화정책의 전개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17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 29-34. 2005.

50) Sasaki, Masayuki, Iwanami Shoten, 2002, 창조하는 도시, 정원창 역, 소하, 2004.

다양성과 집결은 함께 작용하여 지식의 흐름을 가속화한다.⁵¹⁾ 결과적으로 창조적 자본의 더 거대하고 다양한 집결은 더 높은 비율의 혁신, 하이테크 사업 형성, 일자리 창출, 경제적 성장을 초래한다. 결국 창조계층과 창조인력이 선택하는 지역은 신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3-4. 문화적 관점

영국의 컨설팅 그룹 데모스(Demos)의 대표이자 영국 행정부 자문인 벤트리(Tom Bentley)는 “유럽의 창조도시에 대한 시도는 유럽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비교우위 (Sustainable Comparative Advantage)'를 점하려는 고민에서 비롯되었다”⁵²⁾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산업생산성과 경제성장에서 독보적인 미국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지닌 ‘문화다양성과 장소의 매력’을 통해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유럽의 도시들이 지닌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창조인력을 유치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의 창조성을 자극하여 창조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최적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Landry & Bianchini, 1995; Hall, 1998; Landry, 2000) 1980년대에 들어 유럽사회는 제조업이 쇠퇴하고 실업이 증가하여 복지국가 시스템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의 창조도시에 관한 시도들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부터 독립한 도시가 어떻게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유럽의 창조도시 연구자들은 문화예술이 지닌 창조적인 힘을 활용하여 사회 잠재력을 이끌어 내려는 유럽도시들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예술 활동이 갖는 창조성에 착안하여 자유롭고 창조적인 문화 활동과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야말로 혁신이 요구되는 기술·지식 집약산업을 보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⁵³⁾ 문화예술, 지식의 혁신이

51) Florida, R., *Creative Class* 2nd ed., 2011, 리처드 플로리다 저, 이길태 역, 신창조계급, 북콘서트, 2011.

52) Richard Florida & Irene Tinagli, *Europe in the Creative Age*, DEMOS.2004

53) 박은실, “창조도시의 의의와 사례”, 「도시정보」, 통권 제317호(2008-0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 3-16, 2008.8.

산업으로 이어지는 매개체로서 창조성을 보고 있다.

랜드리(Landry, 2000)는 창조환경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환경, 학습, 순환하는 지속성 등이 있는 환경이며 문화예술은 창의성의 원천이라 말하고 있다. 창조환경이란 하드웨어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데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창의적 인재,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새로운 아이디어와 결과물 등이고, ‘하드웨어 인프라’는 어메니티 등의 지원시설, 문화시설, 연구기관, 교육시설, 교류를 위한 만남의 장소 등이다. 더불어 창의적인 분위기가 중요한데 개방적인 문화와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는 “문화적으로 주의 깊은 기술자들이 동일한 작업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서로 만나서 자극을 주고받는 환경이 되어야 하며 다른 분야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가 일어나는 공간”이라 주장한다.

3-5.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창조환경에 대한 정의와 접근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개념과 지리적인 장소개념을 벗어나 인력과 제도, 사회경제시스템이 결합된 체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특성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창조환경 특성이란 개인을 둘러싼 ‘창의성환경’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장소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창조생태계’ 환경, 특정한 제도와 행정단위의 구분을 통한 창조도시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이렇게 창조환경이라는 물리적인 단위와 공간범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광역화 된 지역차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할 수 있지만 결국 창조환경이란 “창조인력이 집적되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된 특정한 지역의 성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창조환경이나 창조도시에 대한 연구는 분야에 따라 도시계획적 관점, 경제적 관점, 문화적 관점의 접근방식이 있다. 20세기 초기에는 물리적인 계획이나 경제적 관점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문화적 관점의 창조환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다.

〈표 2-6〉 창조환경(창조도시) 개념

관점 및 분야		이론가/계획가	이론	개 념
창의성 환경	창의성 발현 환경	칙센미하이(1988)	창의성 체계 모델	-영역(문화), 분야(사회체제), 개인(유전, 개인경험)의 3가지 요소가 상호 작용하는 교차점에서 창의성 발현 -개인차원의 연구가 아닌 영역, 혹은 분야에 관한 연구 필요하며 세 하위체제 사이의 상호작용
		사이먼트 (1984)	창의성 상호작용 환경	-창의적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한 창의성 증진 -창의성은 영역활동, 지적수용, 인종적 다양성, 정치적 개방의 4가지 특성을 지닌 환경에서 번성함
창조 생태계	창조 환경	툰퀴스트 (1978)	창조환경	-정보, 지식, 역량, 창의성이 있는 특정한 장소의 환경
		앤더슨 (1985)	창조환경 창조지역	-규제 없는 자원, 지식과 역량, 경험과 기회의 조화, 개인의 이동과 소통기반, 다양성, 불안정한 도시구조 등 6개 요소의 역동적인 시너지 과정
		요한슨과 웨스턴 (1994)	창조경제 지역	-혁신비용이 높고 풍부한 수입채널의 네트워크 지닌 장소, 풍부한 R&D 기능, 훈련된 노동력
	창의 경제	러스킨 (1853)	예술경제	-유용성과 예술성을 낳는 고유가치와 본원적 가치 -자유로운 발상과 기획의 정신과 표현. 창의적 노동추구와 장인 정신, 예술경제 환경조성, 협동조합의 선구
		모리스 (1880)	문화경제	-쾌적한 환경조성과 창의적인 장인공예산업 증진 환경 -미술공예운동, 생활의 예술화
		호킨스 (2001, 2009)	생태환경 창의생태계	-유기체와 그 환경사이의 관계를 고찰. 창의성은 다양성, 변화, 학습, 수용 4가지 생태환경이 결합으로 이루어짐
창조 환경 · 도시	도시 계획	게데스 (1913)	생태도시	-인간, 기술, 환경이 공존하는 창조적 계획, 지리학적 조사 중요 -도시는 문화적 개척화 단위로서의 지역
		멈포드 (1938, 1952)	문화도시	-창조적 삶과 행동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의 자원과 시설을 배분하는 도시계획
		제이콥스 (1961)	창조적 커뮤니티	-복합용도의 거리와 다양한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창조적인 공동체는 아이디어 생성, 혁신의 촉진, 다양성, 유기적 공간, 창조인력이 있는 공동체
		피터 홀 (1998)	창조 · 혁신 도시환경	-첨단기술과 창조활동의 융합이 창조성과 혁신성을 이루어 도시 발전. 문화예술이 도시창조성 발현에 중요 -예술적 여건, 기술의 혁신, 예술과 기술의 결합요인, 그리고 도시혁신을 통한 질서의 설립, 예술과 기술이 결합한 행정과 산업 등에 관한 미래의 도시
	창의 산업 · 창의 계급	제이콥스 (1969, 1984)	창조도시	-유연성, 혁신성, 자기수정 능력, 유기적 공간, 즉흥적 공간을 지닌 환경
		고토 가즈코 (2004)	창조도시	-창조인력의 네트워크, 다양성과 유연한 사회 분위기, 기술 및 혁신
		사사키 마사유키 (2004)	창조도시	-탈 대량생산시대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
		플로리다 (2002, 2011)	창조계층 선호환경	-3T(기술, 인재, 관용)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를 맺는 환경 -창조계층이 선호하는 환경
	문화 계획	비안키니, 랜드리 (1995)	창조도시	-문화예술이 매개가 된 소프트웨어프락쳐, 창의적 분위기. 창의적 리더쉽, 시민참여 중요
		랜드리 (2000)	창조환경	-창의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환경, 학습, 순환하는 지속성. 문화 예술은 창의성의 원천
		에반스 (2010)	창조 문화환경	-문화예술의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통합적 계획. 물리적계획을 넘어서 공공의 계획에 대한 문화환경 계획

제4절. 분석의 틀

1. 개념 및 용어의 정리

1-1. 창조인력의 정의

창의성의 개념이 확장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창의성을 근간으로 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과 더불어 창조인력의 범위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창의성 개념의 확장에 따라 소수의 영재인 과학자나 예술가만이 창의적이라는 과거의 개념을 넘어서 인간 모두의 보편적 창의성을 주장하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2002)의 창조계층 개념은 인간은 누구나 내재된 창의성(Carl Rogers, 1961, Amabile, 1989)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편적 창의성 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물론 이 논의에 대해 반대하는 학자들은 (Gordon Yorr, 2008) 창의적인 인간과 보편적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 강조하였다.

미국의 국립과학원(National Research Council)과 유엔무역개발부(UNCTAD, 2008)는 창의성을 실제로 활용하는 영역인 과학·기술·경제·문화의 창의성(Alex F. Osborn, 1952; Carl Rogers, 1961; Mihaly Csikszentmihalyi, 1996; Teresa Amabile, 1996)과 관련한 인력을 창조인력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으로 창조인력의 핵심인력이었던 과학과 예술분야를 넘어서 경제분야의 혁신성을 지닌 창조인력을 핵심 창조인력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플로리다의 주장처럼 보편적 창의성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창조경제 분야에 기여하는 인력들에 대한 범주를 구분해 놓은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위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경제·문화 인력의 범주를 창조인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칙센미하이(1988)와 호킨스(2001)의 주장처럼

럼 ‘누구나 창의적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모두가 창의적이라는 플로리다의 창조계층보다는 창조인력의 범주가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가 타고난 창의성에 관한 ‘창의적 인재’, 또는 ‘인간 창의성’에 관해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아니므로 창조인력의 범주를 이와 같이 핵심창조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한다. 과학기술, 문화예술, 경제 분야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창조인력의 범위는 연남동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예술’, ‘창조활동/사업’ ‘창조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창조인력이 연남동에 집적하게 된 선호요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연남동 창조환경 특징을 창조인력의 인식에 기초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표 2-7〉 창조인력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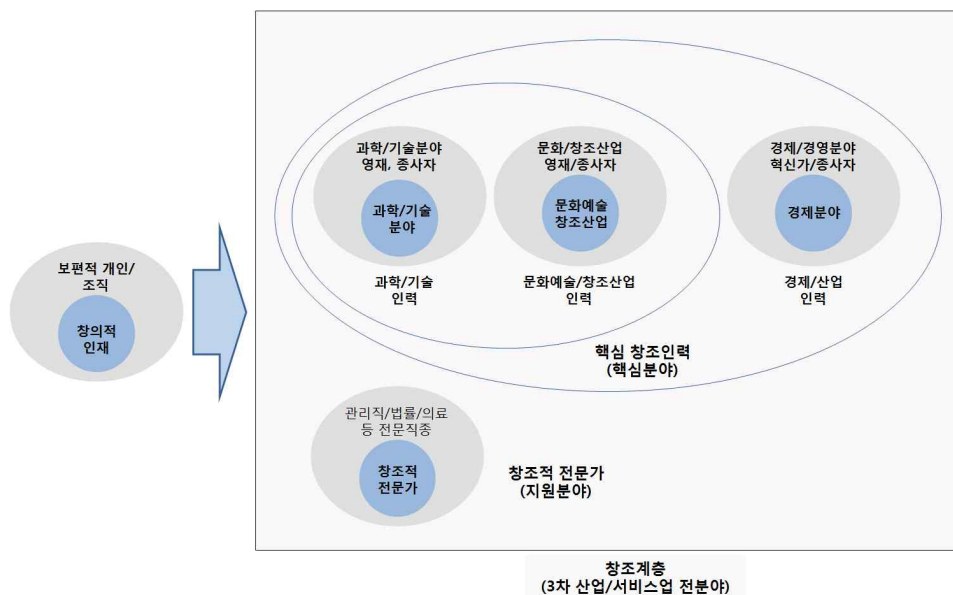
개념	구분	분야	인력/종사자
개인 창의성	창의적 인재	개인 또는 조직의 창의성을 지닌 인력	-창의적 개인 -창의적 조직 -보편적 조직의 창의적 개인
창조 인력	(핵심) 창조인력	과학/기술/문화 분야 경제/경영의 혁신분야	-문화예술/창조산업 종사자 -과학/기술 종사자 -혁신적 기업가/경영자
	창조적 전문가	행정/관리/산업/의료/법률 등 전문분야	-관리직업, -사업과 재정운영 직업, -법률에 관한 직업, -건강관리 개업의와 전문직업 -고소득의 판매와 판매관리 직업
창조계층			

개인 창의성은 보편적인 「개인이 지닌 창의성」을 뜻하며 이러한 인재가 어떤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창의성을 지녔다고 해서 모두 창조인력이라는 뜻은 아니다. 창조인력은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뜻하며 특정분야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특정 분야의 인력 중에서도 「창조계층」은 3차 산업, 지식서비스, 창조산업 종사자를 모두 창조계층으로 보고 있다. 즉, 창의적 개인보다는 창조적 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창의성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본 연구의 「(핵심)창조인력」은 특정영역 중에서도 창의성이 기반인 과학기술, 문화, 혁신적 경제 분야의 인력을 뜻한다.

- 본 연구의 대상인 창조인력의 범위는 핵심 창조인력 중에서 문화예술과 창조산업 분야 종사자로 한정한다.

〈그림 2-1〉 창조인력 유형 및 구분



1-2. 창조환경의 정의

창조환경의 개념과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창조인력을 비롯한 인적자원을 둘러싼 관점에서 창조환경의 유형을 구분하고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8〉 창조환경 개념 및 유형

구분	환경	특징	개념 및 요인	인적자원
창의성 환경	창의성 발현 환경	개인 또는 조직의 창의성 촉진환경	-보편적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 창의성을 촉진/향상시키기 위한 환경 -개인이나 조직을 둘러싼 보편적 환경의 창의성 증진 요인	-창의적 개인 -창의적 조직 -보편적 조직의 창의적 개인
창조 환경 (미시 적 관점)	창조적 환경 (문화클러 스터)	창조인력 선호환경	-창조인력이 선호하거나 밀집되어 있는 환경 -창조인력과 상호작용하는 특별한 환경 요인	-창조직업 종사 자 -창조활동(직업) 수행자 -창조산업종사자
	창조산업 클러스터	창조산업 밀집환경	-창조산업이 입지하거나 창조자원이 밀집 되어 있는 환경 -창조산업과 상호작용하는 특별한 환경 요인	-창조산업종사자
창조환경 (도시와 지역 차원의 거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의 「창조환경」은 도시나 지역의 창조성이 완성된 상황이며 어떤 ‘특정한 환경자체가 창조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거시적 관점의 창조환경은 개인의 창의성을 촉진시키거나 발현시켜주는 「창의성 발현 환경」, 미시적 관점의 창조환경이라 할 수 있는 창조인력이 밀집한 「창조적 환경」과 창조산업이 밀집한 「창조산업클러스터」를 모두 포함한 환경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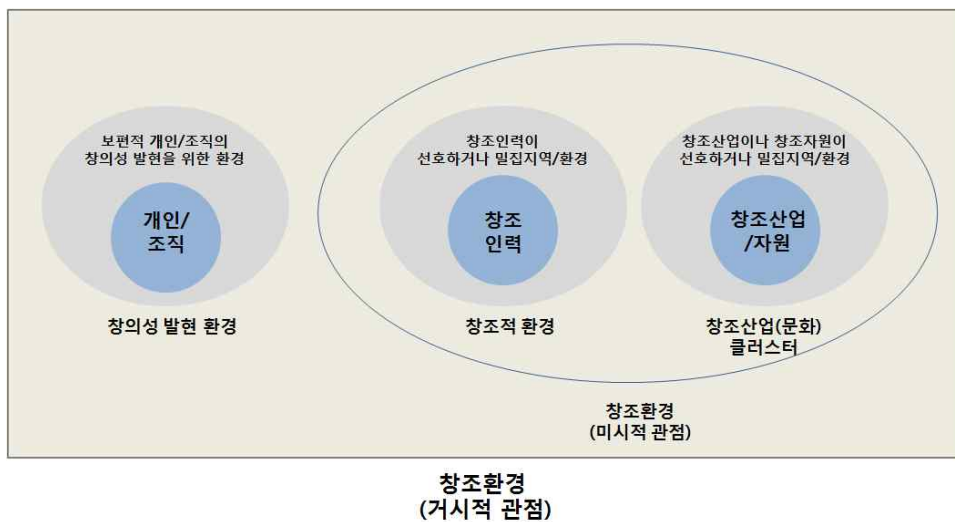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미시적 관점의 「창조환경」⁵⁴⁾은 창조인력이 선호하거나 밀집되어 있는 「창조적 환경」을 의미하며 도시나 지역의 창조성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창조인력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환경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창조환경’의 용어 개념은 창조적인 직업에 종사하거나 창조적인 활동(작업)을 수행하는 ‘창조인력이 선호하고 밀집된 지역으로써 창조활동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환경’

54) 미시적 관점의 창조환경은 창조인력 선호환경과 창조산업 밀집환경이 있으나 본 연구가 창조산업 기업 인력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화가 되기 이전의 예술가를 포함한 1인 창작방식의 창조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창조(문화)산업 클러스터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이라 볼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창조환경의 의미는 창조인력이 선호하거나 밀집되어 있는 미시적 관점의 창조환경을 뜻한다.

〈그림 2-2〉 창조환경 다이어그램



2. 창조환경 구성요인

2-1. 창조환경 구성요인

본 연구의 목적은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창조환경의 요인과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창조인력이 유입되면서 상호작용하는 창조환경의 특성을 주안점으로 살펴보자면 ‘창조환경의 구성요인’을 본 연구의 대상과 범주에 부합하는 ‘핵심창조인력(이하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환경에 관한 요인’으로 한정하여 도출해보고자 한다.

앞서 창조환경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창조환경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아래 <표 2-9>와 같다. 창조환경이 지닌 특징 및 속성은 지역사회의 독창성, 전문성, 복합성, 다양성, 순환성, 불완전성 등의 6개 특성을 기초로 한다. ‘독창성’이란 창조적 아이디어가 발현된 지역이 지닌 독자적, 독창적, 진정성의 문화자원을 말한다. 독특한 지역의 자원은 창조환경의 중요한 자원이며 기초적인 속성이다. ‘전문성’은 전문화된 지식, 숙련된 기술, 특정 영역에서 인정받는 창의성의 역량을 의미한다. ‘복합성’이란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충돌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이란 사회적 관용과 포용을 의미하며 다양한 주체와 계층 간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문화의 다양성을 공유함을 말한다. ‘순환성’이란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념으로써 환경, 경제, 산업구조, 도시환경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불안정성’이란 유연한 조직과 수평적인 네트워크, 즉흥적이고 혁신적으로 변모하는 유기적인 행정과 조직문화를 의미한다. 강한 유대보다는 유연하고 약한 유대를 지닌 구성원들의 결합체이다.

<표 2-9> 창조환경의 속성

속성	속성
독창성	진정성, 독자성, 창의적
전문성	지식, 기술, 역량
복합성	융합, 복합, 다면적
다양성	개방성, 포용성
순환성	자율성, 지속성, 내생적
불안정성	유연성, 불균형성, 불확실성, 즉흥성

이러한 속성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중복적으로 꼽고 있는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독창적 영역’, ‘시장기능’, ‘문화환경’, ‘네트워크’, ‘관용’ 등 5가지 요인으로 추출해 보았다.

〈표 2-10〉 창조환경 구성요인

요인	속성	세부 요소
독창적 영역	전문성, 독창성	영역의 전문성, 역량, 아이디어, 기술
시장기능	지속성, 순환성	마켓, 지원기능, 후원그룹, 지지기반, 지지세력, 동료
문화환경	독자성, 다양성	고유한 문화/경관, 복합용도의 활기찬 거리, 문화시설, 야간문화
네트워크	다양성, 복합성	교류, 정보, 융·합적 아이디어, 매개공간
관용	개방성, 즉흥성	개방적 분위기, 다양성, 자율성, 유연성

첫째, ‘**독창적 영역**’ 요인이란 앞 3절에서 추출한 창조환경의 6가지 속성 중에서 전문성과 독창성에 해당하는 요인이다. 세부 요소로는 영역의 전문성, 역량, 창의적 아이디어 등이 있다. ①영역의 전문성이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한 분야에서 인정과 지지를 받아야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며 ②역량이란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 ‘**시장기능**’ 요인이란 ①창조인력이 모여들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서 마켓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겠다. 본래 마켓이란 민간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나 문화예술 분야가 공공지원에 의존하는 시장실패 성격의 공공재와 가치재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이므로 여기서의 시장의 의미는 지원, 후원, 제도 등의 지지기반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생태계 안에서의 유기적인 공급-유통-소비 체계 정도로 이해해도 좋다. ②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어떤 한 영역의 집약된 노동력으로 보기도 한다. 어떤 영역에서 창조적 산물의 배출은 동료들의 지지와 지원세력들의 집적에 의한다. 다시 말해서 과학자나 예술가들은 동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으며 공동의 작업을 하거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문화환경**’ 요인은 연구자들의 견해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물리적인 환경에 관한 학자마다의 견해가 달라 어떤 한 요소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문화환경’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공통적인 요소만을 추출해보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전통적인) 문

화경관환경, 복합용도의 활기찬 거리문화, 다양한 유형의 문화시설, 야간문화 등이 해당된다. 많은 학자들이 창조인력의 핵심적인 환경으로써 야간문화의 발달을 꼽고 있다. 이는 창조인력의 라이프스타일과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의미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네트워크’ 요인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창조인력은 어떤 한 지역이나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그들이 활동했던 특정한 환경이나 장소 요인이 창조적 산출물을 배출해내었던 경우가 많다. 실제 노벨상 수상자를 어떤 지역이나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배출해 낸 이유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정보교류, 네트워크, 협업과 상호작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의 사회자본의 시대에 강한 유대의 공동체적인 성질은 창조인력의 공동체 특성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창조인력의 네트워크의 핵심은 약한 유대의 느슨한 네트워크를 폭 넓게 유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관용적 정서’ 요인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정서나 분위기와 관련한 특징은 매우 추상적이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이나 환경이 가지고 구성원들의 속성일수도 있고 구체적인 제도나 지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요인은 다양성, 개방성, 유연성, 자율성, 즉흥성 등의 다양한 속성을 개별적인 요소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관용(Tolerance)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많은 속성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관용적인 정서’ 요인이란 어떤 한 지역이나 환경이 가지고 있는 ①다양하고 개방적인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인정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며 ②유연하고 즉흥적인 ‘허용’의 개념을 담기도 한다. ③종교나 인종에 대한 ‘자유와 관용’, ‘자율’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란 대개의 경우 인종, 종교, 관습, 신념, 문화 등 외부 또는 외부인에 대한 다양성과 개방적 성질을 의미한다.

〈표 2-11〉 창조환경 구성요인

구성 요인	칙센미하 이 (1988)	앤더슨 (1985)	몸마스 (2004)	커리드 (2009)	피터 홀 (1998)	랜드리 (2000)	제이콥스 (1961, 1969, 1984)	플로리다 (2002, 2011)
독창 영역	영역 창의성	지식 역량	창조인력	개방적 사회자본	예술과 과학 아이디어	창의적 아이디어 리더쉽	창조공동 체	탤런트 인재/기술
시장 기능	동료 분야	지지기반	시장기능		지지세력 후원그룹 자유무역		시장의 혁신성	노동집약적 시장
문화 환경			문화적 수월성	거리문화 야간문화 공공공간		토착문화 도시지원서 비스 문화시설 공공공간	토착문화 복합용도 거리 야간문화 공공공간	토착문화 보헤미안 거리문화 야간문화 생활양식
네트 워크	상호작용	이동 소통 다양성	네트워크	느슨한 네트워크 제3의공간 비공식모임	자유로운 교환 교류	학습 네트워크 만남의 장소	커뮤니티 공간 즉흥적 교류 매개공간	느슨한 네트워크 제3의 공간
관용	인종 다양성 정치 개방성	불안정한 도시구조 자율적 시스템		개방성 유연성	다양한 이민자	개방성	유연성	관용 개방성, 다양성

위의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은 4장의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개별 요인들마다 세부적인 요소들의 도출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연남동에 거주하는 창조인력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연남동의 창조환경 세부요소를 추출⁵⁵⁾하기로 하겠다. 4장에서는 심층면접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5장에서는 각 세부요소를 통한 심층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55) 그 이유는 아직까지 창조환경과 관련한 연구들은 거대담론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창조인력, 창조 환경에 관한 개념과 범주도 제각각이어서 균질한 관점을 가진 연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환경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도 미약한 상황이며 창조성의 속성상 창조인력이 집적된 창조환경은 각각의 경우마다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창조성에 관한 오랜 연구자 중 하나는 이러한 것이 창조성에 관한 특징이어서 창조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개별적인 상황에서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2-2. 선행연구 분석

도시와 지역과 연계한 창조인력 관련 선행연구들은 플로리다의 창조계층(Florida, 2002)이론에 기초하여 창조계층의 도시별 공간분포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에 치우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창조인력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그룹 특성에 따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플로리다의 창조계층에 의한 창조인력 구분이 아닌 유엔무역개발부와 미국의 국립과학원, 데이비드 스로스비의 문화산업 인력기준, 기타 우리나라 관련 법에 근거한 창조인력의 기준인 과학기술, 문화, 경제혁신 분야의 인력을 창조인력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2-12〉 창조인력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제목	연구방법
Florida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표준직업분류시스템 (Standard Occupations Classification System, SOC, 98) -슈퍼창조계층 (코어클래스), 창조적 전문가
Boschma and Fritsch (2007)	Creative Class and Regional Growth in Europe, The Future of European Regions	-국제표준직업분류표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 88) 세분류 수준. -창조핵심 (Creative Core), 창조적전문가 (Creative Professionals), 보헤미안(Bohemians)
이희연 (2007)	창조도시 발전의 이론과 과제	-산업-직업 교차 분류 -인구주택총조사, 직업소분류 기준 창조계층 추출 -통계청 산업분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창조산업 분류, 세세분류 96개 업종 선정 -제조업분야, 사업서비스분야, 문화분야
대전발전연구회 (2008)	창조도시 대전 만들기 실행계획수립연구	-한국표준직업분류
김인철 (2010)	창의성 여건이 지역경제 성장과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통계청 산업분류 -DT_1K51001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종사자수('02~'07)의 4단위 세분류 -창의핵심계층, 창의전문가계층, 창의예술가 계층
김홍주 박기홍 (2010. 2)	도시의 창조적 계급기술관용의 공간적 집중과 클러스터	-통계청 산업별·지역별 고용조사, 2008 -세분류 (3digit)
김은란 정소양 (2011)	창조계층입지패턴 분석 연구	-통계청 산업별·지역별 고용조사, 2010 -전체 149개 직종(소분류)중에서 38개 창조계층 직종 추출 -예술창조유형, 핵심창조유형, 일반창조유형
본 연구	연남동 창조환경의 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창조인력 군집분석	-미국의 국립과학원(National Research Council) -유엔무역개발부(UNCTAD, 2008) -Mihaly Csikszentmihalyi, 1996; Teresa Amabile, 1996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예술인복지법」 상의 문화예술인력, 창조산업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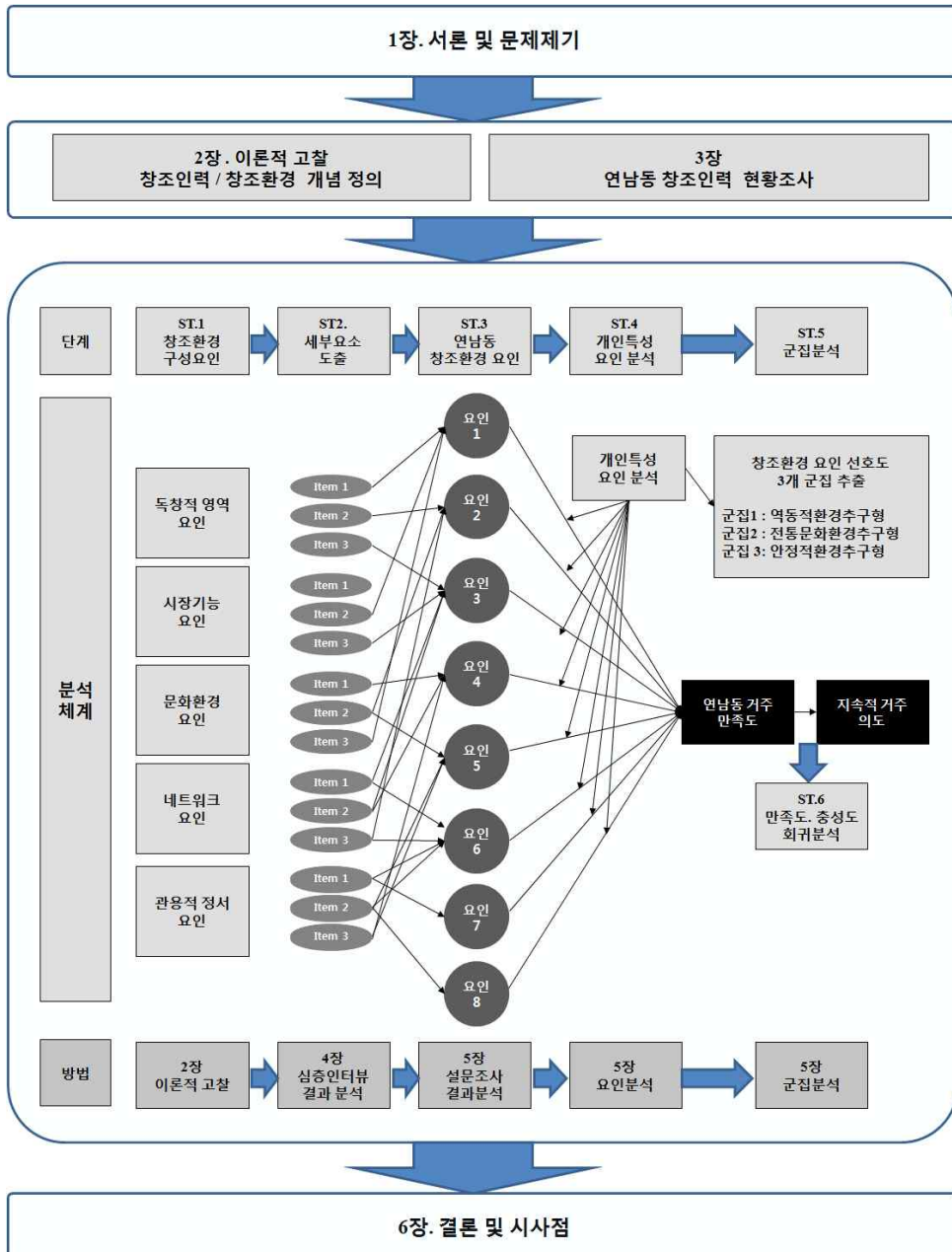
창조환경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창조산업이나 문화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자원이 밀집한 문화특화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 창조도시 등의 거시적인 규모의 지역이나 환경에 관한 창조계층 입지패턴에 관한 연구 등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차별점은 자연발생적으로 창조인력이 밀집한 지역의 창조환경 특성 및 요인에 관한 분석을 실제 대상지역의 창조인력들이 선호하는 입지 특성과 요인을 기준으로 살펴 보았다는 점이다. 또한 대상지역의 창조인력의 군집화를 통한 세분화된 유형별 선호요인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표 2-13〉 창조환경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방법	연구내용
김홍주 박기풍 (2010. 2)	도시의 창조적 계급 기술관용의 공간적 집중과 클러스터	-국내외 문헌검토 -공간적 자기상관성 측정방 법인 moran's I 공간적 클 러스터 분석	-도시성장과 3T관련 연구 -3T 지표설정 -3T의 공간적 집중과 클러스터 분석
김은란 정소양 (2011)	창조계층입지패턴 분석 연구	-국내외 문헌검토 -설문조사 -계량 및 통계기법 -외국사례분석 -관련전문가 의견 수렴	-창조계층의 유형별 분류 -창조계층 유형별 집적지 및 입지패턴 분석 -창조계층 경제적 효과분석
김광선 (2007)	문화콘텐츠산업의 생산조직과 산업군 집 특성에 관한 연 구	-국내외 문헌검토 -사업체기초통계 -최근인지수, kernel 밀도 도작성, STA 탐색	-문화콘텐츠산업의 군집특성 -문화콘텐츠산업의 생산조직 특성 -서울문화콘텐츠산업집적지 분포
라도삼 (2010)	문화특화지역 형성 요인 및 실태에 관 한 연구	-국내외 문헌검토 -사례분석 -관련전문가 의견 수렴 -현장조사	-문화특화지역 개념과 형성전략 -서울 문화특화지역 현황 -서울 문화특화지역 공간적 특성
정병순 (2012)	서울경제 일자리 창 출의 동력, 창조산 업의 전략적 육성	-사례 및 현황 -사업체 통계조사 -LISA, LQ 분석	-창조경제의 개념 및 창조산업 -창조산업 집적지 식별 및 분포 현황 -서울 창조산업 시계열 변화 -창조경제 육성 정책
박삼옥 외 (2012)	경기도 미래형 혁신 클러스터 구축방향 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일반현황 조사	-경기 산업공간구조와 산업집적지 현황 -현황분석: 판교와 광교를 중심으로 -경기도 미래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박세훈, 김은란, 박경현, 정소양 (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 화클러스터 활용방 안 연구	-국내외 문헌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사례조사 -설문조사	-국내 문화클러스터의 현황: 유형과 분포특 성 -문화클러스터 사회네트워크 분석
본연구 (2013)	연남동 창조환경의 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창조인력군집분석	-국내외 문헌검토 -현장조사/현황조사 -전문가 사전 인터뷰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연남동 창조인력 밀집지역의 현황 및 특성 요인 분석 -연남동 창조인력의 군집분석을 통한 군집 별 선호환경 요인분석

2-3. 분석의 틀

〈그림 2-3〉 연구 분석 모델



ST3. 분석방법

-각 장소적 특징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선호)를 기준으로 요인 분석 실시
새로운 요인 그룹 도출

-새로 도출된 요인들이 연남동 거주 만족도/지속적 거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개인 특성이 각 요인들과 거주 만족도/지속적 거주 의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

ST5. 분석방법

-새로 도출된 요인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

-각 군집 별 중요 요인, 개인 특성, 연남동에 대한 태도 등을 비교 분석

제3장 연남동 창조인력 유입배경 및 현황

제1절. 연남동 일반 현황

1, 연남동 역사적 변천 및 토지이용 변화

1-1. 역사적 변천

연남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북서쪽에 위치한 법정동이자 행정동이며 마포지역에서는 가장 역사가 짧은 동이다. 『호구총수』에는 연희방(延禧坊)의 연희궁계가 서술되어 있다.⁵⁶⁾ 연남동(延南洞) 동명은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갈려나와 연희동 남쪽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연남동은 조선 전기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하였다. 고종 4년(1867)에 편찬된 《육전조례》에는 한성부 북부 연희방(성외) 연희궁계로 하였다. 갑오개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한성부 북서(北署) 연희방(성외) 정자동계 정자동, 염동1계 염동, 음월리계 음월리, 세교2계 궁동으로 칭하였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연희면 정자동·염동·궁동·음월리가 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연희리가 되었다. 193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와 경기도고시 제32호로 경성부 연희정이 되었다. 1943년 6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에 의해 구제도(區制度)를 실시하면서 서대문구 연희정이 되었다.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서울시헌장과 미군정법령 제106호에 의해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서대문구 연희동이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8호에 의해 서대문구 성산동과 연희동 일부가 마포구로 편입되었으며,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와 서울특별시조례 제979호에 의해 연희동 일부를 마

56)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2008. 12, 국토지리정보원

포구로 편입하여 연남동을 신설하였다. 197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1185호에 의해 동교동 일부가 연남동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⁵⁷⁾

면적 0.65㎢, 인구 1만 9763명(2008)이며 동쪽의 동교동·창전동, 서쪽의 성산동, 남쪽의 서교동, 북쪽의 서대문구 연희동과 접한다. 동을 이루는 지역은, 처음에는 연희동 지역 중 남서쪽 경계로부터 경의선까지와 서대문구 수색동에 이르는 서부지역이었는데, 성산대로 개통으로 연희동 남측이 이 동으로 편입되었고, 1977년에는 동교동 일부도 포함되었다. 1970년대부터 정비된 지역이 많아 고급 주택도 많이 있다.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주택과 주택 사이의 도로도 넓어 서울 시내에서도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다.

〈그림 3-1〉 연남동 토지이용 변천



경성도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도(1975)

토지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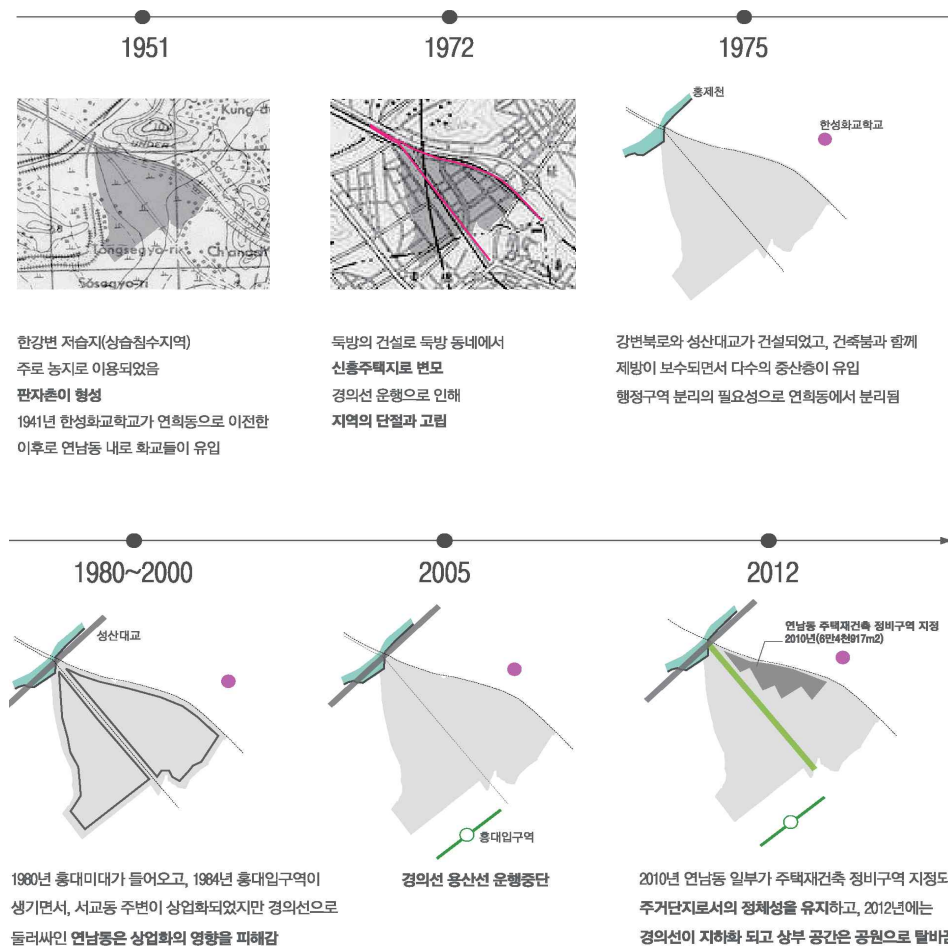
1-2. 대상지 분석 및 토지이용 변화

1970년대 이전 연남동은 한강변 저습지로서 상습 침수지역이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토지이용은 주로 농지로 제한되었으며, 판자촌이 산재된 형태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1966년, 지금의 경의선 폐선부지 왼쪽 지역이 성산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 1970년 준공되면서 신흥 주택지로 변모 하였다. 1975년 강변북로와 성산대교가 건설되고, 제방이 보수되면서 다수의 중산층이

57) 서울지명사전, 2009. 2. 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유입되었다. 지금의 경의선 폐선부지 오른쪽 지역은 원래 연희동 소속이었으나 1975년 연남동으로 행정구역 변화되었다. 1977년에는 동교동의 일부가 연남동에 편입되었다. 내부 순환로와 성산로 등 주간선도로가 입지해 있으며 지하철 2호선·공항철도 홍대입구역과 경의선 가좌역부근이다.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폐선부지는 현재 공원화 공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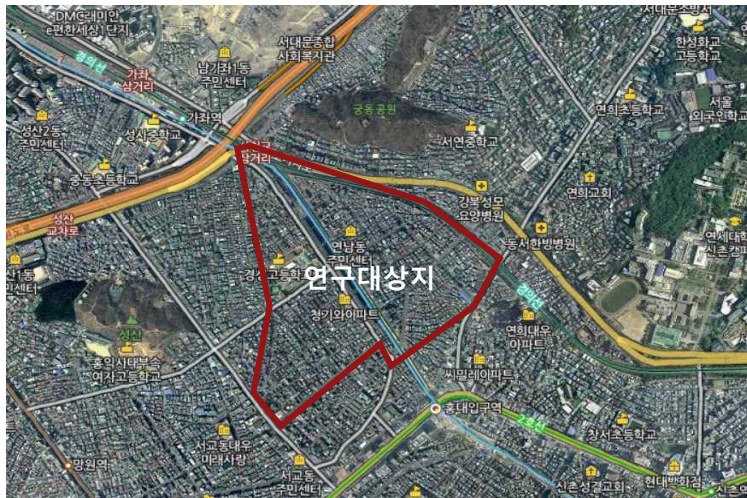
〈그림 3-2〉 연남동 변화과정



출처: 서울대 환경대학원, 커뮤니티 폐선부지와 만나다, 2011

연남동은 관내에 경성고등학교, 경성중학교, 홍익여자디자인문화고등학교 등 학교가 있으며 경의선 공원 변으로 판상형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맞은편에 주민센터와 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다. 동교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대부분 격자형 가로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비정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김신성, 2012) 연희로와 평행하는 북개천을 따라 경의선 철로 아래를 통과하는 가로변에 식당들이 밀집해 있다.

〈그림 3-3〉 연구대상지역 범위



2. 거주민 현황 및 특성

2-1. 거주민 일반 현황 및 특성

마포구는 거주 가구의 22.8%가 현재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10년 결과(22.2%)와 유사한 수준이며, 권역별로는 '4권역(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3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마포구 사회조사, 2011) 대상지인 마포구 연남동은 2013년 현재 9,161세대(19,170명)이 거주하며 0.64㎢ 면적에 중류층과 젊은 세대가 다

수 거주하는 공원과 도시계획이 비교적 잘 정비된 구역이다. (김신성, 2013)

연남동은 70년대 중반 중산층 대상의 단독주택 분양 지역이었으며 당시에 이주한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연남동의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다. 70년대 이후부터 거주해 온 이들은 전면철거 방식의 아파트 건립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반대하는 등, 지금의 조용한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수하는 이들이며 지역 공동체 의식 또한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경의선 신촌선은 연남동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지나가고 경의선 용산선은 연남동의 세로축을 가로지러 연남동 지역 커뮤니티는 외부에 폐쇄적이고 내부적으로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5년에 경의선 용산선 운행이 중단되고 공원화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변지역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2008년부터 홍대 앞에서 활동 하던 예술인들이 연남동으로 이전하고 2010년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이 개통하면서 예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인력이 유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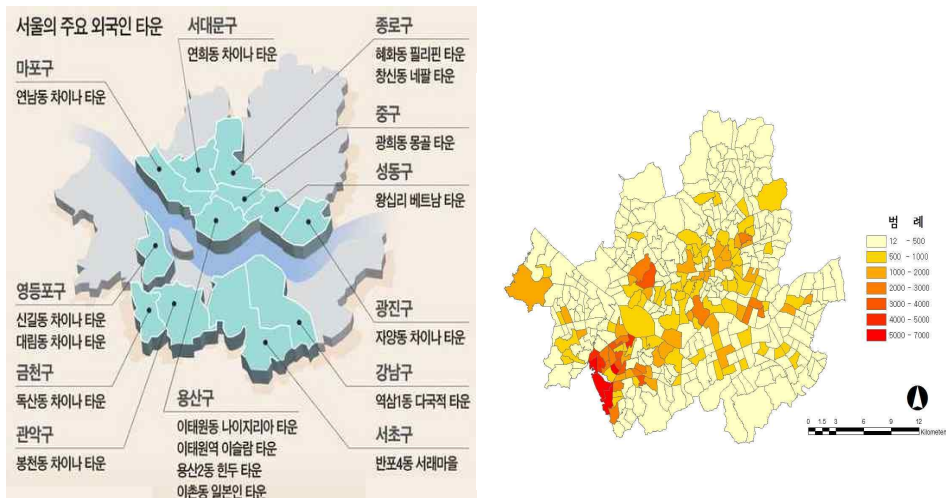
2-2. 화교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서울에 진군한 청군을 따라 들어온 중국인들은 명동, 소공동, 관수동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했다. 1960년대까지 번성한 3대 차이나타운은 70년대 접어들면서 급격한 쇠퇴를 맞게 되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떠나고 남겨진 중국인들이 연남동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을 이루게 되었다. 의류무역업에 종사하는 화교무역회사들이 값싼 지가와 김포공항이 인접해 있는 연남동에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음식점과 화교마을이 형성되었다. 또한 1928년에 개교한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가 명동 중국대사관에서 1969년 연희동 89번지로 이전하였고 화교사회에서 커뮤니티의 중심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연남동으로 까지 리틀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다. (한기수, 2011)

현재 연남동에는 주민의 1/5인 4500여명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을 위해 동사무소의 기능을 하도록 만든 특별행정기관인 글로벌빌리지센터1호가 연남센터이다. 서울은 세계의 대규모 도시 중에서도 공

식적인 '차이나타운'이 없는 곳이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 시기에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한 탓에 화교들의 자발적인 상권 형성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61년 시행된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 조치와 1962년 2차 통화개혁으로 화교 상권은 큰 타격을 받았고, 1940년대 8만 명이 넘던 화교 인구는 2002년 기준 2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1998년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전면 허용되고 2002년 영주자격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 등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도 완화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대만 출신의 구(舊) 화교들이 2009년 기준으로 2만4000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신 화교가 약 18만 명에 육박하면서 화교 사회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그림 3-4〉 서울시 주요 외국인 타운 및 외국인 거주 현황 (서울시, 2012)



연남동은 1970년대 화교들의 주 정착지였던 중구 소공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흩어진 화교 일부가 한성 화교중고등학교가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주된 경제활동인 중국음식점들이 입소문을 타면

서 화교 상권이 부분적으로 형성됐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그동안 서대문구의 연희동과 마포구의 연남동은 꾸준히 차이나타운 조성계획이 검토되는 지역이다. 지난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당시에도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이 검토되었으나 주민들은 차이나타운 조성 계획이 나올 때마다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특화거리 조성 뿐 아니라 인근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7년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연희동을 제외하고 연남동 주민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조건으로 연남동과 동교동을 연계하는 차이나타운 조성계획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2009년 발표된 서울시 계획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아닌 2종일반 주거지역을 유지한 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⁵⁸⁾ 그러나 차이나타운 조성계획과 더불어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3-3. 게스트하우스의 증가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

게스트하우스는 연남동에서 용도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업종 중의 하나이며 현재 50여개의 게스트하우스가 연남동에서 운영 중이다. 이는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이 2010년 개통되고 홍대를 찾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이 2002년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연남동은 게스트하우스로 변용하기 쉬운 주택이 밀집하고 있으며 2011년에 도시형생활주택 정부지원이 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게스트하우스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배낭 여행객들, 중국과 일본 유학생들이 많다. 연남동에서 홍대, 명동, 이태원 등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주말이 되면 지방의 영어강사들이 홍대에서 놀기 위한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면서 게스트하우스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도 단순임대업과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경우로 양분된다.

58) 김봉규, 프레시안, 2010. 2. 28

3. 연남동 도시기반 여건 및 개발계획

도시 서민의 주거지인 불량주거지와 저층주거지가 경제성장과 도시의 급격한 팽창을 거치면서 전면 철거되고 아파트로 개발되면서 근래에는 60~80년대에 구획 정리된 저층주거지가 재건축, 재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0년에 단독,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저층주택지 거주민의 주거현황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저층주거지 실태조사 결과’⁵⁹⁾를 발표하였다. 현재 서울시 전체면적(605㎢) 중에서 223㎢가 주거지이며 그 중 약 55%가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으로 구성된 저층주거지로 세대수 기준으로는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개발 등의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층주거지 주거정비사업에서 마을단위 도시계획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해 왔다. 서울시의 최초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북촌한옥마을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서촌지역 등 한옥마을뿐 아니라 단독주택지, 다가구, 다세대 주택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 이후에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일명 살마지 사업이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 강북구 능안골, 성북구 선유골 등에서 이루어졌다. 살마지 사업은 이후 ‘서울휴먼타운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구로구 시흥동, 성북구 길음동 등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그리고 정비사업에서 배제된 존치지역 등으로 확산되었다. 지난 2011년 말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⁵⁹⁾에 따라 철거 재개발형 정비사업이 아닌 마을만들기 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된 이후 서울시는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이란 이름으로 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온수동 등지에서 마을만들기 실험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석, 2012. 11.)

59) 저층주거지 실태조사, 서울시, 2010. 4.

1-1. 연남동 휴먼타운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마포구 연남동 일대 239-1 지역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으로서 본래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전면철거 방식의 아파트 건립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반대하면서 해제된 지역이며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 모습을 띄고 있다. 이후 2010년 4월 서울시 휴먼타운⁶⁰⁾ 사업 추진 정책으로 인해 2010년 6월 서대문구 북가좌동과 더불어 1차 서울시 휴먼타운 시범지로 지정되었다.

〈표 3-1〉 서울시 1차 휴먼타운 시범지

위치	면적	용도지역	건축물	주변여건	후보지 상황
마포구 연남동	82,900㎡	2층 일반주거지역	604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 소규모 근생시설 • 저층주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도로양호 • 가로공원, 폐선부지 • 연남1구역과 결합개발 검토 • 노후도 : 51.7% • 도로율 : 18.3%
서대문구 북가좌동	43,560㎡	제2층 일반주거지역 제3층 일반주거지역	143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측불광천 입지 • 저층주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도로양호 • 불광천, 풍원시장 연계개발 검토 • 노후도 : 60.0% • 도로율 : 16.7%

서울시 휴먼타운은 양호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보존을 위해 전면철거 방식을 지양하고 휴먼타운 사업구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건물 리모델링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권, 대지 안의 공지 등을 완화해줌으로써 휴먼타운 취지에 맞게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한다, 특히, 도로의 사선제한으로 기형적으로 잘린 건축물을 양산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가로별 층수와 높이를 지정해주는 방식을 택하여 향후 불법증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그동안 불법소지가 많은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법적지원과 공공시설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지속가능한 휴먼타운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60)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은 보안·방법 및 편의시설이 갖춰지는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신개념 저층주거지. 2010. 4월 ‘서울휴먼타운(Seoul Human town)’ 발표

<그림 3-5> 휴먼타운 마스터플랜 (서울시, 2011)



<그림 3-6> 연남동 휴먼타운 및 재건축정비구역 (서울시, 2011)



그러나 서울시가 뉴타운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휴먼타운사업’은 2011년 11월 전면 중단되고 대신에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재생의 의미가 담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주거환경관리사업’⁶¹⁾은 기존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

61) 서울시는 추진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를 융자하여 주민스스로 주택개량을 통해 집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비용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마포구에는 연남동 휴먼타운이 해당된다.

이 아닌 저층주거지의 보전과 정비, 개량을 위해 공공이 도로, 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3년 9월 연남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정비⁶²⁾를 마침에 따라 연남동 239-1번지 일대(8만 2,900㎡, 1,325세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 시범사업 1호가 되었다.

1-2. 경의선공원화사업 계획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복선철도로 길이 518.5km이며 1906년 4월 3일 용산~신의주 간 철도가 완전 개통되었고 경부선과 함께 한반도의 주요 종관철도(縱貫鐵道)로서 수많은 지선이 연결되어 운수 교통량은 전국 철도 중에서 가장 많아 교통상 대동맥을 이루었다. 1906년 4월 3일 용산~신의주 간 철도가 완전 개통되었고, 같은 해 9월 1일 관리권이 군용철도에서 통감부 철도관리국으로 이관되었다. 1908년 4월 1일 부산~신의주 간 직통 급행열차인 융희호(隆熙號)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중·일 전쟁을 계기로 복선화가 진행되었다. 경부선과 함께 한반도의 주요 종관철도(縱貫鐵道)로서 수많은 지선이 연결되어 운수 교통량은 전국 철도 중에서 가장 많아 교통상 대동맥을 이루었다. 1945년 서울~개성 간 74.8km 구간으로 단축 운행되다가, 1951년 6월 12일 운영이 중단되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후 경의선 복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후, 2003년 6월 14일 연결식이 군사분계선(MDL)에서 열렸다. 2009년 서울역에서 문산까지 광역전철이 개통되었다.⁶³⁾

62) 정비의 결과로 구역의 대표가로인 길공원길은 전선등 지중화, CCTV 설치,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였고 마을관리사무소, 북카페, 어르신나눔터, 공동육아방 시설을 갖춘 주민커뮤니티센터가 문을 열었다. 구역 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등이 마련되었고 2013년 9월27일 ‘2013년 연남동 다시살다’라는 주제로 마을축제를 개최함

63)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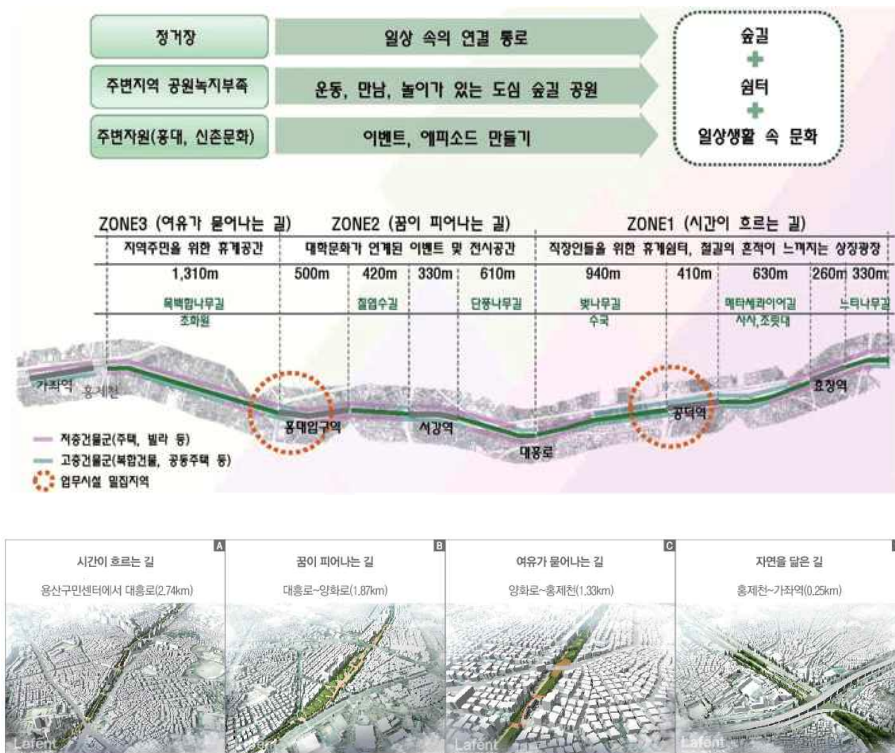
경의선·공항선의 지하화 추진경위는 1999년 10월9일 경의선(용산~가좌구간) 건설방안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되어 저심도 지하 4선, 기존 지상1선인 용산선은 공사 후 원상 복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서울시의 요구로 지상1선을 지하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의선숲길 공원조성사업은 2005년 경의선 지하화 사업에 따라 용산문화센터-마포구 가좌역(홍제천) 구간 6.3km의 지상부 폐철로를 선형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5년 말까지 전체 구간에 대한 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경의선 폐철로를 활용한 '경의선숲길 공원조성사업' 2단계 구간인 새창고개(백범교) 0.6km 구간과 '홍대입구역-홍제천'을 잇는 마포구 연남동 1.31km 구간은 201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다. 지상부 활용 가능한 전체구간의 길이는 약 7.5km이며 선로부지 폭원은 10~56m, 면적은 약 283,000㎡(85,600평)이다.

<그림 3-7> 경의선공원화 계획, 연남동 구간 (서울시, 2013)



서울시에 의하면 홍대문화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는 연남동 구간은 다양한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공원으로 조성되며, 지하철 유출수를 활용한 실개천을 만들고 공원 외곽에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연계를 통해 한강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주민·예술가·마을공동체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도 계획 중이다.

〈그림 3-8〉 경의선 공원화 계획 구간 (연남동 제3구간, 서울시)



제2절 연남동 창조인력 현황 및 특성

1. 연남동 창조인력 유입 배경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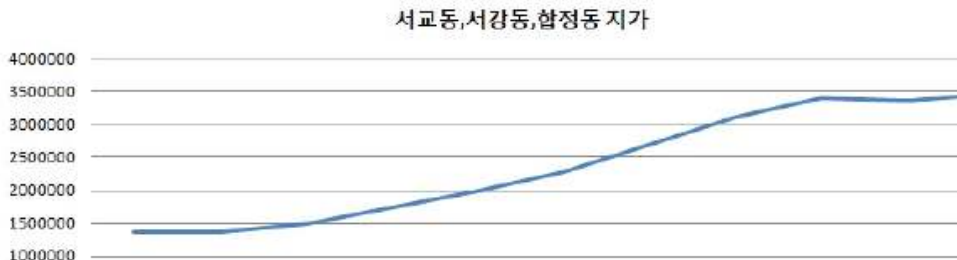
1-1. 연남동 창조인력 유입시기

- 1) 홍대 앞 임대료 상승에 따른 이전: 2008년 이후

64) 연남동 주민, 부동산, 기획자, 기자 인터뷰, 신문기사 등.

연남동에 창조인력과 창조인력 관련업종이 유입된 시기는 2008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남동 일대 창조인력관련 업종으로의 용도변화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시간적 범위의 설정은 홍대 앞의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홍대 앞 서교동, 서강동, 합정동 일대의 공시지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어 6년 만에 약 2.3배의 지가상승을 나타내게 되었다. (진창중, 2012) 이 시기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홍대 앞 상권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여 홍대입구역과 양화로 변으로 사업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를 말하여 지속적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2008년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게 된다. 홍대 앞의 주택지는 2011년에 3.3㎡당 평균 3000만원 2012년에 4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홍대 앞의 임대료가 상승하였고 2008년을 기점으로 예술인들이 연남동⁶⁵⁾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림 3-9〉 홍대 앞 공시지가 변화



출처: 진창중 (2012)

2) 연남동 수익성부동산 전환과 용도변경 : 2011년 이후

① 수익성부동산 전환

65) 연남동 일대 단독주택 매입가는 2010년까지만 해도 3.3㎡당 평균 2,000만원이었으나 2013년 현재 3.3㎡당 2,300만원이며 홍대입구역과 가까운 곳은 3.3㎡당 3,000만원이다. 2013년 현재 연남동 일대 1층 상가(전용면적 33㎡ 기준)의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70만~100만원 수준이다. 연남동 내에서도 홍대입구역과 가까운 지역은 월 임대료가 100만~150만원 정도이지만 홍대 앞은 300만~500만원을 넘는다. 더욱이 홍대의 주요 거리는 평균 1억원 가량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

본격적으로 창조인력이 연남동으로의 유입이 시작된 것은 도시형생활주택 정부지원이 강화된 2011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2008년을 전후로 신촌⁶⁶⁾의 상권이 홍대 앞으로 넘어오면서 홍대 앞은 4~5년 전부터 주택지가 주거용부동산에서 수익성 부동산으로 용도의 변경이 일어났다. 2011년에는 도시형생활주택⁶⁷⁾의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원룸을 지을 경우에는 연2%대로 금리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책이 추진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물량은 2011년 6만9605가구로, 2010년 2만529가구보다 무려 240%나 급증했다. 2012년 5.10 대책에서는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30~50㎡ 원룸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현행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수익성 부동산의 물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연남동에도 수익성 부동산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2년에만 코오롱 아파트 주변에 30~40십 채의 원룸·투룸 건물이 지어지면서 급격하게 용도가 바뀌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의 침체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이 지하 1~2층이나 차고 등을 개조해서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연남동의 변화는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 레스토랑, 갤러리, 예술가공방 등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새로운 경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시설들은 거의 주거시설이거나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세탁소, 가게와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변화된 것이다

② 용도변경: 저층주거지 지역특성

-
- 66) 수익성 부동산으로의 용도 변경은 신촌에서 홍대, 홍대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촌의 상권이 홍대로 넘어오면서 신촌은 현재 700여개의 건물이 경매에 나와 있다.
- 67)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민의 생활패턴의 변화로 1~2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2009. 5)한 주택유형. 정부는 이들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켰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며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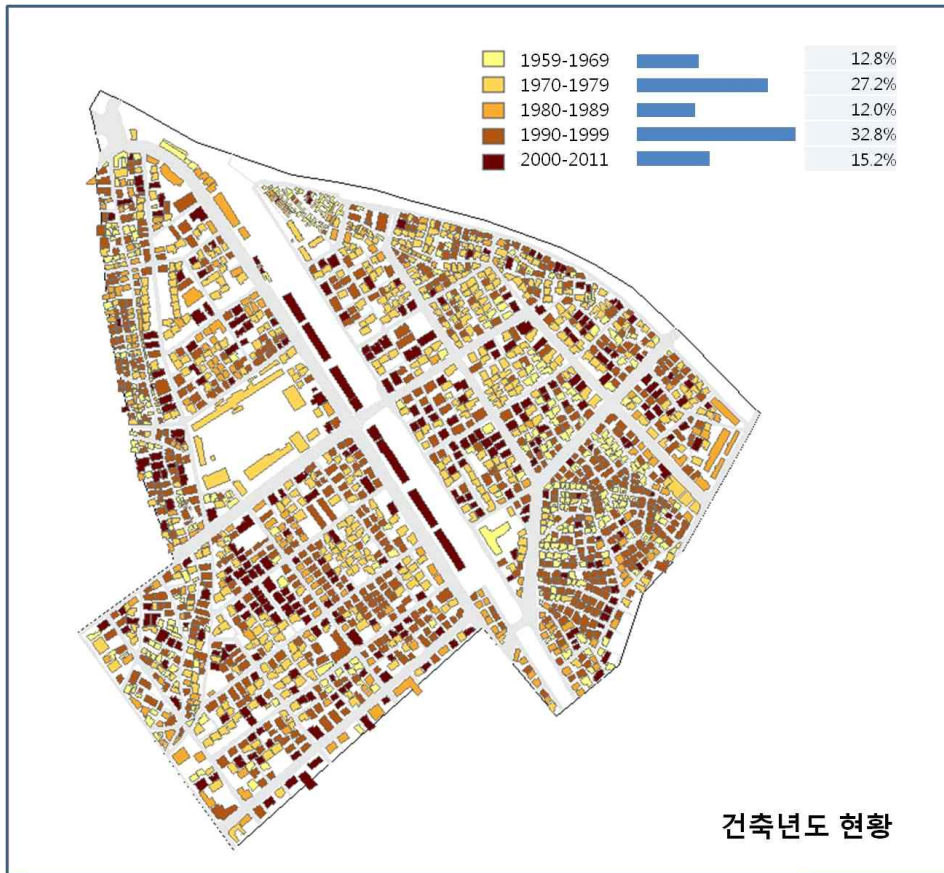
연남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된 다양한 주거유형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1970년대의 토지구획사업으로 개발된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부 주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연남동 주택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남향배치의 단독주택 위주로 형성되었으며 1980년대 용적을 최대화하는 경향으로 담장이 없어지거나 낮아졌다. 1990년대에는 다가구 주택이 합법화되면서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성행하였고 2000년대 필로티규정 변화로 필로티 다세대 주택이 활성화 되었고 그로 인해 지하층과 1층의 주거가 사라지고 조적식 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변화되었다. (김미경, 배웅규, 2011) 현존하는 저층주거지의 대부분은 60년대~80년대에 걸쳐 도시서민의 주거지인 불량주거지와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⁶⁸⁾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주로 단독주택지의 필지 내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변화하면서 형성 되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다양한 창조인력 관련업종의 유입을 가속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가. 건축년도 현황

연남동에 1960년대부터 지어진 건축물은 12.8%로 동진시장 주변지역에 대부분 밀집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 1970년대 초반에 지어진 단독주택, 단독형 다가구주택과 1980년대 지어진 건물이 각각, 27.2%, 12.0%이며 1985년 다가구주택 건축규제완화로 인해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설이 활발했던 1990년대 지어진 건물이 32.8%로 경성중고등학교 지역에서 서교동 경계에 이르는 지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2000년대 지어진 건물은 15.2%이다. 2013년 정비를 마친 연남동 휴먼타운 지역의 건물유형은 단독주택이 45.7%, 다세대·다가구주택이 35.7%로 대부분이다.

68)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환지방식을 통한 토지의 계획적 택지화 사업으로써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정한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그 지역안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지형 및 토지형태를 정리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대지로서의 효용 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매일경제, 서울시도시계획용어사전)

〈그림 3-10〉 연남동 건축년도 현황 (2011년 기준)



나. 건물층수 현황

연남동 건축물의 층수 현황은 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나 업무시설, 근린 생활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1~2층 규모를 이루고 있다. 1~2층이 63.2%이며 3~5층은 34.8%를 구성하여 대부분의 건물이 5층 미만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15층은 없다.

〈그림 3-11〉 연남동 건축물 층수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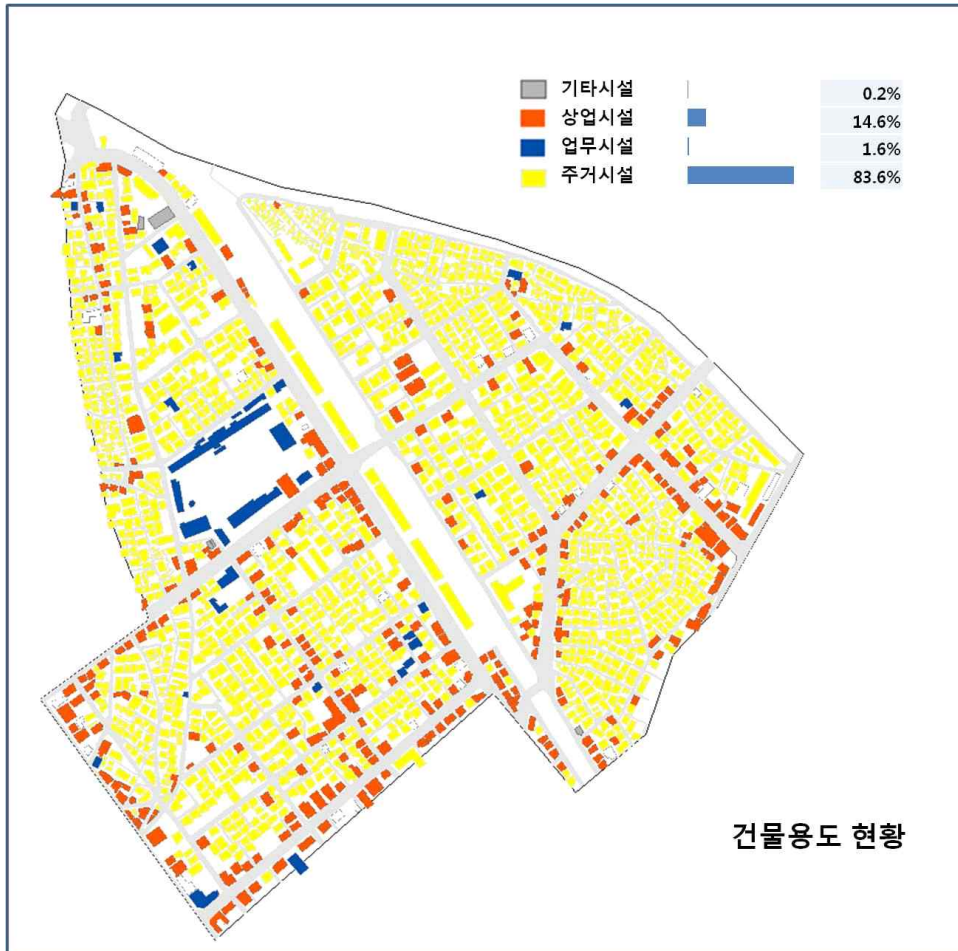


다. 건물용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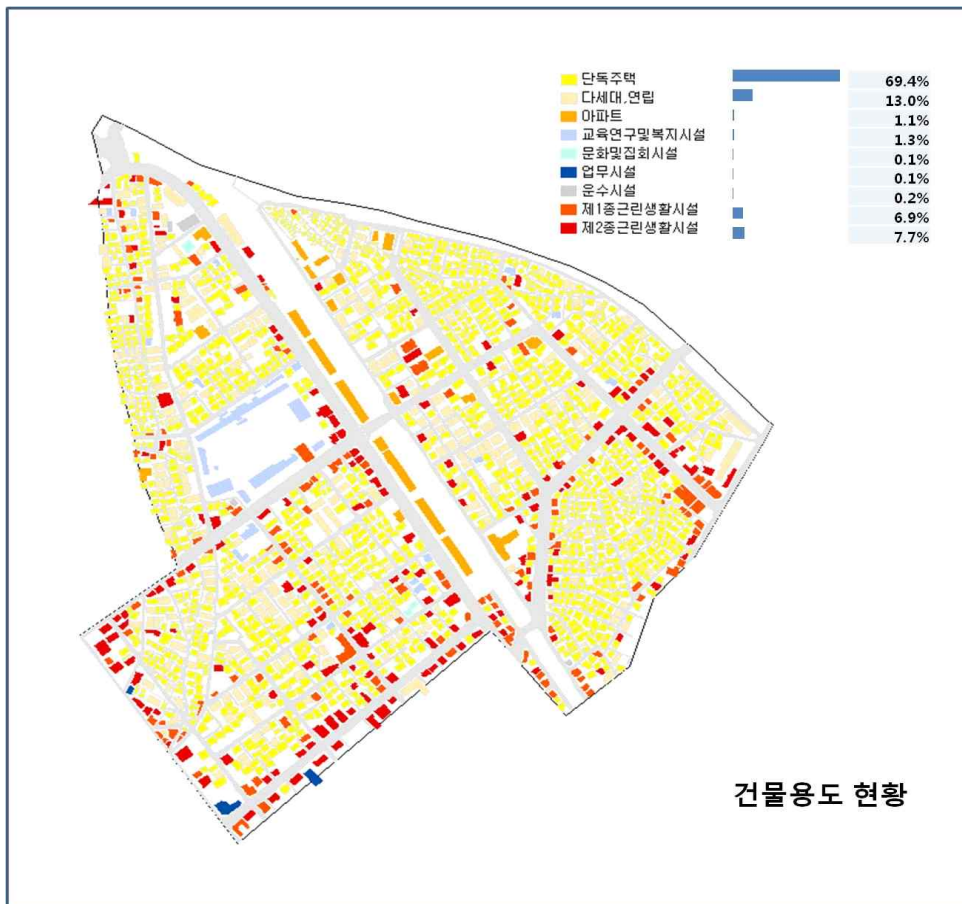
83.6%가 주거시설인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이 69.4%를 이루며 다세대 연립이 13.0%이다. 비교적 위계가 높은 도로변으로 업무시설(1.6%)과 상업 시설(14.8%)이 분포하고, 내부 국지도로에서도 비교적 도로 폭이 넓은 곳에서 근린생활가구가 형성되어 있다. 제1종 근린시설은 6.9%이며 제2종 근린시설은 7.7%로서 대로변을 따라 분포해 있다. 국지도로로 이루어진 주택가 곳곳에 소규모 사무실이 입점한 경우가 많으며 주거용도 건물의 저층부를 근린 생활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곳도 많다. 창조인력 관련업종으로의 용도변화는 이

러한 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2〉 연남동 건축물 용도별 구분 (2011년 기준)



〈그림 3-13〉 연남동 건축물 용도시설별 구분 (2011년 기준)



1-2. 연남동 창조인력 유입 배경

1) 지리적 요인과 교통의 편리함

마포구에 위치한 연남동은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용이하고 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연남동은 주변지역에 비해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인접지역에 홍대, 여의도, 상암동, 그리고 파주 출판문화단지와의 접근이 용이한 특성이 있다. 인디문화, 시각예술, 공예 및 디자인, 음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 출판 및 서적, 방송, 영상, 요리 등 다양한 장르

의 창조인력이 상존한다. 1984년에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개통 된 이후 변화가 없었으나 최근 수년간 연남동, 연희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2010년 신공항철도 홍대입구역이 개설되면서 빠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남동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면서 홍대 앞 문화의 배후지였지만 최근에는 중국 저가패키지 단체관광객들을 수용하는 러브호텔의 대체숙박시설로서 게스트하우스와 면세업종⁶⁹⁾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주거생활을 훼손하는 부작용도 일으키고 있지만 관광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게스트하우스의 70평 이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연남동 일대에는 출판사⁷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연남동에 출판사가 몰리는 이유는 조용한 주거지의 단독주택을 출판사무실로 개조해서 입주하는 출판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마포구에 출판사들이 많아진 것은 홍대인근에 출판과 관련한 디자인, 출력소 등이 많이 있었고, 파주 출판단지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마포구 일대에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출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당시엔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망원동을 중심으로 유입이 시작되면서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출판사들이 연남동으로 몰리기 시작했는데 출판업의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성과 접근성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공항철도역이 생기면서 교통의 편리성이나 접근성도 많이 좋아졌다.

“.. 그리고 저희 휴머니스트는 앞에서 말한 조건들에 더해서 매년 지방에서 올라와 저희 출판사를 방문하는 1,000명 정도의 국내 저자들이 서울에서의 활동성과 접근성이 좋아야하기 때문에 이곳 연남동을 선택하게 된 것이기도

69) 그러나 최근 한서울 마포·서대문구 일대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매장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을 상대로 초저가 패키지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여유법'(관광법)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이곳을 관광코스에 넣어 쇼핑수수료를 챙겨온 한국 여행사들이 발길을 뚝 끊었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B화장품 판매점 관계자는 "매년 10월초 국경절이면 매장이 발디딜 틈 없이 중국 관광객들로 붐볐다"며 "그러나 여유법 시행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은 사실상 발길을 끊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2013. 10. 24)

70) 휴머니스트 김학원 대표의 인터뷰에 의하면 연남동에 100여 곳의 출판사가 있다고 하나 본 연구에 서는 주소지가 확인된 출판사는 60여 곳이었다.

해요. 저희는 90%가 국내저자 출판 업체거든요.”

김학원 (휴머니스트 대표) , 2013, 10.

2) 홍대 문화의 분화 및 확산⁷¹⁾

① 홍대문화의 특징

홍대 앞은 1957년 ‘서교택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되면서 현재의 도시구조를 갖추면서 중산층의 거주지역이 되었다. 홍대 앞이 지금의 문화집적지로 형성되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55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홍익대학교이다. 1980년대 이전에는 주로 미술작가들의 작업실과 미술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이후 90년대 초반에 미술적 색채가 짙은 일명 피카소거리와 카페골목이 형성되었다. 홍대지역의 장소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90년대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4년 라이브클럽 ‘드럭’이 문을 열었고, 비슷한 시기를 전후로 ‘댄스클럽’들도 건물 지하에서 생성되기 시작했다.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홍대지역은 미술, 음악, 디자인, 광고, 영화, 방송, 사진, 출판, 만화, 패션, 인터넷 콘텐츠와 관련 있는 중소규모 전문 직종들이 집적되면서 문화생태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토양위에서 2000년대 들어 젊은 문화가 새롭게 실험, 창출, 소비, 변화되면서 서울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다양성의 보고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1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클럽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활발한 클럽 문화의 창출지로 자리매김한 홍대 앞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홍대 앞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을 중심으로 신촌방향의 동교동, 창전동, 상수동을 포괄하는 수준이었다. 그중에서도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홍익대 정문에 이르는 큰길까지 약 200미터 남짓한 차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펼쳐진 지역일대(상수동과 서교동 일대)를 중심축으로

71) 공간문화센터 최정환 대표, 스트리트H 정지연 편집장, 홍대앞 프리마켓 김영등 대표 인터뷰 정리

삼았다. 홍대 앞은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그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독특한 거리경관과 분위기를 빚어내면서 지역 내 상업의 업태를 타 지역과 차별화되도록 만들었다. 자유분방한 실험성과 다양성, 국제문화교류, 문화의 융합 및 복합 등 새로운 문화예술의 접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촌일대의 외국유학생, 외국인강사,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클럽문화는 인적 유대, 교류를 확대하는 매개가 되었다. 문화예술적인 취향과 스타일에서 동질성을 찾는 사람들이 비공식적 사교활동과 긴밀하게 맞물리는 나이트컬처,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삼아 그들만의 독특한 공간문화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홍대문화는 장르가 아닌 ‘장소’를 기반으로 재생산되는 문화현상, 문화코드를 의미하며 주류문화와의 관계에서 대안적, 실험적, 잉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최정환, 2011)

② 홍대 문화의 확산

홍대 앞은 홍익대 미술대의 존재로 인해 수많은 미술, 디자인작가들이 종횡으로 엮여지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공간, 업종, 가게, 단체 및 소집단(crew), 사람들이 집적되어 있다. 홍익대 미술대라는 주류문화의 발신지 앞마당에서 주류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서브컬처(sub-culture)가 장르와 공간들의 창조적 파괴와 재구성을 하면서 스스로 진화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홍대문화에 대한 문화생태적인 특성이다. 장외에서 야간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와 독특한 소셜라이프를 만들어낸 기반이 클럽문화이다. DJ의 일렉트로닉음악과 리이브음악을 매개로 동질의 문화취향을 만들어 내고 있는 클럽에 대한 이해 없이는 홍대 앞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속성에 힘입어 홍대문화는 ‘홍대 앞’이라는 장소기반의 인디문화와 언더그라운드문화로 스스로의 가치와 정체성을 만들어 왔다. 따라서 홍대문화가 장소적 기반을 잃는다면 그 정체성이 사라지고 해체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형 술집과 클럽, 유명 패션 브랜드 매장들과 프렌차이즈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상업화가 심화되었다. 인사동,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부암동, 효자동 등도 홍대와 같은 수순을 겪으며 급격히 상업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본이 몰리면서 원주민이 떠나게 되지만 스스로를 ‘홍대피플’이라 부르는 창조인력과 실험적인 예술인들은 자본에 밀려도 홍대 지역을 떠나지 않고 홍대 주변을 서성이며 자신들의 문화를 증식시키고 확산시키고 있다.

1-3. 소결

이렇게 연남동에 창조인력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홍대 앞 배후지로서의 성격, 경의선 폐선부지와 신공항철도 홍대입구역 개설, 전통적인 주거지역이지만 중소규모의 전문 직종(출판 등)밀집 등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연남동의 창조환경이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동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 연남동의 물리적 스케일 또한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연희동, 연남동, 강남예식장 뒤편 길, 합정동까지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지역들의 연계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연남동 외곽의 주요가로와 경의선폐선부지 주변을 중심으로 건물의 용도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연남동을 둘러싼 개발이 외곽에서 내부로 함몰되는 모양새를 띄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연남동 창조인력 유입배경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으며 향후 연남동의 변화 흐름을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남동은 인근에 마포, 상암, 여의도, 파주출판단지 등 창조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상수동, 합정동, 창천동 등 이렇게 홍대 앞의 배후지역 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대 앞 부동산 거품이 과도하고 상당한 비율의 소자본 상점 등이 파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남동의 지가는 이들을 수용하기에 적절한 조건이 되었다. 연남동은 현재 실수요를 중심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남동 내부 중심가라고 필히 변화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연남동은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유흥산업이

철저하게 규제되고 주거형태도 저층 고밀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업무, 상업이 한 공간에 혼재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마을 같은 분위기와 더불어 젊은 층의 24시간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소자본에 의한 공간 재구성이 가능한 구조로서 용도변경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셋째,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면서 홍대 앞 문화의 배후지였지만 화교문화, 세계 각국의 젊은 배낭여행객들이 숙박하는 게스트하우스문화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고 젊은 층의 유입이 지속화되면서 연남동의 고유한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접점을 찾고 있다.

넷째, 많은 수의 출판사가 이미 자리 잡고 있고 디자인사무실 등 중소 오피스공간의 밀집지역으로써 홍대 앞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와 전문 직종들이 많기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소셜라이프와 카페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창조인력 집적지역은 창조적인 환경을 형성해 내고 궁극적으로 창조환경으로 발전하게 된다. 초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지만 창조환경의 특성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갖춘 성장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문화적인 창조성과 생산성을 갖추지 못한 채 소비 공간과 자본의 유입은 이내 급속한 상업화로 이어져 지역의 창조성과 실험성은 사라진다. ‘자생적인 문화생태계’를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의 단계를 지나 지역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환경과 창의성을 발현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뉴욕의 경우에도 소호에서 밀린 예술가들이 첼시나 미트패킹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현재 첼시에는 300개가 넘는 갤러리가 자리를 잡았고 예술가들은 다시 윌리엄스버그, 덤보, 퀸즈 등 주변지역으로 분산되거나 확산하고 있다. 뉴욕은 두터운 예술시장과 창조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예술생태계가 파괴되기보다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진화한다.

연남동의 창조인력의 유입은 홍대 앞 문화의 지리적 이전과 진화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연남동만의 고유한 창조환경을 형성하고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연남동에 유입된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환경요인을 일반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창조인력 내에서도 선호요인이 다를 수 있다. 더구나 연남동을 홍대 앞을 대체하는 지역으로 보기보다는 연희동, 망원동, 성산동 등 관계 속에서 타 지역과는 구별되는 연남동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 연남동 창조인력 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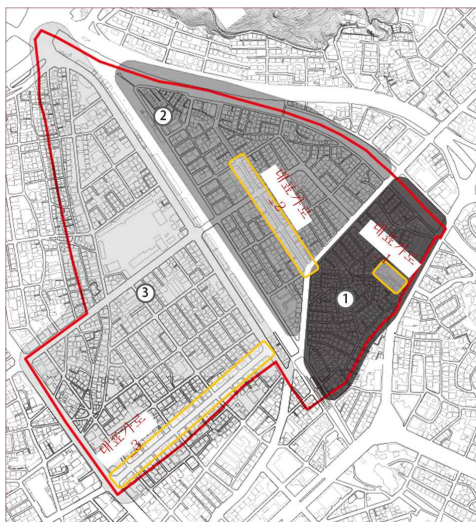
2-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본 장에서는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남동에 유입되고 있는 창조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남동 창조인력의 분포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차적으로 연남동에 입주한 창조인력 관련업종 현황과 용도변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조인력 관련업종과 예술가 개인 작업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가시적으로 드러난 창조인력 관련 매장을 현장관찰을 통해 살펴보고 선행연구, 현지답사 및 심층인터뷰 자료, 다음로드뷰, 언론 매체 및 미디어자료, 출판자료 등을 통해 추가로 종합하였다. 그 외에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술가 주거지와 개인 작업실은 마포구 예술인현황자료를 기초로 추가적인 탐색과 추적조사를 병행하여 주소지가 파악된 경우에 한해 조사하였다.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은 예술가 개인 작업실은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조사대상은 주거지 또는 개인 작업실이 있는 예술가, 창조인력 관련업종 및 공간으로 한정하였으며 공급(창작)-유통(매개)-소비 공간을 모두 포함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창조인력 관련업종 시설을 예술가 개인작업실(주거포함), 문화공간, 공방, 카페, 디자인사무실, 출판사, 음식점, 주점, 커뮤니티시설 등 9개로 구분하여 GIS 데이터로 정리하였다. 창조인력 관련업종의 시

설이 입주한 건축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1층 용도를 기준으로 개별 매장의 점포주 인터뷰와 인근 부동산 및 주민 인터뷰, 다음 로드뷰 서비스를 통해 현재 매장을 오픈하기 직전의 용도와 2008년 이전의 용도를 일일이 파악하였다. 2008년 이전의 용도는 주거와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연남동 창조인력 분포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특성이 다른 3개 지역을 ①동진시장 구역 ②휴먼타운 구역 ③경성고등학교 구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성고등학교 구역은 경성고등학교 위쪽은 북쪽으로 아래쪽은 남쪽으로 구분하였다. 각 구역의 대표가로는 창조인력 관련업종의 밀집도가 가장 높고 상징성이 있는 가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2. 연남동 문화예술 창조인력 현황 및 분포

1) 현황

연남동 창조인력 관련업종으로는 커피전문점 및 카페 58개, 레스토랑 16개, 주점11개, 소자본상점 및 사무실 10여개, 미술작업실 18개, 음악 작업실 및 스튜디오 8개소, 공방 16개, 디자인사무실 19개, 출판사⁷²⁾ 60여개, 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 7개 등 총 260여개가 파악되었다. 창조인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2010년 이후 조성된 게스트하우스 30개소 등을 포함하면 아래

72) 휴머니스트 대표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연남동에는 100여개의 출판사가 있다고 함. 그러나 본 연구에서 파악된 주소지는 60여개임

〈표3-2〉에서 알 수 있듯이 창조인력 관련업종의 연남동으로의 이전은 2010년을 기점으로 2012에서 2013년에 이를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현재 연남동 소재 대부분의 소자본상점이 1~3인의 종사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략 연남동에서 활동을 하는 창조인력은 최소 5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2〉 연남동 창조인력 관련업종 및 소자본상점 이주년도 현황 (2013년 기준)

이주 및 개업년도	2008 이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미확 인	계
카페		1	1	5	15	15	18	3	58
레스토랑			1	1	3	5	6		16
주점(바)				1	1	3	8		13
소규모상점 및 사무실		2				1	7		10
작업실(미술, 공예)		6	1	1	1	1	4	2	16
공방		1			5	4	4	2	16
작업실(음악)		1				3		4	8
디자인사무실		1		3	1	3	6	5	19
출판사								60	60
커뮤니티/ 복합문화공간		1	1		2	2	2		8
소계	35	13	4	11	28	37	55	76	259
게스트하우스				2	10	8	9	1	30
합계									289

현재 주소지가 확인된 연남동 거주⁷³⁾ 문화예술인은 118명이며 주소지는 미확인되었으나 설문조사과정에서 거주가 확인된 예술가 30여명, 작업실이나 원룸에 세입자로 거주하거나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개인작업자를 포함하면 200여명 이상의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르는 회화나 사진 등의 미술, 밴드나 인디레이블의 음악, 출판 및 방송작가, 창작공방 중심의 공예, 건축과 디자인 분야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광고, 영화, 영상, 무용, 엔터테인먼트, 문화기획 등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다음은 주소

73) 거주예술인은 자택, 세입자, 작업실을 포함하여 연남동에 거주지를 두고 주소지가 파악된 경우이다. 그 외에 연남동 원룸에 세입자로 있거나 작업실을 두고 활동하지만 주소지가 불분명한 사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연남동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은 실제 조사된 인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가 확인된 118명을 대상으로 장르를 구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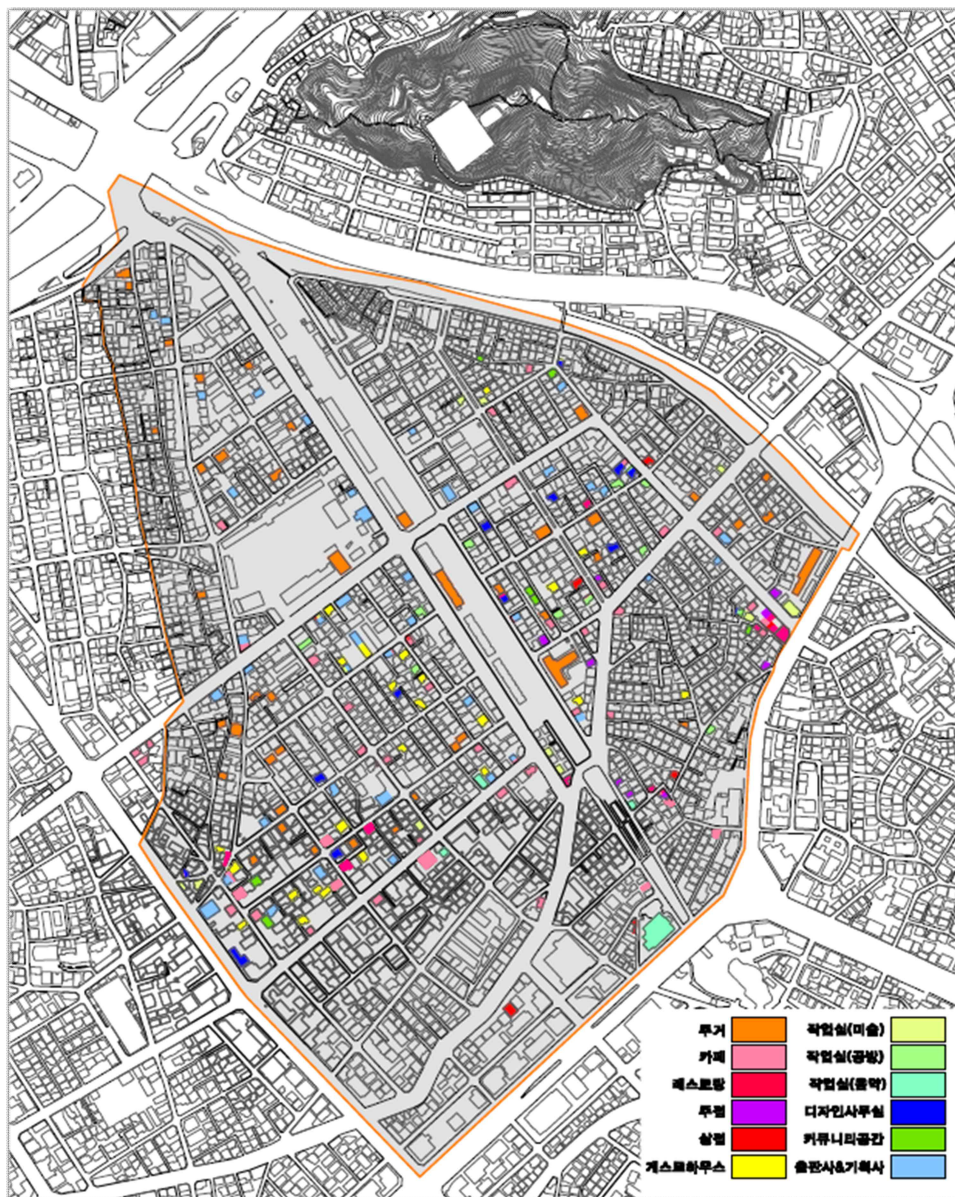
연남동 거주 예술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므로 총 인원의 집계보다는 장르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연남동 예술인의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한 바와 같이 미술, 출판, 영화/영상, 음악 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홍대미대의 영향을 받은 미술 분야와 홍대 앞 클럽을 대변하는 인디음악 분야의 예술가들이 홍대와 인접한 연남동에 거주하거나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출판과 관련한 작가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연남동을 비롯한 마포구에 출판사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 영상 방송관련 종사자들은 방송사와 영화사가 인근인 여의도, 상암 DMC 등에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유입된 경우로 보인다. 실제로 주소지는 알 수 없었으나 심층인터뷰와 설문 과정에서 연남동을 찾거나 거주하는 예술인들 중에서 방송과 영화관련 종사자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상보다 공예와 디자인 관련 예술가가 적게 나타난 이유로는 공예 분야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은 앞선 창조인력 관련업종의 공방이나 디자인사무실 운영자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 제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3〉 연남동 거주 문화예술인 현황 (2013년 기준)

분야	장르	명수	합계
미술	회화/조각	28	32
	공예	4	
디자인	디자인/광고/패션	5	8
	사진	3	
음악	클래식	6	12
	인디	6	
출판	작가	22	22
영화/영상	영화/방송/엔터테인먼트	7	13
	연기	6	
무용	무용/퍼포먼스/연극	3	3
문화기획	문화기획/전시/예술행정	6	6
미분류	미분류/기타	22	22
합계		118	118

2) 연남동 창조인력 분포

〈그림 3-14〉 연남동 창조인력 분포현황 (2013년 기준)



창조인력 관련업종은 3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예술가 주거지는 아파트, 빌라, 주택에 거주하는 기성 예술인들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임대해서 거주하거나 개인작업실로 사용하는 젊은 예술인들로 양분되어 있으며 연남동 전 지역에 걸쳐서 고루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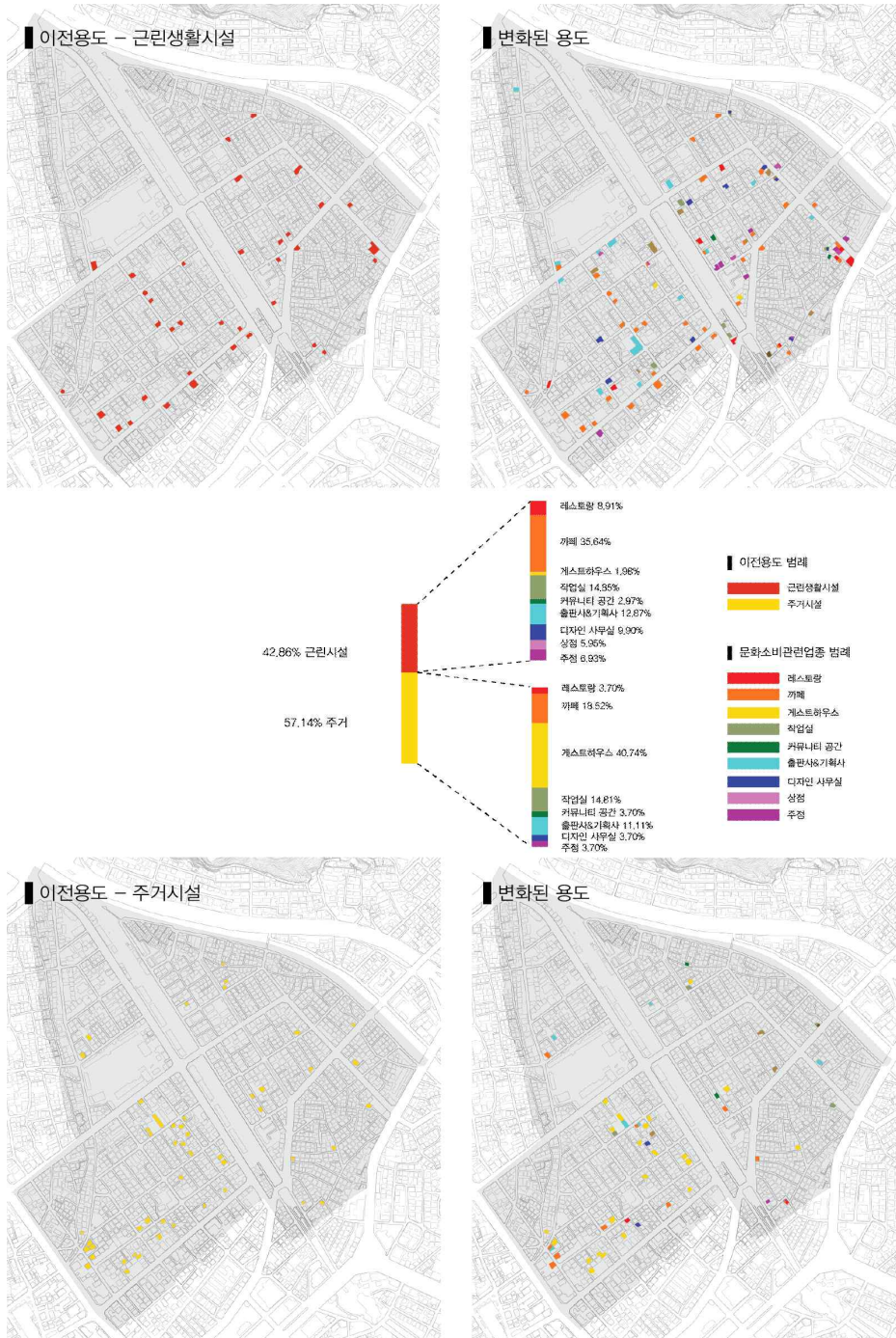
2-3. 용도변화

1) 변화된 용도

2008년 이후 변화된 총 건물 수는 약 160개동(매장 259개소)으로 대상 지내 총 건물 수 2503동의 약6% 정도이다. 변화된 건물의 용도 중에서 주거지에서 창조인력 관련업종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57.14%이며 근린시설에서 변화된 것은 42.86%이다. 주거지에서 용도변화가 비율이 높은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과 지원이 집중한 2011년 이후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집중적으로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에서 용도변경이 일어난 경우에는 무려 40.74%가 게스트하우스로 변화되었다. 게스트하우스를 제외하고 카페(18.5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작업실(공방, 14.81%), 출판사(11.11%), 디자인사무실(3.70%), 레스토랑(3.70%) 순이다. 근린시설에서 용도변화는 카페(35.6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작업실(공방, 14.85%), 출판사(12.87%), 디자인사무실(9.90%), 레스토랑(8.91%) 순으로써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근린시설, 주거시설 공히 창조인력 관련업종으로의 변화는 카페(27.08%)로 변화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공방을 포함한 작업실(14.83%), 출판사(12.25%), 디자인사무실(6.80%), 레스토랑(6.30%)의 순이다. 주점(5.31%)으로의 용도변화는 많지 않았는데 연남동 전체가 주거지역이며 상업화가 덜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주점들도 소규모의 창조인력의 네트워크와 예술가 커뮤니티 매개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림 3-15> 변화 이전 용도별 변화 (2013년 기준)

(상: 근린생활시설에서 창조인력관련 업종으로의 변화, 하: 주거시설에서의 변화)



2) 연도별 용도변화

연남동은 전형적인 저층 주거지역이므로 2008년 이전에는 주거지와 연관된 근린시설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9년부터 용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변화는 현재까지 이어지는데 <표 3-4>의 창조인력 관련업종 개점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 91개소이던 매장수가 2012년과 2013년에 급격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출판사를 제외하면 위 매장의 절반이 2012년 이후에 생겨났으며 2013년에만 55개의 신규매장이 문을 열었다. 연남동 전체의 창조인력 관련업종 누적 매장수는 출판소를 포함해서 259개소이나 연남동에 창조인력 관련업종은 유입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008년 이전에도 연남동에는 이미 많은 출판사가 입주해 있었는데 <그림 3-16>에 의하면 출판사는 주로 단독주택이 있는 ①경성고등학교 지역과 ②휴먼타운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2011년까지도 출판사를 비롯한 기획사, 공방, 작업실, 디자인사무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2012년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주점등도 대부분 2012년 이후에 생겨난 것이며 2013년 현재 경성고 남쪽지역에서 서교동 경계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2012년 급증해서 현재 30개가 운영 중인데 외국인이나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입도 카페, 레스토랑 등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⁷⁴⁾

<표 3-4> 연남동의 창조인력 관련업종 개점 시기

개점연도	매장수(개소)	누적 매장수(개소)
2008 이전	35	35
2008	13	48
2009	4	52
2010	11	63
2011	28	91
2012	37	128
2013	55	183
미확인	16	199
출판사	60	259
합계	259	259

74) 연남동 소재 부동산에 의하면 실제 게스트하우스가 현재 50여개가 있다고 함. 허가받지 않은 게스트하우스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

<그림 3-16> 연도별 용도 변화



〈표 3-5〉 카페현황 (2013년)

	상호	분야	주소	용도	이전용도	이후년도
1	Little Dice	카페	월드컵북로6길 21	카페	사무실	2012
2	호타루의 빛	커피	월드컵북로6길 21	카페	델코бат데리	2012
3	오군 수제고로케	제빵	동교로27길 62	카페, 베이커리	상점	2013
4	아이앰키친	상요리	월드컵북로6길42	레스토랑	카페, 갤러리	2011
5	커피 정	커피	동교로23길 67	카페	주거	2013
6	Soulbeat	커피	동교로23길 64	카페	창고	
7	insomnia	커피	월드컵북로 52-4	카페	상점	2013
8	언덕위의 바다	커피	성미산로 86	카페		
9	AVVIO	커피	성미산로 82	카페		
10	CPLAY	커피	동교로23길 118	카페		2013
11	KLEE	커피	성미산로 105	카페	상점	2013
12	DANCHOO	커피		카페	식당	2013
13	wonder waffle	커피	동교로27길 96	카페	상점	2013
14	연남살롱	커피	연남로5길 19	카페	주택	2011
15	유어 Roasting Park	커피	성미산로22길 23	카페	사무실	2012
16	H	커피	성미산로22길 36	카페	신축	2012
17	ci vediamo	커피	동교로27길 44-8	카페	주택	2011
18	곰발커피	커피	월드컵북로6길 61	카페	떡집	2013
19	산책(프롬나드)	커피	월드컵북로6길 97	카페	사무실	2011
20	spring bloom	커피	동교로29길 10	카페	부동산	2012
21	커피감각	커피	동교로29길 40	카페	사무실	2013
22	피라브레 2	커피	성미산로 198	카페	이불가게	2013
23	왕창상회	커피	성미산로29안길19	카페	사무실	2013
24	yo! one	커피	동교로41길 41	카페	254-24	2012
25	아는 남자	커피	동교로41길 3	카페	피아노학원	2103
26	ER	커피+디자인	동교로41길 4	카페	사무실	2013
27	기다리는 나무	커피	성미산로 170	카페	창고	2013
28	답커피	커피	동교로 209	카페		2012
29	마젤도프	커피	동교로 238	카페	주택	2010
30	커피 볶는집	커피	성미산로 185	카페	복덕방	2012
31	이심	커피	동교로46길 42	카페	화장품가게	2010
32	개집	커피	월드컵북로6길 88	카페	프린트	2011
33	커피볶는 그랑	커피	월드컵북로6길98	카페	레스토랑	2010
34	커피집단	커피	동교로23길 64	카페	사무실	2011
35	자스	커피	연남로1길 11	카페	세탁소	2011
36	카페 휴머니스트	커피	동교로23길 76	카페	주택	2010
37	도깨비커피집	커피	동교로27길 80	카페	아채가게	2008
38	연남동 올레길	커피	연남로3길 40	카페	웃가게	2011
39	카페야	커피	동교로27길 60-5	카페	도서대여점	2010
40	서영카페	커피	동교로25길 51	카페	사무실	2011
41	사이편카페	커피 로스팅	연남로1길 60	카페	주택	2012
42	미차	커피	월드컵북로6길 60	카페	카페	2012
43	Gon	커피	동교로 252	카페	쌀가게	2012
44	밍밍	커피	동교로 265	카페	식료품점	2012
45	피데루커피	커피	연희로1길21	카페	배달음식점	2011
46	생선캠프	커피	연희로1길 7	카페		2012
47	히치하이커	커피	연희로1길 23	카페	주택	2009
48	마블베이커리	커피, 제빵	동교로39길 7	카페, 베이커리	치킨집	2011
49	DU dart	커피, 제빵	연남로1길 88	카페, 베이커리	주택	2011
50	곰마 앤 브레드	베이커리	양화로21길 15	매장	주점	2013
51	Boca Bread	커피, 제빵	연남로7길 38	카페, 베이커리	주택	2013
52	베지홀릭	커피, 제빵	성미산로26길 41	작업실, 사업장	주택	2012
53	cocograce	꽃, 커피	성미산로29길 16	카페, 꽃집	조각사무실	2013
54	도시락카페	요리, 커피	동교로30길 17	카페, 도시락	주택차고	2012
55	Allee	카페	월드컵북로6길 12	카페	창고	2011
56	milcale	카페, 베이커리	월드컵북로6길 15	카페, 베이커리	상가	2011
57	두다트	커피	연남로1길 88	카페	주택	2011
58	꿀다방	커피	연남로5길 35	카페	카페	2013

〈표 3-6〉 레스토랑/음식점 현황 (2013년)

	상호	분야	새주소	용도	이전용도	이주년도
1	총각네	요리	동교로25길 54	레스토랑	차고	2012
2	밥스바비	요리	동교로 225	레스토랑	부동산	2012
3	Yellow	요리	월드컵북로8길 17	레스토랑	부동산	2009
4	치베디아모	요리	연남로1길 47	레스토랑	주택	2011
5	빚띠슈망	요리	동교로46길 40	레스토랑	건축자재상점	2011
6	히메지	요리	성미산로 198	레스토랑	식당	2011
7	40 키친	요리, 주점	동교로46길 40	레스토랑	건축자재상점	2013
8	Park' s Kitchen	요리	연희로1길 23	레스토랑	주택	2012
9	오도식당	요리, 주점	동교로46길 40	레스토랑	건축자재상점	2013
10	톡톡누들타이	요리	연희로 37	레스토랑	창고	2012
11	이파리	요리, 주점	성미산로 198	레스토랑	문방구	2013
12	Grammo	요리, 제빵	성미산로32길 18	레스토랑	신축	2013
13	Cook in Box	요리	동교로30길17	레스토랑	바	2013
14	밥해주는남자	요리	성미산로152	레스토랑	사무실	2013
15	test kitchen	요리	월드컵북로6길42	레스토랑	신축	2010
16	Neta' s kitchen	요리연구	동교로29길48	요리스튜디오	건축사무실	2012

〈표 3-7〉 주점/바 현황 (2013년)

	상호	분야	새주소	용도	이전용도	이주년도
1	시실리포차	요리, 주점	성미산로 198	주점	꽃집	2013
2	이노시시	요리, 주점	성미산로 197	주점	음식점	2011
3	CIESTA	요리, 주점, 기타	동교로41길 8	주점	이발소	2013
4	옥타	요리, 주점	성미산로26길 42	주점	카페	2012
5	프랑스포차	요리, 주점	양화로23길 46	주점		2013
6	토끼바	주점	연희로 31	주점		2013
7	안씨네	요리, 주점	동교로 243	주점	마사지샵	2010
8	나렘언니네	카페, 공방		카페, 공방		2013
9	101호 술집	요리, 주점	양화로23길 40	주점	주택	2013
10	하루	요리, 주점	동교로29길 32	주점	청소대행업체	2012
11	골든에이지	주점	월드컵북로6길 78	주점	신축	2013
12	야키도리	요리, 주점	월드컵북로6길 24	주점	식당	2013
13	the GamJa	요리, 주점	연희로1길 23	주점	주택	2012

〈표 3-8〉 소규모상점 및 사무실 현황 (2013년)

	상호	분야	새주소	용도	이전용도	이주년도
1	천가게	의류, 식물	성미산로 198	매장	식당	2013
2	henz	의류, 소품	연희로1길 29	사무실, 매장	사무실	2013
3	something out	커피, 아웃도어, 커뮤니티	동교로39길 4-13	매장	신축	2013
4	보더랜드 & 러브캐스터	스포츠/미술	성미산로 171	작업실, 매장	창고	2013
5	태경원가게	의류	동교로39길 10	작업실, 매장	사무실	2012
6	김밥레코드	음반, 의류	월드컵북로2길 90	매장		2013
7	메타박스	음반	동교로 194	매장, 사무실		2008
8	탱뮤직	악기, 합주	성미산로22길 23	매장, 사무실	사무실	2013
9	1984	출판, 카페, 편집 매장	동교로 194	매장, 카페		2013
10	조은서점	서점	성미산로 116	매장	상점	1998

〈표 3-9〉 작업실(미술) 현황 (2013년)

	상호	분야	새주소	용도	이전용도	이주년도
1	-	미술	연희로 39	작업실		
2	leaf studio	사진	연남로 4-1	스튜디오	사무실	2006
3	민경민 작업실	음악	연남로 8	작업실	사무실	2009
4	Paul Avril	공방, 숭	연남로5길 30		주택	2011
5	-	공방	월드컵북로 48-3			2013
6	1st April	공방, 매장	동교로46길 33	작업실	주택	2012
7	나무와가죽	공방, 매장	동교로27길 41	가족공예	상점	1995
8	English Time	의류 집기		매장		2013
9	큐브디자인	인테리어	성미산로29길 23	사무실		2008
10	향 도예공방	도예	성미산로29안길 26	공방	상점	2008
11	권기수	미술		작업실		
12	svsb	사진	길공원길 61	스튜디오, 사무실	사무실	2013
13	최원열	미술	성미산로29길 20	주거, 작업실	주택	2008
14	-	음악, 미술	동교로 275-1	주거, 작업실	주택	2007
15	흙과놀이	도예	성미산로26길8	도예공방	회화작업실	2013
16	컬러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사무실	사무소	2010

<표 3-10> 공방 현황 (2013년)

	상호	분야	새주소	용도	이전 용도	이주년도
1	비뉴	천연비누	성미산로 174	매장	창고	2013
2	Kikki craft handmade	가죽공예	성미산로28길 39	작업실 매장	신축	2013
3	West	가죽공예				2011
4	모모크래프트	직물	동교로41길 3	공방	창고	
5	atelier Story bag	직물	성미산로 172	작업실. 쇼룸	컴퓨터 관련 작업실	
6	은나비 공방	공방	성미산로 194-11	공방	철물점	2012
7	건담이 지키는 작업실	프라모델	연희로1길 46	작업실	사무실	2011
8	디자인섬에 가다	작업실. 쇼룸			사무실	2013
9	단하 갤러리	공방. 숍. 갤러 리	연남로5길 6		창고	2012
10	흑끼	작업실. 샵561- 39	성미산로22길30	주택	주택	2011
11	나무	플라워스튜디오	동교로 261		주택	2008
12	메릴본플라워	플라워스튜디오	성미산로32길 10	작업실. 쇼룸	주택	2012
13	조동진 기타제작소	음악. 악기	성미산로 194-11	작업실. 매장	철물점	2012
14	리브레	커피	동교로29길 64	작업실	사무실	2011
15	STUDIO2413	금속공예	월드컵북로653-10	공방	네일샵	2013
16	연남동풍경	커피	동교로27길 100	작업실	상점	2011

<표 3-11> 음악 작업실 현황 (2013년)

	상호	분야	새주소	용도	이전용도	이주년도
1	Choral 합주실	음악	양화로23길36	합주실	사무실	2012
2	Opium 스튜디오	미술		작업실		
3	바이바이배드맨	음악		합주실		
4	참미디어	음악	월드컵북로6길 83	스튜디오		
5	Hand Made Music		동교로27길 31			
6	-	음악	동교로 275-1	작업실	주택	2006
7	-	음악	동교로 275-1	주거. 작업실	주택	2012
8	정우민	음악	양화로 183	주거. 작업실		2012

〈표 3-12〉 디자인사무실 현황 (2013년)

	상호	분야	새주소	용도	이전용도	이주년도
1	green mango shake	시각디자인	동교로25길 58	사무실	주차장	2011
2	형태와 내용사이	출판, 디자인	성미산로 194-11	작업실	철물점	2012
3	키티버니포니	제품디자인	월드컵북로 52-4	작업실, 사업장		2013
4	브라이트모닝	농수산물거래	성미산로26길 9	사무실	잡지사	2013
5	soon dabang & design	인테리어, 건축	성미산로 172	사무실		
6	DM design	디자인	동교로29길 48			
7	안녕 랩	시각디자인	성미산로29안길 26		상점	2007
8	두울스튜디오	시각디자인	연남로3길 54		사무실	2012
9	Design Woody	시각디자인	연남로3길 18-8	사무실	주택	2010
10	color communications	시각디자인	동교로41길 32	사무실	사무실	2010
11	달콤한 작업실	출판, 디자인	동교로45길 7	사무실		
12	컴홈 Studio		월드컵북로 38			
13	앤아이 디자인	인테리어				
14	ik village	인테리어, 제품			사무실	2013
15	roomscape	요리,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	성미산로 170		사무실	2013
16	공간공방미용실	인테리어건축	성미산로174	작업실	포장창고	2013
17	스튜디오2413	디자인	월드컵북로6길53-10	사무	주거	2010
18	M media	영상	월드컵북로6길87	사무실	상가	2013
19	헨즈	디자인샵	연희로1길 29	작업실, 샵	사무실	2012

〈표 3-13〉 게스트하우스 현황 (2013년)

	상호	분야	새주소	이전용도	이주년도
1	pencil hostel	게스트하우스	연남로1길 73-6	주택	2011
2	cozzzy	게스트하우스	동교로23길 63	철학관. 주택	2012
3	24	게스트하우스	월드컵북로6길 19-6	주택	2013
4	Hi KOREA	게스트하우스	성미산로16길 41	주택	2011
5	Twin Rabbit	게스트하우스	성미산로118	주택	2013
6	Maruji	게스트하우스	연남로5길 30-4	주택	2013
7	NAMU	게스트하우스	연남로5길 24	주택	2013
8	TANG	게스트하우스	성미산로22길 23	주택	2013
9	Seoul i	게스트하우스	성미산로22길 24	주택	2010
10	Birdnest	게스트하우스	연남로3길 18	주택	2011
11	Lee & No	게스트하우스	연남로3길 18-9	주택	2011
12	trip Friends	게스트하우스	연남로1길 54	주택	2012
13	travelers planet	게스트하우스	동교로25길 54-8	주택	2013
14	yellow submarine	게스트하우스	동교로29길 14	사진관	2011
15	Roi	게스트하우스	동교로41길 16	신축	2013
16	TIME	게스트하우스	성미산로28길 31	주택	2011
17	ULTARI	게스트하우스	와우산로23길 35	주택	2012
18	family& friends house	게스트하우스	월드컵북로6길 81-12	주택	2012
19	Stay Korea	게스트하우스	동교로27길 60-5	주택	2010
20	Kimchee	게스트하우스	연남로1길 67-6	주택	2011
21	whitetail backpacker & hostel	게스트하우스	성미산로29길 24-6	주택	2013
22	Bibim	게스트하우스		주택	
23	Tora	게스트하우스	연남로1길 6	주택	2012
24	Studio 41st	게스트하우스	성미산로22길 32	공터	2011
25	juno	게스트하우스	동교로38길 36	주택	2012
26	Duri world house	게스트하우스	월드컵북로6길 31-7	주택	2012
27	스페이스토라	게스트하우스	연남로1길 6	주택	2012
28	투앤빌	게스트하우스	월드컵북로8길 16	주택	2011
29	around the corner	게스트하우스	연남로1길6-7	주거	2013
30	리엔노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연남로3길 18-9	주택	2011

제4장.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 및 요소

제1절. 연남동 창조환경 요소 도출

1. 조사개요 및 방법

연남동 창조인력의 지역 선호요인을 도출하고 창조환경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남동의 창조환경을 이루는 요소를 도출하여야 한다. 조사방법은 창조인력 54명을 포함하여 주민, 행정, 홍대 앞 잡지 기자, 기획자 등으로 나누어 총 6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심층 인터뷰 기간은 2013년 10.1~10.23까지 총 23일간 이루어졌다. 연남동에 거주하는 창조인력들에게 연남동으로 이전한 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그들이 인지하는 연남동 창조환경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첫째, 창조인력에 대한 직종, 건축물 용도 등의 일반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둘째, 연남동에 이주하게 된 이전 동기, 인식, 만족도 등의 인식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창조환경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석된 창조환경의 특성을 이루는 ‘①독창적 영역’, ‘②시장기능’, ‘③문화환경’, ‘④네트워크’, ‘⑤관용’의 5가지 요인에 기초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2. 조사대상

연남동 창조인력 중에서 지역전문가와 사전인터뷰, 선행연구 검토, 언론매체 보도내용,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분야별로 대표성을 지니는 54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예술가는 주거지를 포함하여 연남동에 개인 작업실을 두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창조인력 관

련업종 종사자는 연남동으로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표, 운영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남동을 물리적 특성이 두드러진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63명 (창조인력 54명)

구분	분야	활동	명수	비고
연남동창조인력	예술가 (12)	예술가	10	미술, 공예, 사진, 음악, 광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출판, 영화 등
		예술가 작업실	2	미술, 광고
	문화시설 (3)	갤러리 운영	1	플레이스 막(동)
		공연, 연주실운영	1	탱뮤직(경)
	공방 (11)	작업실+공방	5	은나비(동), 아틀리에 스토리백(휴), 스튜디오 2413(경), 폴 아브릴(경), 단하갤러리(경)
		공방+매장+교육	6	시작(동), 러브캐스터(휴), 비뉴(휴), 키키가족공방(휴), 모모크래프트(휴), 흙과 놀다(휴)
	커피/카페 (7)	커피, 카페	4	이심(동), 리브레(동), 연남살롱(경), 프롬나드(경)
		커피+워크숍+강연회	1	웃으러(경)
		카페+디자인사무실+매장	2	ER(휴), 썬땡 아웃(휴)
	디자인 (7)	디자인사무실+매장	4	그린망고웨이크(경), 라따몬띠(경), 브라이트모닝 농산물디자인연구소(휴), 디자인섬에가다(경)
		건축사무실	1	공간공방미용실(휴)
		패션, 의상실	2	dumb 타임(동), BASTANG(경)
	출판 (4)	출판사, 출판관련	2	한빛미디어, 휴머니스트(경)
		서점, 핸드북출판	2	피노키오(동), 형태와 나무사이(동)
	레스토랑/음식 (4)	음식점, 요리	3	히메지(동), 그라모(휴), 총각네(경)
		음식점+예술활동	1	시에스타(휴)
	주점 (3)	이자카야, 포차, 바	3	시실리(동), 하루(휴), 샤(경)
	커뮤니티 (4) 문화기획	커뮤니티시설 및 문화기획가	4	일상예술창작센터(휴), 새끼(휴), 줌마네(휴)
주민	주민	마을주민	2	주민
	업소	부동산, 게스트하우스	2	솔로몬부동산, 로이 게스트하우스
외부	전문가	문화기획가, 기자	4	문화기획자 2, 홍대잡지 S-h, 편집장1, 기자1
행정	마포구	행정가 마포구	1	마포구
합계			63	* 동)동진시장 주변지역, 휴)휴먼타운주변지역, 경)경성중고등학교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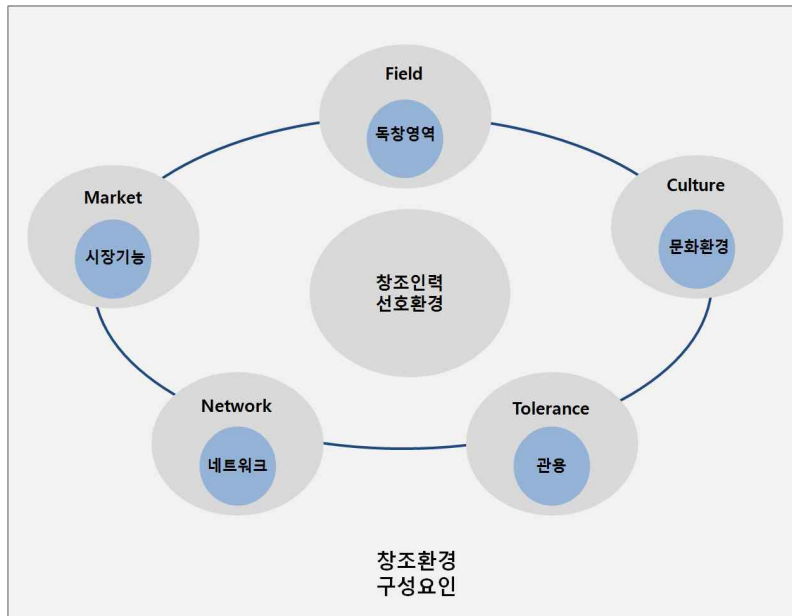
〈표 4-2〉 연남동 창조인력 심층면접 질문지

구분	요인	질문내용
일반 사항	직종	귀 매장의 업종 및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건축물 용도 및 소유	귀 매장(작업실) 개점(이전)시기는?
		연남동 이전 매장(작업실) 거주지는?
		귀 매장(작업실) 개점 전 건물용도 및 개점 후 건물용도 변화?
		귀 매장(작업실) 건물소유 형태는?
	이용자	주요 이용자는? (매장주의 경우)
인식 만족도	이전동기	연남동을 알게 된 계기는?
		연남동에 매장(작업실)을 개점(이전)한 이유는?
	인식변화	연남동에 대한 첫인상과 현재인상의 변화는?
		연남동 변화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생각은?
	만족도	연남동 이전에 대해 만족하는지 여부는?
창조 환경 구성 요인	영역 (독창성)	연남동 창조인력의 고유한 영역과 독창적 분야?
		귀하의 창작 및 작업방식에 대한 고유성과 특징은?
		귀하의 작업 및 일과 관련한 라이프스타일은?
	시장 (지지기반)	연남동의 정체성을 홍대문화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귀하가 생각하는 홍대 앞의 범위는?
		귀하의 작업이나 일과 관련한 지지기반이나 시장기능은?
	환경 (문화)	연남동을 대표하는 고유한 문화와 상징은?
		연남동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대한 특징은?
		연남동 거리분위기와 저층부 주택단지와의 연관성은?
		가로공간과 공공공간의 활용에 대한 입장은?
		경의선 개통, 휴먼타운 개발에 대한 생각은?
	교류 (네트워크)	귀하의 매장을 주로 찾는 사람은? (매장주)
		연남동에서 귀하가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소는?(매장주, 예술가)
		귀하가 주로 교류하는 사람들의 범위와 지역은?
	정서 (관용과 개장)	시민들과의 관계나 소통 및 교류여부는?
		연남동의 커뮤니티 특성이나 정서, 분위기는?

제2절.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 요소

1.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을 이루는 구성요소

〈그림 4-1〉 창조환경 구성요인



1-1. 독창적 영역

창조환경을 이루는 일반적인 요인 중에서 ‘독창적 영역’이란 창조적 영역의 전문성과 독창성을 말한다. 창조적 영역의 전문성이란 어떤 한 분야에서 인정과 지지를 받아야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영역이나 아이디어 기술이 발달된 지역 특성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연남동을 대표하는 가장 독창적인 특징은 다양한 장르의 창조인력 관련 업종 집적, 창작-유통-소비 기능이 결합된 독특한 유형의 문화시설과 복수직종(직업)에 종사하는 창조인력을 들 수 있다.

심층 인터뷰의 결과로 연남동 창조환경의 특성은 중복적으로 응답된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도출되었다. 이 중에서 「독창적인 영역」과 관련한 요소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창작인력 유입’과 더불어 유통 및 소비와 관련한 ‘문화기획/매개 인력’의 유입,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주자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작업자들’의 집적, ‘독특하고 예술적인 문화공간’, ‘작업실과 문화소비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트렌드’, ‘이국적이고 독특한 음식문화의 발달’ 등이 있다.

1) 공방(아틀리에)등의 창작시설과 문화소비 업종의 결합

연남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장인의 의식에 입각한 다양한 분야의 창조인력이라 볼 수 있다.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 2008)은 그의 저서 『장인: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에서 문화적 물질주의자들은 물건이나 결과물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물질이 어떻게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관심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는 기술(technique)의 의미를 인간의 사고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공정으로서의 기술이 아니라 특정한 생활양식을 수행하게 하는 도구인 문화로 구현되는 기술의 의미를 중요시했다. 즉 특정한 생활양식을 수행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 장인의식을 산업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시들어버린 생활양식으로 이해할 때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다양성과 진정성이 주목받는 21세기에 장인의식에 대한 재조명은 필요한 일이다. 장인의식은 면면히 이어오는 인간의 기본적인 충동이며 일 자체를 위해 일을 잘해내려는 욕구이다. 장인노동은 숙련 육체노동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 스며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의사, 예술가들의 일에도 장인의식이 살아 있다. 아이를 기르는 일도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영역에서 장인은 객관적인 기술을 중요시하며 일 자체에 주목한다. 그는 특히 손과 머리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은 장인의식의 핵심이라고

해야 할 기능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때로는 이런 자부심이 커다란 윤리적 문제⁷⁵⁾가 되기도 하지만 장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계속 원숙해져가는 그의 기능이다. 만드는 일이 곧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Sennett, 2008)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도구의 인간, 호모 파베르(Homo Faber)라 칭하며 인간은 유형, 무형의 도구를 만드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만든다 말했다. 세넷의 주장처럼 장인은 비단 공예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숙련된 경지와 진정성에서 나올 수 있다. 연남동엔 다양한 유형의 생활형 아틀리에와 공방이 있다. 공방과 함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디자이너 혹은 예술가들은 매장에서 직접 만든 작품을 바로 전시하며 판매하기도 하고 자신의 취향이 묻어나는 수집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매장주의 작업 내용을 토대로 강의를 하기도 한다. 유형은 유리공방, 판화공방, 목공아틀리에 등의 예술 작업과 공예품을 제작하는 작업실에서부터 수제출판, 기타제작공방, 수제 비누 공방, 건담아지트, 커피를 볶고 로스팅 작업을 하는 공방, 생활소품을 제작하는 공방, 액세서리 공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림 4-2〉 폴아브릴 수제
아이템공방 동경오감 저자



〈그림 4-3〉 건담 매니아 아지트 겸 디자이너
작업실

75) 리처드 세넷은 원자폭탄을 만드는 과학자들도 역시 장인으로 설명하면서 자부심에서 오는 윤리문제를 해결하는 일로서 수단과 목적의 연결 관계에 대해 주장하면서 장인이 만들어 내는 물질에 대한 사회문화적 복합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2) 복수직종(직업) 종사

연남동 창조인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동종분야 또는 타분야의 직업 및 직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많다는 것이다.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43%가 두 개 이상의 복수 직업이나 타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유형은 다양한 형태의 공방(아틀리에)의 등장과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카페에 기인한다. 연남동에서 복수 직종에 종사하거나 이중 직업을 갖고 있는 창조인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과 관련한 공방(아틀리에), 디자인사무실 등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판매,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카페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둘째, 문화예술인이나 창조인력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 음식점, 주점 등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화된 유형의 카페가 예술가들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공간이나 유통과 발표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개인 창작보다는 프로젝트 방식을 추구하는 영화감독, 배우, 디자이너, 작가 등이 이러한 경우에 많이 있다. 셋째, 복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창조인력 유형이다. 주간에는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고 야간에는 주점이나 음식점, 클럽 등을 운영하거나 커피전문점과 공방, 캠핑용품 판매와 목공방 운영 등의 전혀 다른 형태의 시설을 운영하는 유형이 있다. 넷째, 이중직업 종사자 유형이 있는데 디자이너이면서 비보이 활동을 하거나 록밴드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다섯째,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대부분이 1~2인의 오너셰프에 의해 운영되는데 대부분이 수제 음식을 개발하거나 매우 창의적이거나 독특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었다. 요리에 대한 운영자의 철학과 창의성은 카페나 음식점 인테리어에 그대로 적용되어 독특하고 예술적인 내·외관이나 간판 등의 디자인에도 반영되어 거리와 주변의 문화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 4-3〉 창조인력 심층면접 대상자 및 업종 작업의 특성

분야	구분	장르 및 활동	운영자 복수직업	특성
문화 시설	A	갤러리, 복합문화, 퍼포먼스	연남 토끼빠 운영 (낮술 예술가살롱)	비영리전시공간, 복합문화공간, 동네 커뮤니티 공간, 초청강연회
	B	연주실, 합주실	뮤지션, 밴드	
작업 실/ 공방	A	은공방, 판매		1인 창작공방, 주문형 생산, 홍대앞 프리마켓
	B	천가방 공방, 교육	주부 블로거	1인 창작공방, 강좌
	C	금속공예 공방, 교육	건축	1인 창작공방, 강좌
	D	아뜰리에, 공방	잡지사 에디터	도자기, 향초, 펠트제품 제작, 폴아브릴 오리지널 브랜드 80%판매
	E	금속공예 공방, 매장		1인 창작공방, 매장, 로드샵
	F	가죽공방, 교육, 매장		1인 창작공방, 강좌
	G	손, 발 모형 뜨기	스케이트보드 판매	스케이트보드 전문 편집숍과 공방
	H	비누공방, 매장, 교육		100% 유기농 천연비누 판매
	I	가죽공방		1인 창작공방, 강좌
	J	직물공방, 자수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자수 디자인,
	K	도예공방, 교육		초등학생 대상 체험교육
커피/ 카페	A	수제드립커피전문점		부암동 클럽에스프레소, 연남동이전 음식이 네트워크 공간, 일년에 한번 공연, 작가들 작품판매도 겸함
	B	수제커피전문점, 판매	커피회사, 커피원두 수입, 판매	공정무역 커피, 카페운영, 교육 등
	C	카페	북 아티스트	홈메이드 음식만 판매 주민들에게 책기증 받아 도서관
	D	카페	영화	
	E	카페. 강연, 워크숍	휴머니스트 인문학강의실 공간	인문학강의실, 예술가네트워크 중심
	F	카페, 디자인사무실	건축설계, 디자이너	카페와 건축설계 사무실 동시운영, 영화 상영과 예술가 매개공간 역할
	G	캠핑용품, 목공방	동진시장 목공방	아웃도어 자체 브랜드, 옷, 액세서리, 하드웨어 개발 및 판매
디자인	A	편집디자인		1인 디자인 스튜디오
	B	의류	비보이	중고 의류수입 판매
	C	농산물직거래 디자인, 유통		강원도 농산물 발굴, 디자인, 유통
	D	디자인상품개발, 디자인컨설팅	이벤트기획	디자인사무실, 매장, 프로젝트, 네트워크연합, 이벤트진행. 창작핸드메이드 제품
	E	건축 및 인테리어디자인	커뮤니티 기획자	건축 및 인테리어사무실, 잡지출간, 커뮤니티 활동
	F	의상실	영화감독	1인 패션디자인, 내의, 강아지 옷등
	G	의류, 디자인		자체 브랜드, 의류업 매니저
출판	A	출판, 교육		99년~2008년까지, 서교동 이전
	B	출판, 강연, 워크숍, 교육		휴머니스트 인문학 강좌 지역 및 예술가 커뮤니티 공간
	C	책방, 커뮤니티공간	번역, 1인출판 그래픽모블 등 일러스트	전문서적 판매, 동네 사랑방
	D	북디자인, 출판		1인 북디자인 작업실
레스토랑/ 음식	A	음식점, 카페	맞은편 천가게 운영	카페 음식전문점, 인도천 판매
	B	이태리 레스토랑	수제음식판매(짬, 빵) 해화동 마르쉐, 홍대 등	1팀씩 예약을 받아서 직접 요리
	C	떡볶이		
	D	레스토랑, 기타강습	기타연주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목표
주점	A	해물 주점		예술인 매개공간 역할
	B	이자까야 주점		예술가 매개공간 역할
	C	bar	뮤지션, 록밴드 멤버	바
커뮤 니티	A	커뮤니티센터, 창작공방		지역주민 대상의 창작센터 운영, 교육, 워크숍, 행사기획, 창작공방
	B	홍대 앞 공예품 판매	홍대 라이브클럽 빵 운영	
	C	커뮤니티공간, 워크숍, 교육		아줌마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인사업자, 회원제 운영

2-2. 시장기능

시장기능 요인이란 창조인력이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 모여들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마켓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⁷⁶⁾본래 시장 기능이란 민간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나 공공지원에 의존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시장의 의미는 지원, 후원, 제도 등의 지지기반을 포함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어떤 한 영역의 집약된 노동력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창조적 산물의 배출은 동료들의 지지와 지원세력들의 집적에 의한다. 다시 말해서 과학자나 예술가들은 동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으며 공동의 작업을 하거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는 창조환경을 포함한 주변이나 배후지역이 창조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인 공급-유통-소비 체계가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연남동 지역은 다양한 장르의 창조인력이 집적되어 있으며 장르의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생태계의 순환과 관련한 문화예술 창작, 유통, 매개, 소비 등의 인력과 유관 업종이 혼합되어 있어 연남동만의 창조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매우 특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남동의 「시장 기능」요인과 관련해서 응답자들에 의해 도출된 요소로는 ‘교통의 편리함과 뛰어난 접근성’, ‘홍대 문화의 영향권 내 위치’, ‘주변지역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 등의 요소가 도출되었다.

1) 교통의 편리함과 저렴한 임대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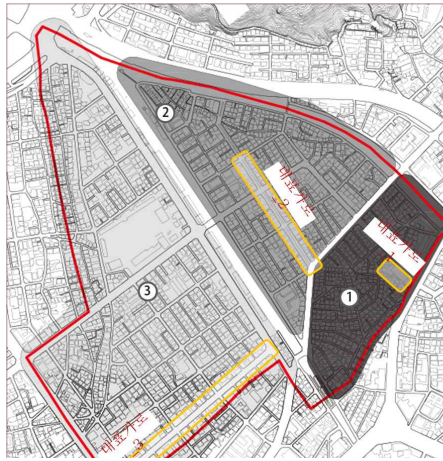
76) 19세기 파리에서 예술적 혁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새로운 딜러의 등장, 이론가의 역할, 대중의 힘 등의 주효하였다. 이 당시의 파리는 일본 회화, 아프리카 미술, 스페인 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열린 분위기의 도시였다. 그러한 거대한 생산이 가능하게 한 도시 이것은 바로 파리의 유패함(gaiety)이라고 말하고 있다. (Hall, 1998). 한편으로 카페와 카바레는 예술가들에게 거실과도 같은 일상적 장소였다. 몽마르트와 몽파르나스는 젊은 예술가들의 중심지였고 이들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독창성, 가시성, 보헤미안적 기질은 예술적 성향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네트워킹은 파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였고 우호적인 연결체계로서 양식상의 상호영향을 부며 협력하였다. 예술을 육성하는 국가의 후원으로 급속히 상품화 되었고 다른 도시보다 예술시장이 빠르게 발달하였다. 개방적이었고 실험정신이 강했다. 또한 예술가들은 이러한 전통속에서 혁신을 창조해내었으며 프랑스전역과 유럽도처에서 재능을 가진사람들을 모여들게 만들었다. (리사 아피냐네사카바레, 강수정 역, 2007)

연남동은 타 지역에 비해 음악, 미술, 공예, 문학, 디자인, 출판, 영화 및 영상, 음식 등의 다양한 장르와 관련한 창조인력이 혼합되어 집적화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근 지역에 미술, 공예시장, 클럽문화가 발달한 홍대가 있고, 방송 및 영상산업의 중심인 여의도, 상암동, 목동 등에 인접해 있으며 출판문화단지인 과주와 인쇄산업이 밀집한 명동, 충무로와의 접근성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공항철도역의 개통에 의해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되면서 게스트하우스, 다국적 레스토랑, 카페, 쇼핑 등 다문화 관련한 시설과 업종의 유입도 확산 추세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인접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지만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경우에도 창조인력 유입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실제로 응답자 중에서 문화예술 창작에 종사하거나 예술인들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홍대앞이나 인근지역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를 연남동에 이전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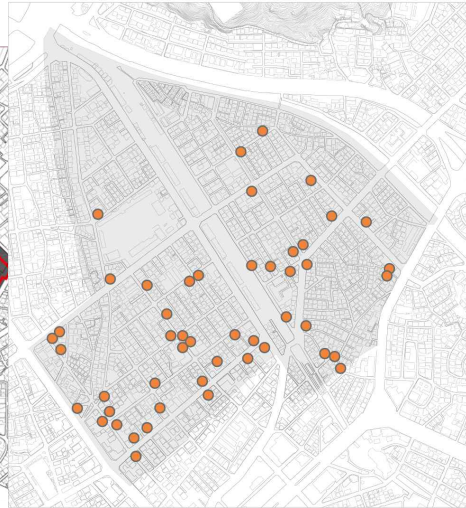
2) 다양한 분야의 창조인력 관련업종의 집적화

연남동의 가장 큰 정체성을 나타내는 창조인력 업종인 문화적인 카페는 전형적인 상업화 된 카페의 모습을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연남동 전 지역에 걸쳐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연남동은 특색 있는 다양한 국적의 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음식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다. 주점과 음식점은 70년대 경관과 이국적인 경관을 지닌 ①동진시장, 화교타운 부근과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③경성고등학교 남쪽 지역에 몰려 있다. 공방, 예술가 작업실(아틀리에, 연습실) 등도 많이 있는데 ①동진시장과 화교타운 부근, ②휴먼타운 남쪽 ③경성고등학교 남쪽 지역에 주로 몰려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부분 소규모로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원룸이나 1층 차고, 창고, 저층부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에 고르게 입주해 있다. 대개의 시설이나 매장이 성미산로를 기준으로 경성고등학교와 주민센터 남쪽 지역에 밀집해 있는데 반해서 출판사는 경성고등학교 북쪽 단독주택 지역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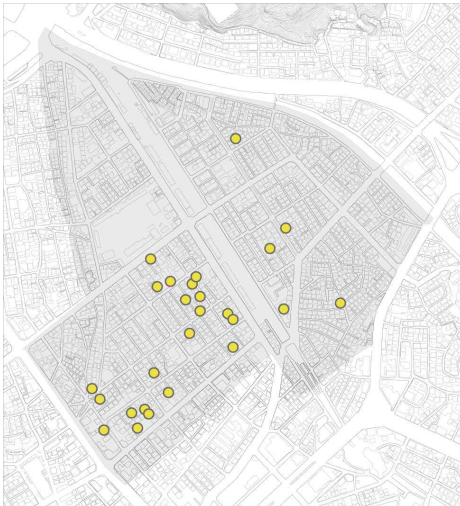
있다. 출판사의 특성상 주택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남동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경성고등학교 남쪽에 밀집해 있다. 주택이나 건물을 개조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몰려 있고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부근과 가까워 상권이 발달하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림 4-4> 연남동 키맵과 대표가로길



<그림 4-5> 카페 분포도



<그림 4-6> 게스트하우스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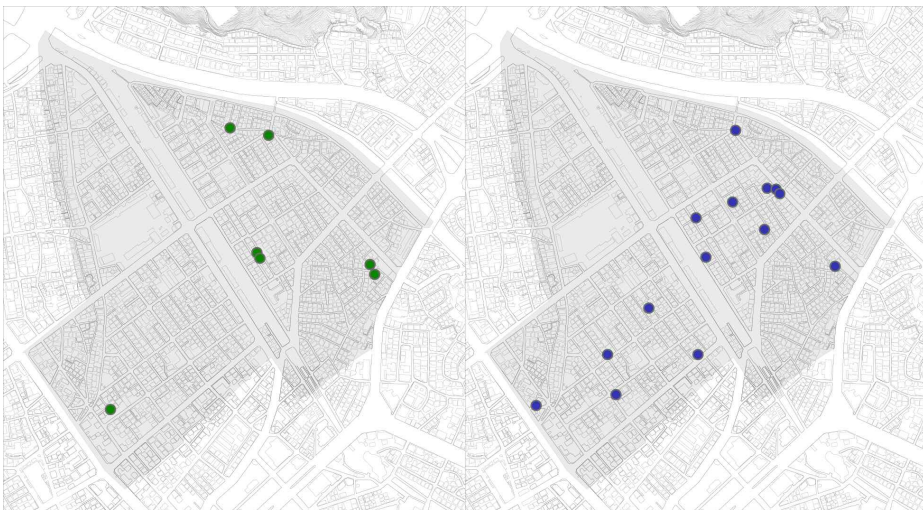


<그림 4-7> 레스토랑 분포도



〈그림 4-8〉 주점 분포도

〈그림 4-9〉 상점 분포도



〈그림 4-10〉 커뮤니티 공간 분포도

〈그림 4-11〉 디자인 사무실 분포도



〈그림 4-12〉 출판사&기획사 분포도

〈그림 4-13〉 작업실 분포도

2-3. 문화환경

문화환경 요인은 연구자들의 견해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물리적인 환경에 관한 학자마다의 견해가 달라 어떤 한 요소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문화환경’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공통적인 요소만을 추출해보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전통적인) 문화경관 환경, 복합용도의 활기찬 거리문화, 다양한 유형의 문화시설, 야간문화 등이 해당된다. 많은 학자들이 창조인력의 핵심적인 환경으로써 야간문화의 발달을 꼽고 있는데 이는 창조인력의 라이프스타일과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의미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환경」 요인과 관련한 요소는 연남동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특성들이 응답되었는데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을 분위기’, ‘저층 구조의 주거단지’, ‘오래된 주택과 빌라/연립’, ‘공공공간의 활용’, ‘가로수길과 경의선길 공원화’, ‘휴먼타운’, ‘기사식당거리’, ‘화교거리’, ‘동진시장’, ‘화교문화’ 등이 도출되었다.

1) 연남동 구역별 문화환경 요소

창조인력은 보다 유기적이고 토착적인 거리 수준의 문화에 끌린다. 이러한 형태는 전형적인 뉴욕의 링컨센터 같은 큰 장소나 워싱턴 DC, 박물관지구 같은 지정된 ‘문화지구’가 아니라 다용도의 도시지역에서 발견된다. 그 지역은 보스턴의 백 베이처럼 부촌이거나 혹은 워싱턴 DC의 애덤스 모건, 뉴욕의 이스트빌리지, 피츠버그의 사우스 사이드 같은 소생하는 저소득층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 지역은 환경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스 문화의 창조자들과 후원자들의 상당수가 가까이에 산다. 이것이 그곳을 토착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거리무대는 절충적이다. 절충주의는 오늘날 많은 예술양식에서 다루는 주제이며 창조성을 위한 절충주의는 만연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것이 거리무대의 주요 요소인 것이다. 더욱이 절충주의적 취향은 대개 창조적 계층의 사람을 구별할 때 참고로 삼을 수 있는 사회적 지표이다. 혼재된 문화의 형태를 한 절충주의는 강력한 창조적 자극이 된다. 더욱이 거리문화는 사회적이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환경은 거리가 제공하는 주요 매력이다. 우선 대화는 효과적인 예술양식이며 커피숍과 종종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도 창조적 능력은 창조적 생각을 가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 격의 없이 우연히 나눔으로써 양성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성은 종합의 행위이며 창조하고 종합하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결합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⁷⁷⁾

연남동을 특성에 의해 크게 세 구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소규모 필지의 다세대 주택지와 골목길이 밀집한 동진시장 주변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재정비한 고급주거지구인 휴먼타운 지역, 비교적 큰 필지로 상업화되어 있는 경성고등학교 일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각 구역은 대표가로를 중심으로 거리문화가 발달되었고 다양한 유형의 창조인력 관련업종이 대표가로에 인접해서 창조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77) Florida, op. cit., 2002, p. 290.

(1) 동진시장 주변지역과 화교타운의 문화환경 요소

① 고유한 문화환경: 기사식당, 동진시장, 화교거리

동진시장 주변은 비정형의 도시구조와 소규모 필지, 소규모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이다. 또한 비정형 도시구조로 인한 개별 필지의 신축이 어려워 노후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노후화된 물리적 구조로 인해 정감 있고 오래된 도시 분위기를 연출한다. 동진시장은 현재 오래된 재래시장의 형태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매장들도 시장의 정감어린 느낌을 그대로 인테리어에 적용하는 있는 외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진시장 바깥쪽의 동교로길에서 성미산로에는 화교타운이 형성되어 유명한 중화요리 음식점들이 있다. 동교로 철길에서 가로수길 입구에는 30년 된 기사식당과 순대국집이 즐비한데 실제로 심층인터뷰에 응한 많은 예술가들이 ‘기사식당’과 ‘화교거리’를 연남동을 대표하는 상징적이고 고유한 문화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창조인력 관련업종이 동진시장에 입주한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⁷⁸⁾ 오래된 주택가의 조용한 느낌, 서울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70~80년대의 정겨운 동네 골목길, 철물점, 기름가게, 세탁소 등의 오래된 가게들과 한옥구조의 가옥들의 존재, 재래시장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동진시장, 저층구조의 주거 풍경(동교로 46길 일대)등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대표가로는 13개 점포가 밀집된 동진시장 후면골목과 50개 점포가 인접한 동진시장 정면 성미산로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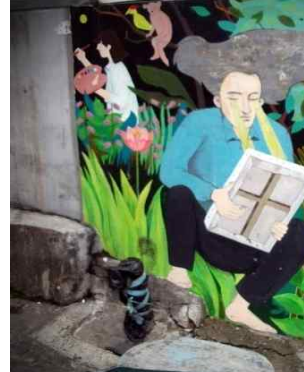
78) 2013년 전용면적 33㎡ 기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50만원. 동진시장 뒤편으로 임대료 증가 추세임



<그림 4-14> 리브레



<그림 4-15> 수제커피전문점



<그림 4-16> 대안공간



<그림 4-17> 오래된 골목풍경



<그림 4-18> 동진시장

② 동진시장 골목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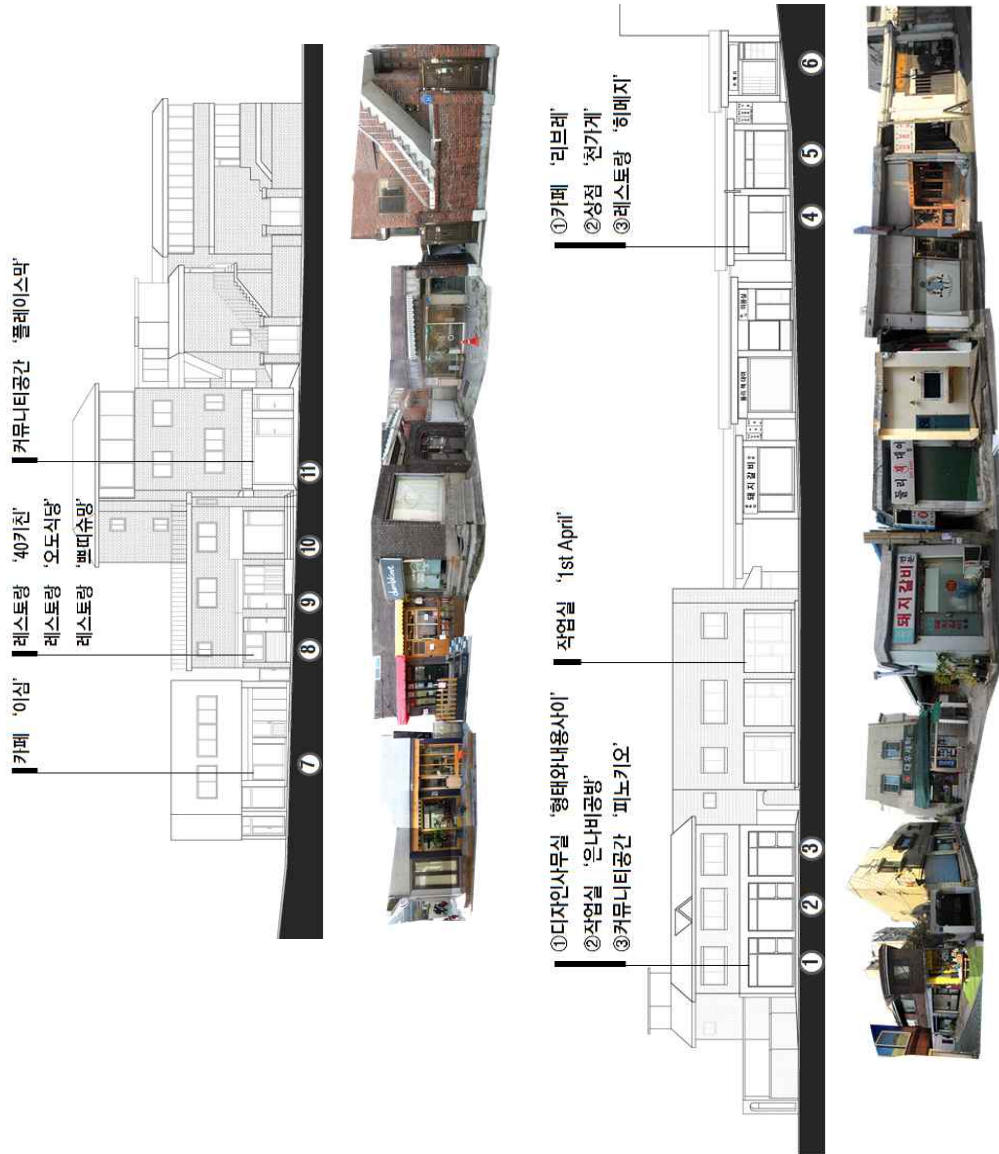
창조인력 관련업종은 대표가로인 동진시장 후면골목(80m)인 동교로 46길은 소자본 공방, 수제커피전문점, 태국, 일본, 멕시코 음식 등이 다양하고 예술가들의 아지트인 주점이 밀집해 있다. 동진시장 후면골목은 도로폭 3m의 아스팔트와 보도 블럭길의 미로 같은 골목길에 창고 등을 개조하거나 기존의 30년 된 근린시설(미용실, 식당, 이불집 등)운영자가 하나 둘씩 은퇴 후에 빈 점포가 발생하면서 창조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이 시작되었다. 저렴한 임대료와 골목상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0년 문화 불모지를 찾아 이 일대에 문화공간 으로는 처음 들어온 ‘플레이스 M’을 비롯하여 ‘카페 E’가 입점한 것이 창조인력 유입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페 E’는 홍대 앞에서 운영

하다가 높은 임대료에 밀려 연남동으로 들어 온 경우이다. ‘카페 E’와 함께 따라 들어 온 단골손님과 예술가들로 인해 동진시장 일대의 예술가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있다. 이어서 직접적으로 로스팅을 하고 수제드립커피를 만드는 ‘R 커피전문점’의 방송 출현으로 인해 타지인 방문이 급증하고 젊은 층의 유동인구 증가도 동진시장 일대의 변화된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동진시장 정면의 왕복 2차선도로인 성미산로(190m)는 소형빌딩, 저층부 주택이 혼재되어 상권이 형성이 형성되어 있으며 2012년 ‘S 포차’가 들어오면서 야간가로 활성화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근에 40년 된 오래된 점포(기름집, 철물점, 38개)와 최근 입점한 카페, 음식점, 주점(12개)이 혼재된 양상이다. 주점이나 포차들의 영향으로 동진시장 인근에는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 온 인디밴드 등의 음악가를 위시한 젊은 예술가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림 4-19〉 동진시장 대표가로 (후면골목, 동교로 46길)



〈그림 4-20〉 동진시장 대표가로 입면도 (후면골목, 동교로 46길)



(2) 휴먼타운 주변지역 문화환경 요소

① 고유한 문화환경: 저층구조의 안정적인 마을분위기

2013년 9월 연남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준비를 끝낸 연남동 239-1번지 일대는 일반적으로 휴먼타운이라 부른다. 연희로와 평행하는 복개된 개천을 따라 경의선 철로 아래를 통과하는 가로변을 중심으로 화교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연희로 주변의 식당은 기사식당이 인접해 있다. 기존의 저층주택과 새로 지어진 고급주택과 빌라 두 가지로 나뉘며 규모가 큰 단독주택도 다수 존재한다. 휴먼타운 사업 시행 후 다세대주택 건물의 신축이 성행하고 있으며 가로와 시설이 정비되어 쾌적한 동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주민들도 기존에 살던 연령층이 높은 원주민 층과 단독세대로 구성된 연령층이 낮은 층(20~30대)으로 나뉘진다.

또한 성미산로 23기호가 동교로29길은 경의선 폐선부지 공원과 맞닿아 있어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다. 창조인력 관련업종은 성미산로와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구분하여 북쪽보다는 남쪽구역에 밀집되어 있다. 북쪽 구역은 아직까지 저층주택가가 주를 이룬다. 매장은 주택가 1층에 차고지를 개조한 경우와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활용한 경우, 신축건물 1층을 활용한 경우가 주를 이룬다.

휴먼타운에 창조인력이 모여드는 이유는 저렴한 임대료와 작업하기에 조용한 환경, 홍대문화 인근, 교통의 편리성, 주변 공방들의 집적 등을 꼽고 있다. 이 지역은 다양한 유형의 업종이 혼재하나 조용한 주택가 특성에 맞게 공방, 디자인사무실, 카페, 커뮤니티 공간 등이 주를 이룬다. 이곳 대표가로는 동교로 41길 사이에는 약 500m의 소규모 가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길공원길이라 할 수 있다. 주변에 어린이공원, 주민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의 다양한 활동 공간과 오픈스페이스가 있어 주민들을 위해 많은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특히 길공원길 주변으로는 독특한 카페와 갤러리, 공방 등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림 4-21> 경의선 공원



<그림 4-22> 카페와 디자인사무실

② 가로공원, 길공원길

<그림 4-23> 휴먼타운 대표가로 길공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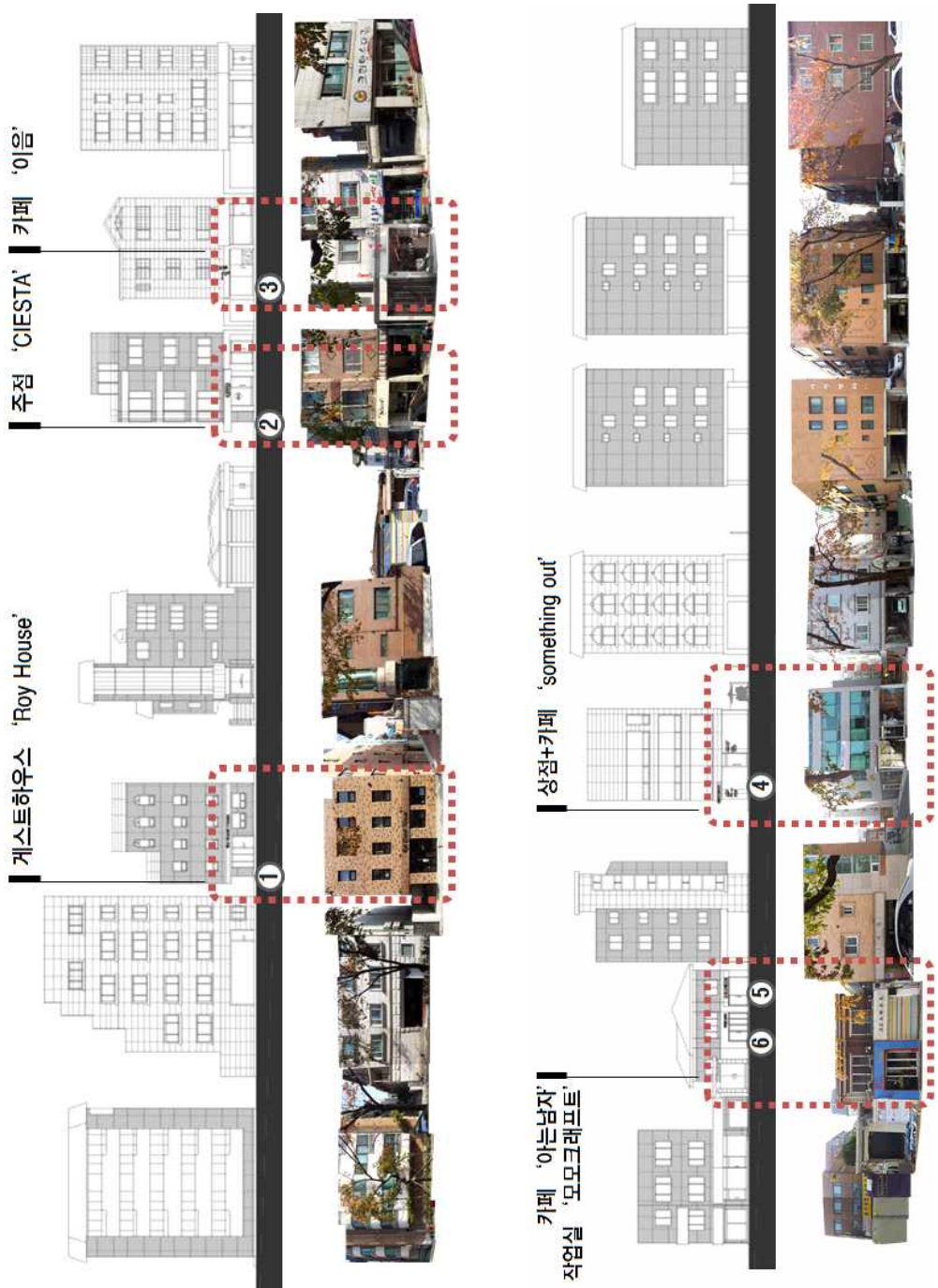


플로리다는(Florida, 2002) 창조계층 선호하는 환경은 “거리수준의 문화이며 그 문화는 다수의 작은 장소와 나란히 인접한 어떤 거리들을 따라 모여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그 거리에는 커피숍, 식당, 술집이 있으며 그 장소 중 일부는 음식과 음료수와 함께 공연이나 전시를 제공한다. 또한 거리에는 상점 앞이나 다른 용도로 개조된 낡은 건물에 마련된 여러 가지 혼성의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⁷⁹⁾ 그는 거리문화는 절충적이며 사회적이며, 창조적인 절충주의는 거리문화의 주요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시의 중심가 또는 독립적 장소로서의 거리의 공적공간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동시에 비공식적인 장소로서 활용된다. 창조환경을 위한 조건은 상호 활동에 필요한 물리적인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제이콥스는 (Jacobs, 1961) 도시의 창조성에 기여하는 공간의 조건으로서 안전하고 접촉면이 많은 거리와 근린공원의 중요성에 언급하였고, 도시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조건으로서 혼합된 용도의 거리, 걸을 수 있는 규모의 작은 블록 단위의 거리,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의 적절한 조화, 소규모 소매업과 가게, 문화시설의 적절한 혼합이 만들어낸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을 들고 있다. 랜드리는(Landry, 2002)가 주장하는 창조환경은 하드웨어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제공을 뜻하는데 하드웨어 인프라는 적절한 어메니티 등의 지원시설, 문화시설, 연구기관, 교육시설, 교류를 위한 만남의 장소 등의 문화적 환경조성 등이다.

휴먼타운을 대표하는 길공원길도 단독주택이 많아서 큰 도시와 달리 70년대 서울 골목길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주다는 창조인력의 응답이 많은 것처럼 저층부 주택가는 예술가 및 창조인력들이 특색을 가진 외관과 건축물 입면을 형성함으로써 지금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소규모 공원들로 거리의 환경이 문화적으로 변모하면서 거리를 걷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상호작용과 교류가 일어나면서 연남동 대표거리 중 하나인 길공원길도 활기차게 변모하고 있다.

79) Florida, op. cit., 2002, p.284.

〈그림 4-24〉 휴먼타운 대표가로 길공원길 입면도



(3) 경성중·고등학교 주변지역 문화환경 요소

①경성중고등학교 고유한 문화 환경

경의선공원의 원편인 경성중·고등학교에서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부근까지 지역은 비교적 큰 규모의 필지들이 다수 존재한다. 경성고를 중심으로 남·북 쪽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단독주택지로 다세대 주택과 빌라가 주를 이루며 규모가 큰 단독주택도 있다. 경성고등학교 북쪽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써 빌라와 아파트에 거주하는 예술인과 단독주택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출판사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서교동과 홍대에 인접한 경성고등학교 남쪽 두 블록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업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필지규모와 건물규모도 큰 편이며, 주거용도 보다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우세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규모가 있는 출판사, 디자인기획사 사무실, 게스트하우스, 패션기획사 등이 다수 존재한다. 더불어 카페와 음식점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2011년을 기점으로 이 지역의 임대료가 점점 상승하면서 공방이나 예술가 작업실은 점차 동진시장이나 휴먼타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이다.

이 지역으로 창조인력 관련업종이 이전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 홍대문화의 영향권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카페나 아틀리에, 패션업종을 통틀어 작업실, 사무실과 판매업을 한 공간에서 꾸려나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가로는 서교동(동교동)⁸⁰⁾과 경계를 이루는 월드컵 북로6길에서 연남 파출소에 이르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길과 그 이면도로인 연남로 1길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이후 많은 매장들이 들어서면서 신사동 가로수길의 시작단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지만 아직은 상업화가 덜 된 쾌적한 분위기의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2011년 이후 단독주택을 허물고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어 자취생들과 게스트하우스에 임대를 주는 형태의 건물들이 급증했다. 기존의 큰 주택은 출판사가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파주 쪽으로의 이전도 일어나고 있다.

80) 2008년에 서교동으로 통합이 됨



〈그림 4-25〉 카페와 커뮤니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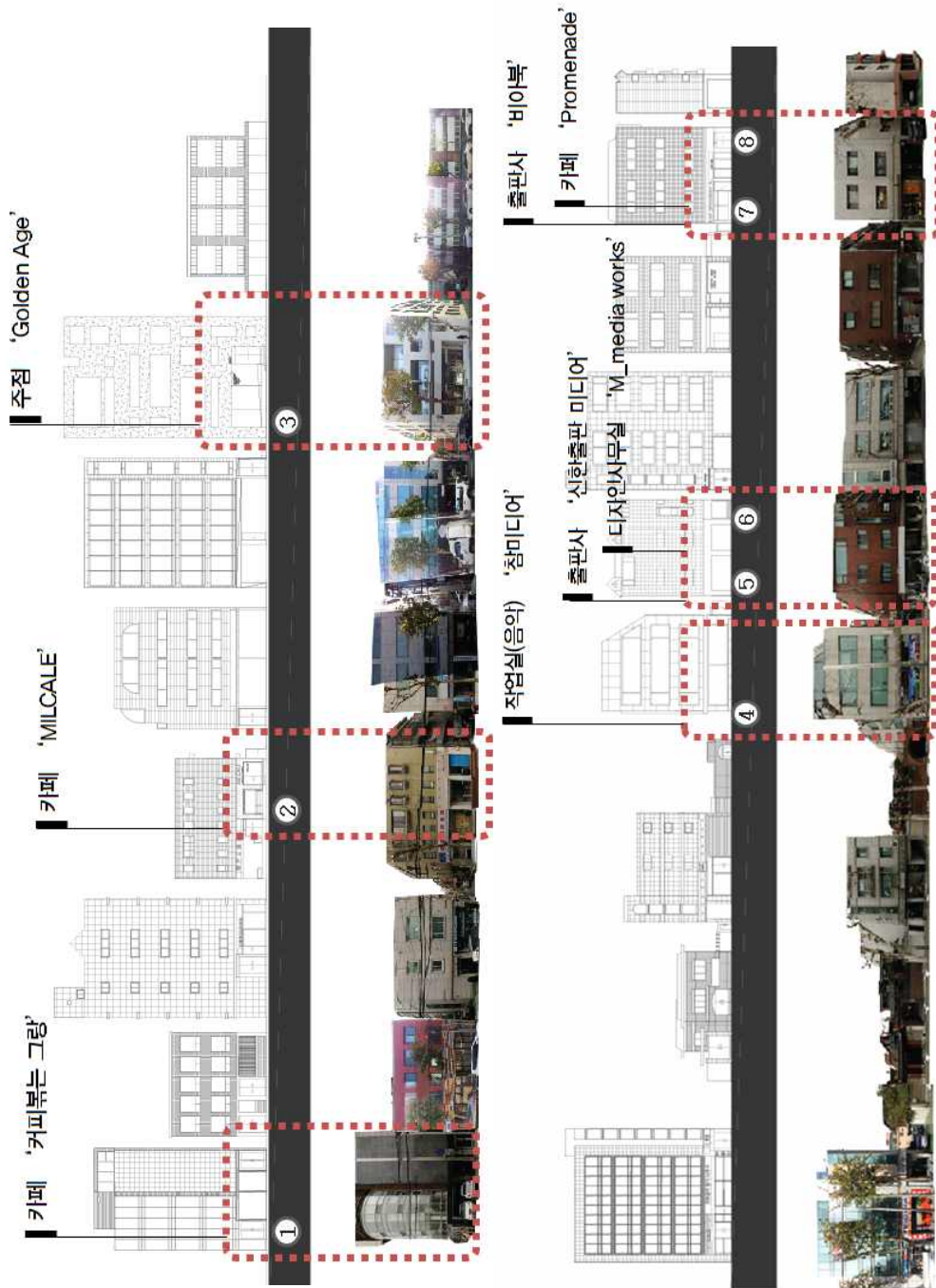


〈그림 4-26〉 책상이 있는 바

〈그림 4-27〉 경성고등학교 지역 대표가로 가로수길



〈그림 4-28〉 경성고등학교 지역 대표가로 가로수길 입면도



② 경성고등학교 주변 대표가로, 가로수길

경성중고등학교 주변이 대표가로는 월드컵 북로 6길에 위치한 가로수길이다. 연남동 남쪽으로 동교동과 맞닿은 부분에 500미터 가량의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가로수길이 형성되어 있다. 4-5년 전까지만 해도 오래전부터 있던 동네 식당 몇 개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대략 20-30개의 새로운 창조인력 관련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점점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사동 가로수길과 비교하여 신흥 상권으로 일컬어지며 연남동 가로수길이라고 부른다. 이 길은 경성고 지역의 대표적인 도로변 상권으로 크고 작은 카페와 술집, 음식점들은 이곳에 거주하는 디자이너들과 출판인들, 주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고루 이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화가, 영화, 음악가 등은 비교적 큰 상권인 이 곳 보다는 뒷 골목에 위치한 작고 조용한 카페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지역은 경의선 공원 부지를 중심으로 나뉘는데 이 지역의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반대편 기사식당, 휴먼타운 지역을 잘 인지하기 못하거나 거의 가지 않는 응답자들이 많이 있었다. 경의선 철도부지와 코롱아파트에 의해 양분되어 있는 연남동의 지형적 특성이 사람들의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2) 공공공간의 활용

① 가로공간 점유

연남동에서 나타나는 건물과 가로와의 관계설정은 대부분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문화소비관련 업종을 겸하는 공방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방문객에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위해 내·외관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가로와의 관계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내·외부의 경계를 소거하고 내부의 상품을 외부로 투명하게 드러내거나 담장이나 외벽을 허물고 경계를 불분명하게 한다. 외부에서의 경험은 내부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경험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공방이나 카페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물리적인 재료와 상점명칭, 제공하는 시각적인 결과물의 일체와를 정보를 동시

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상점들의 문화적 다양성은 거리를 특색 있게 바꾸며 전체적으로 창조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그림 4-29〉 상점+카페 something out



〈그림 4-30〉 작업실+매장 나무와 가죽

② 전면공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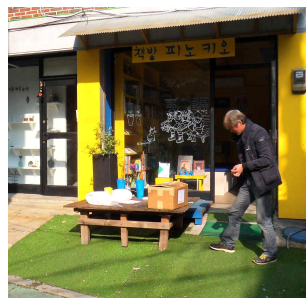
연남동에 입지한 창조인력 관련시설의 물리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전면공간에 좌석이나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내부와 외부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는 점이다. 전면공간의 테라스 좌석은 자신의 활동을 외부로 드러내 보이면서 심리적 활동공간을 가로공간까지 확장하고 있다. 길공원길 ‘E’ 카페의 전면공지에 있는 테라스 좌석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연남동만이 지니는 독특한 특성 중의 하나는 골목길 상점 주변마다 평상이 놓여 있어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구실을 하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4-31〉 주점 CUESTA



〈그림 4-32〉 카페 이심



〈그림 4-33〉 상점 피노키오

③ 근린공원 활용

근린공원이나 경의선공원화 등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더불어 자신들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있고, 시각적인 면에서나 정서적인 면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공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근린공원의 활용에 대한 입장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나뉘고 있었다. 법적으로 위배되고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어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기는 재밌는 변화로 보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그림 4-34〉 휴먼타운 길공원



〈그림 4-35〉 길공원 마켓



〈그림 4-36〉 휴먼타운

2-4. 네트워크와 협업

창조환경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창조인력은 어떤 한 지역이나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그들이 활동했던 특정한 환경이나 장소 요인이 창조적 산출물을 배출해내었던 경우가 많다. 실제 노벨상 수상자를 어떤 지역이나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배출해 낸 이유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정보교류, 네트워크, 협업과 상호작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의 사회자본의 시대에 강한 유대의 공동체적인 성질은 창조인력의 공동체 특성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창조인력의 네트워크의 핵심은 약한 유대의 느슨한 네트워크를 폭 넓게 유지하는 것이다.

연남동 지역의 「네트워크」 요인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분야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 기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자연스러운 교류와 공감의 분위기' 등의 요소가 추출되었다.

1) 새로운 분야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 기회

예술가들은 개인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장르와 프로젝트 방식의 협업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장르에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대상이나 방식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는 예술인들과 달리 공방, 아틀리에, 작업실 등의 공간을 운영하는 응답자들은 대부분이 서로간의 소통이나 협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공방이나 카페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연스럽게 방문자로 서로 만나게 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을 하거나 카페나 바, 공방등 공간을 중심으로 창작자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었다. 반면에 혼자 공간을 운영하거나 수제음식, 핸드메이드 공예 등 장인정신을 가지고 일에 몰두하는 응답자들은 여가시간도 일에 매진해야한다는 답변들이 많았다. 따라서 연남동 내의 공방과의 교류가 많고 서로의 공간에 가거나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협업의 기회를 삼기도 하였다. 서로의 공간들에 모여 토론을 하고 교육이나 체험의 기회를 갖거나 같이 협업을 도모하는 활동들이 두드러진다. 카페, 공방에서 전시회를 열고, 영화를 상영하는 등의 작은 규모의 문화 활동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2) 자연스러운 교류와 공감: 예술가들의 매개공간으로서 카페 및 주점

레이 올텐버그는 『아주 멋진 장소(A Great Good Place)』에서 소위 현대 사회의 '제3의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제3의 장소는 집도 직장도 아니고 우리가 형식적인 지인들을 덜 만나는 커피숍, 서점, 카페 같은 장소를

의미한다. 올덴버그에 따르면 이러한 제3의 장소는 사람들이 ‘단지 좋은 친구들과 활발한 대화를 만끽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사회적 활력을 제공하는 공동체의 심장’으로 구성된다. 올덴버그는 포커스 그룹과 인터뷰한 사람들은 그러한 제3의 장소가 공동체를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Florida, 2011) 제 3의 장소는 지인들을 만나고 인간 교류를 할 편리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공허감을 메워 준다. 제3의 장소의 중요성은 또한 일의 속성이 변했고 새로운 유형의 네트워크와 교류를 원하기 때문이다.

연남동 카페의 특징은 단골카페나 주점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가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며, 서로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에 대해 인정하고, 위안을 받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각자의 작업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곳의 예술가들은 홍대 앞보다는 근처인 동진시장이나 연남동 일대의 음식점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새로 생긴 음식점이나 주점 외에 화교거리의 중국음식점, 기사식당을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교류는 홍대 전반에 걸쳐 있는 같은 부류의 예술가들과 나누고 있고, 디자인, 영화, 음악, 미술, 문학 등 장르의 구별 없이 여러 장르의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만나고 있었다.

연남동에는 전문가들이 직접 매장에서 커피를 볶아 커피와 커피용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강의를 개설하기도 한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작업실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또는 동료들과 소통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개점한 카페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만든 작품을 매장에 전시 또는 판매하면서 손님들과 작품을 통해 소통을 하기도 한다. 또한 작업에 필요한 도서와 소품 등을 이용자와 공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20~30대의 젊은 작가들이다. 작업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영화감독, 배우 등이 운영하는 카페는 예술가 매개공간으로 활용된다. 만남과 토론, 강의와 공연 등의 이벤트(김신성, 2013)를 기획하기도 한다.

“부암동 ‘클럽 에스프레소’ 카페에서 5년 동안 직원으로 일을 했고, 그 후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1년 동안 카페를 직접 운영했었어요. 그리고 연남동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저는 카페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안에서 의견들이 공유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카페가 뭔가 느슨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의 커피는 소통의 도구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나 카페가 갖는 커뮤니티 기능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드립커피를 오래 하다 보니 저만의 커피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단골손님들이 예술가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 이곳으로 이전했을 때 골목길 외진 곳이라 단골손님이 다시 찾아주실지 걱정했는데 다행이도 10명중 6~7명은 이곳까지 와주시더군요.”

카페 E' 운영자, 2013. 10.

“홍대근처에 있으면서 전통시장의 옛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점이 신기하고 좋았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정제되어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제게 향수를 불러 일으켰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전통시장을 좋아하기도 해서 이곳에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월세가 싸잖아요. 그리고 지금 홍대 앞의 퇴폐적인 환경에 염증을 느껴서 연남동으로 온 이유도 있겠죠. 손님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시실리포차)에서 술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 동네는 월세가 싸기 때문에 음악 연습실이나 작업실이 많아요. 제가 교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가 이 동네에서 작업하는 아티스트들이나 주변 매장 주인들의 술 마시는 아지트예요.” ... “이곳은 느슨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끼리끼리 술 마시다가 서로서로 아는 척하고, 다양한 장르의 작업하는 친구들이 편하고 부담 없이 합석하고 아는 척하고 지내고 있죠. 아무래도 저희 집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끼리 따로 왔다가 인사도 하고 합석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죠.”

‘S’ 포차 운영자, 2013. 10.

“우선 연남동 사람들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커피든 술이든. 이렇게 커피 가게 많은 데가 없는데 다 돌아가고, 잘 놀고. 술도 어마어마하게 마시고 마시는 거 일등이에요. 또 이 주변은 예술하는 친구들 특히 영화하는 사람들 많이 살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술을 못 사서 먹잖아요. 가끔 술도 먹고 하는 데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안타깝죠. 저는 일할때도 수시로 술 먹어요. ... 이 동네 사람들은 언제나. 자유로워요. 낮이고 밤이고 그런 것도 없고 되게 잘 즐기는 것 같아요. 한량들이죠. 작업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한이 없잖아요. 음악 듣는 것도 다 좋아하고 다 예술가 같아요. 우리가계에서 서로 다른 장르의 사람들이 어울리고 놀고 배우고 그런 게 중요하죠. 이런 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런 거죠.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주고 인맥을 넓힐 수 있게 만드는 것.”

‘카페 U’ 대표, ‘S’ 포차 운영자, 2013. 10.

그러나 연남동에는 아직 창조인력들 간의 공식적인 모임 단체나 조직은 결성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연남동에 창조인력들이 이전이 활발해진 시기가 3~4년의 기간에 불과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인터뷰 결과 예술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창조인력들은 느슨하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특히 대규모의 주민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연스럽게 못하고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기획에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의 의견으로 이끌어가는 단체나 커뮤니티 결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작은 공간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이벤트와 봉사 등의 진정성 있는 커뮤니티 활동에는 동의하는 의사를 보였다. 주민들과의 교류 및 소통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류와 활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커뮤니티 아트 등의 작업 방식으로의 교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시각들도 존재하였다.

2-5. 관용적 요인

창조환경의 또 다른 요인인 관용 요인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

다.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정서나 분위기와 관련한 특징은 매우 추상적이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이나 환경이 가지고 구성원들의 속성일수도 있고 구체적인 제도나 지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요인은 다양성, 개방성, 유연성, 자율성, 즉흥성 등의 다양한 속성을 개별적인 요소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관용(Tolerance)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많은 속성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관용적인 정서’ 요인이란 어떤 한 지역이나 환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개방적인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인정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며 유연하고 즉흥적인 ‘허용’의 개념을 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종교나 인종에 대한 ‘자유와 관용’, ‘자율’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란 대개의 경우 인종, 종교, 관습, 신념, 문화 등 외부 또는 외부인에 대한 다양성과 개방적 성질을 의미한다.

연남동의 경우에 「관용」 요인을 이루는 요소들로는 ‘게스트하우스 증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 ‘2-30대 젊은이 유입’ 같은 젊고 다양한 인종의 유입과 함께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분위기’,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위기’, ‘실험성을 허용하는 분위기’, ‘진취적이고 활기찬 분위기’ 등의 정서적 요인이 함께 도출되었다.

1)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분위기

연남동의 정서 중에서 대표적인 특징은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지역주민들의 정서이다. 이는 주변에 화교타운이 있어서 본래 외지인에게 개방적인 특성을 지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많아서 정감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주민들의 성격 때문이다. 대규모 지역개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 놀랍다는 의견도 있다. 외부 인력의 유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 평화로운 느낌이지만, 지나친 상업화만 아니면 창조인력 관련업종의 증가에 대한 기존 주민들의 입장은 호의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랜 단골이자 사랑방과 같은 커뮤니티

티 공간이었던 돼지갈비집, 홍어집, 철물점, 미용실 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출하였다. 아직은 주민들과 창조인력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이런 마을 같은 느낌이 좋아서 들어온 성향의 공방, 책방, 디자인사무실, 카페, 음식점 등이 모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비교적 자주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술가들의 주민에 대한 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친근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곳에 최초로 입점한 복합문화공간 ‘플레이스 M’은 대안공간으로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교류에 적극적이었다. 카페나 바 같은 경우엔 동네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공방 등에도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고 있는데 연남동 원주민들이 다른 곳보다 열려있는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 다양성과 실험성의 허용

이 지역의 정서 또는 분위기, 공동체적 특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실험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이 모인 점에서 다양하게 느끼고, 공동체적 행사 진행이나 협업 등에 대해서는 실험적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창작활동을 위한 교류에서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각자의 작업에서는 뚜렷한 개성을 나타내고 사적인 관계에서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 이곳 창조인력 관련업종의 운영자들의 공통점은 상업적인 관점에서 매장의 활성화보다는 자기만의 개성과 철학의 실천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롭고 열려있고 잘 놀고 유연하며 재미있는 인력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다.

3) 마을 공동체의 발달

창조인력의 네트워크가 약하고 유연하고 개인적인 것에 비해서 연남동의 주민들이 주축이 된 마을 공동체의 특성은 강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전통적

인 공동체가 발달된 편이다. 연남동에는 가장 먼저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만든 지역잡지가 있으며 ‘줌마네’라는 아줌마들의 커뮤니티 사업체도 존재한다. 연남동에 소재한 ‘잔디네’는 국내 유일의 근육디스트로피 장애청소년 그룹 홈 공동체이다. 진행성 장애인 근육디스트로피 장애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하다. 소규모 그룹 홈에는 국가지원이 전혀 없어 후원금과 입소된 아이들이 내는 생활비로 충당한다. 이는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시골 같이 조용하고 차분하면서 오래된 원주민이 많아 인정이 살아있는 주민들의 성향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연남동에도 사회적 기업가, 예술가, 마을운동가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다. 인근에 성미산마을공동체가 있고 최근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일상예술창작센터도 연남동에 위치하였다. 일상생활창작센터에서 운영하는 새끼공방은 시민과 창작자가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창작공방이다. 흥대 놀이터의 프리마켓 활동을 주관하는 일상생활창작센터가 주관하는 연남동 마을시장의 경우에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유기농 직거래 장터이다. 직접 키운 농산물로 요리재료와 유기농 요리를 만들고 파티를 여는 마르쉐 장터나 도시에서 새로운 유형의 장터가 등장하면서 유통이나 소비의 구조도 많이 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렇게 각자의 생산물을 선보이며 축제도 하는 장터가 확장되고 있다.



〈그림 4-37〉 연남마에스트로 회원들
연남동 지도 바느질 제작



〈그림 4-38〉 일상예술창작센터
연남마을시장 포스터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서 생활예술과 창작활동을 함께하는 ‘연남마에스트로’ 회원들은 함께 벽화를 그리고 바느질을 하고 마을 벤치를 만든다. 연남마에스트로를 운영하는 일상예술창작센터 신문자 교육팀장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 자기 손으로 뭔가를 직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모임에서 손으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은 않다. 연남마에스트로 회원들은 손노동을 매개로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를 통해 즐거움⁸¹⁾을 얻는다. 최근에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나 디자이너와 협업해 재미있고 좋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소비하도록 생산자와 판매자가 협업하는 시장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연남동에는 명랑에너지발전소⁸²⁾와 찜지농부⁸³⁾가 주최하여 연남동 동진시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2013년 11월 목공소⁸⁴⁾, 철물, 직물, 오픈치킨 등의 총 9개 팀으로 나누어 각자 맡은 부스를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예술장터가 동진시장에 오픈되었다.

4) 지역 개발과 변화에 대한 입장

연남동의 변화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있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문화적으로 독특하고 창조적인 동네 분위기가 스스로 조성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흥대 앞처럼 상업화가 진행되고 창조환경이 퇴색하고 변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개발과 자본의 유입으로 상업화가 진행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결국 창조인력은 또 다시 타 지역으로 밀려 갈 것이라는 우려와

81) 신윤동욱, 아마추어의 창세기를 만들어라, 만들어질 것이다. 한겨레 21, 2013, 5.27.

82) ‘문화로 놀이짱’은 오래된 가구 등 버려지는 목재들로 생산과 소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디자이너들의 공동체. 사회적기업 문화로 놀이짱이 운영하는 명랑에너지발전소’는 마을 작업장으로 버려진 가구와 물건들에 쓸모있는 에너지를 더하는 제작소다. 재활용 가능한 목재들의 창의적 활용방안을 궁리하는 ‘재료들의 도서관’,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의 도서관’, 책과 자료가 모여 있는 커뮤니티 공간 ‘메뉴얼 도서관’으로 구성돼 있음.

83)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텃밭을 일구는 찜지의 천호균 대표가 생활예술 중심의 작가공방 ‘일하자’와 ‘오가닉 튼튼식당’, 논밭예술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음. 지자체와 개인 농가경영, 디자인컨설팅을 하는 사회적 기업 ‘이다.

84) 썸뽕아웃은 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목공방을 운영한다.

함께 주민들과 상인들의 인식이 홍대와 많이 달라서 스스로 자정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남동의 변화는 홍대문화의 팽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지만 연남동의 문화가 홍대문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 즉 연남동은 연남동만의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연남동이 고유한 정체성과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장소(hot Spot)를 기반으로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물리적인 개발과 상업화는 막을 수 없지만 지역 내 창조인력에 대한 지원과 이니셔티브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하였다. 한편으로는 경의선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

2. 소결

연남동 창조환경의 특성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중복적으로 응답된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도출되었다. 이 중에서 ① 독창적인 영역과 관련한 요소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창작인력’과 더불어 유통 및 소비와 관련한 ‘문화매개 인력’의 유입, ‘자유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창조인력의 집적, ‘독특하고 예술적인 문화공간’, ‘작업실과 문화소비업종의 복합공간’, ‘이국적인 음식문화의 발달’ 등이 있다. ② 시장 기능과 관련한 요소는 ‘교통의 편리함과 뛰어난 접근성’, ‘홍대 문화의 영향권 내 위치’, ‘저렴한 임대료’ 등의 요소가 도출되었다. ③ 문화환경과 관련한 요소는 연남동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특성들이 응답되었는데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을 분위기’, ‘저층 구조의 주거단지’, ‘오래된 주택과 연립’, ‘공공공간의 활용’, ‘가로수길과 경의선길 공원화’, ‘휴먼타운’, ‘기사식당거리’, ‘화교거리’, ‘동진시장’, ‘화교문화’ 등의 요소들이 있다. ④ 네트워크 요인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분야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 기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자연스러운 교류와 공감의 분위기’ 등의 요소가 추출되었다. ⑤ 관용적 정서 요인을 이루는 요소들로는 ‘게스트하우스 증가’, ‘외국인 관광객

들의 증가’, ‘2-30대 젊은이 유입’ 같은 젊고 다양한 인종의 유입과 함께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분위기’,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위기’, ‘실험성을 허용하는 분위기’, ‘진취적이고 활기찬 분위기’ 등의 정서적 요인이 함께 도출되었다. <표4-4>

〈표 4-4〉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 요소

	창조환경 특성 요소
독창 영역	다양한 장르의 예술창작인력 유입 (음악, 미술, 작가, 영화 등)
	문화기획/매개 인력 유입 (기획자, 제작자 등)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주자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독특하고 예술적인 문화 공간 (카페, 공방, 작업실 등)
	작업실과 문화소비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트렌드
	이국적인 독특한 음식문화 발달
시장 기능	교통의 편리함과 뛰어난 접근성
	홍대 문화의 영향권 내 위치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문화 환경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을 분위기
	저층 구조의 주거 단지
	오래된 주택과 빌라/연립
	가로/공공 공간의 적극적 활용 (카페, 장터)
	가로수길과 경의선 공원화
	휴먼 타운 (주거환경관리사업)
	기사식당 거리
	화교 거리
	동진 시장
	화교 문화 (중국 음식, 가옥 등)
네트워크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 기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및 참여
	자연스러운 교류와 공감의 분위기
관용적 정서	게스트 하우스 증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
	20-30대 젊은이들의 유입
	이주민/방문객에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위기
	실험적인 시도를 허용하는 분위기
	진취적이고 활기찬 분위기

제5장. 연남동 창조인력의 지역 선호요인 분석과 창조환경 특성

제1절. 창조인력 지역 선호요인 조사

1. 창조환경 특성 조사

1.1. 연구방법

본 논문의 서두에 언급한대로 창조환경을 이루는 일반적인 5가지 요인은 독창적 영역, 시장기능, 문화환경, 네트워크, 관용적 정서 요인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의 구분은 일반적인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방식으로써 개별 창조환경의 특성에 대해 의미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각 요인 내에서도 다양한 차원의 창조환경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부 요소들은 다른 요인들의 세부 요소들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 요인 내에서도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가 상존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다른 특성들에 속한 각각의 요소들을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방식은 같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룹의 창조인력들을 설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창조인력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세부 요소들 사이에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구분으로는 이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새로운 방문객들의 유입은 카페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은 지가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공방이나 작업실

을 운영하는 예술가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단순히 물리적·제도적 관점이나 사회·문화적 관점으로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다양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5가지 창조환경 요인(독창영역, 시장기능, 문화환경, 네트워크, 관용적 정서)을 기반으로 연남동 창조환경의 새로운 요인들을 도출하여 다른 창조환경들과의 공통적 특성은 무엇인지, 또 연남동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와 함께 도출된 요인들을 기반으로 연남동 창조인력 그룹을 세분화(Clustering)하여 각 세분화된 그룹들의 특징과 그들이 선호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심층인터뷰를 통한 창조환경 요소 도출

설문 문항 중 연남동의 창조인력이 생각하는 ‘연남동의 창조환경 요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남동에 거주하거나 작업실을 소유하고 있는 창조인력 중 54명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인이 인지하는 연남동의 창조환경적 특성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30개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소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작성을 위해서 2장에서 분석한 창조환경 구성요인⁸⁵⁾ 5가지 특성에 맞게 재배치하였으나 이 단계에서 5요인의 구분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5-1>에 정리했다.

85) 지금 이 단계에서의 창조환경 구성요인의 구분은 큰 의미는 없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요소들의 구분을 위해서 임의로 대입해서 구분한 것임. 연남동 창조인력의 군집분석에 따른 창조환경 요인은 설문의 결과에서 새로 도출될 예정임

〈표 5-1〉 심층인터뷰 결과 추출된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 요소

창조환경 성 요인	특 성	특성요소
독창영역		다양한 장르의 예술창작인력 유입 (음악, 미술, 작가, 영화 등)
		문화기획/매개 인력 유입 (기획자, 제작자 등)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주자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독특하고 예술적인 문화 공간 (카페, 공방, 작업실 등)
		작업실과 문화소비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트렌드
		이국적인 독특한 음식문화 발달
시장기능		교통의 편리함과 뛰어난 접근성
		홍대 문화의 영향권 내 위치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문화환경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을 분위기
		저층 구조의 주거 단지
		오래된 주택과 빌라/연립
		가로/공공 공간의 적극적 활용 (카페, 장터)
		가로수길과 경의선 공원화
		휴먼 타운 (주거환경관리사업)
		기사식당 거리
		화교 거리
		동진 시장
		화교 문화 (중국 음식, 가옥 등)
네트워크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 기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및 참여
		자연스러운 교류와 공감의 분위기
관용적 정서		게스트 하우스 증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
		20~30대 젊은이들의 유입
		이주민/방문객에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위기
		실험적인 시도를 허용하는 분위기
		진취적이고 활기찬 분위기

1. 3. 조사방법

설문의 문항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성, 작업 특성, 연남동에 대한 인식, 창조환경 요소 선호의 4항목으로 구성된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소득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창조 작업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요 작업 장르, 작업 방식, 작업실 형태를 조사하였다. 연남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장소/거리에 대한 의견,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 연남동을 알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창조환경 요소 선호의 경우 앞서 사전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30개 요소에 대한 설문 대상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 중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 및 창조환경 요소 선호 관련 항목은 7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동시에 진행했다. 오프라인 설문의 경우 조사원을 활용하여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7일간 진행했으며 연남동 내 주요 지역인 동진시장, 휴먼타운, 경성중고등학교 주위에 위치한 예술가를 포함한 창조인력 관련업종 작업실 및 매장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경우, 오프라인 설문 진행이 어려운 대상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인터뷰 응답자 중 희망자에 한해 설문 링크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종합하여 배포한 230부 중에서 총 20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미완료 설문 및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유효 응답수는 170부로 이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창조환경 특성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 분석을 통해 설문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연남동 창조환경 요소별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요인 분석의 결과로 추출된 요인 점수를 이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연남동 내 창조인

력 세부 그룹을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1.1. 연구 방법

① 요인 분석 (Factor Analysis)

요인 분석은 다수의 측정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수의 요인(factors)들로 축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통계 기법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 없이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변수들의 토대를 이루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요인 분석은 주어진 자료 자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결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에 관한 추정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계통계기법이 아닌 기술통계기법으로써 모수와 통계량, 가설검증 등의 개념은 요인분석에 적용되지 않는다. 요인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등간척도 또는 비율척도로 측정한 변수를 사용해야 하며, 표본의 수는 변수의 수 대비 최소한 5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 또한 요인분석의 목적 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낮다면 그 데이터는 요인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요인분석시 요인 추출을 위해서는 주성분 분석과 공통요인분석의 두 가지 방식이 사용 가능하다. 주성분 분석 방식은 기존 변수들의 전체 분산 중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공통 요인 분석 방식은 주성분 분석 방식과 달리 전체 분산이 아닌 공통 분산을 기준으로 요인을 도출하며 기존 변수들의 토대가 되는 잠재 차원들을 찾아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에 적절하다. 추출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고유값(Eigenvalues)을 활용하는 방식 또는 전체 요인들의 설명력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 등이 있다. 고유값(Eigenvalues)은 한 요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데 한 요인에 대한 "요인 적재 값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하며 보통 고유값(Eigenvalues)이 1 이상을 갖는 요

인의 수만큼 추출한다. 전체 요인들의 설명력 기준이란 요인들의 설명력 합이 수준을 정한 뒤, 그 수준의 설명력을 보일 수 있는 수의 요인을 추출하는 것인데 주로 60%를 그 기준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는 탐색적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주성분 분석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배리맥스(Varimax) 직각 회전 방식을 적용하여 1 이상의 고유값(Eigenvalues)을 갖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② 군집 분석 (Cluster Analysis)

군집분석은 다수의 대상(본 논문에서는 설문 대상)들을 그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기준으로 유사한 대상들끼리 그룹화하는 통계 기법으로 군집 분석을 통해 형성된 두 개 이상의 각 그룹을 군집(cluster)이라고 한다. 군집분석의 핵심은 군집 내의 대상들은 최대한 유사하게 그리고 군집들 사이는 최대한 상이하게 구성하는 데에 있다. 군집분석의 방식에는 크게 계층적 군집화와 비계층적 군집화가 있으며 계층적 군집화는 개별 대상 간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트리 모양의 계층 구조를 상향식으로 형성해가는 방식이며, 비계층적 군집화는 구하고자 하는 군집의 수를 정한 상태에서 정해진 군집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대상을 하나씩 포함해 가는 방식으로 군집을 구성한다. 비계층적 군집화의 경우 몇 개의 군집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결과를 보다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각 군집의 특징과 시사점을 가장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구자가 스스로 군집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계층적 군집화의 대표적인 방식인 K-평균 군집분석 (K-means Clustering) 방식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③ 회귀 분석 (Regression Analysis)

회귀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독립 변수의 값에 대응하는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모형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독립 변수의 개수에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수의 수가 하나인 경우)과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의 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으로 구분되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 관계 여부에 따라 선형회귀분석과 비선형회귀분석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가정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남동 창조환경 요인 선호도와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2절. 연남동 창조인력 지역 선호요인과 창조환경 특성

1. 설문 응답자의 일반 특성

설문에 참여한 연남동 창조인력 17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여성’의 비율이 62%(106명)로 ‘남성’(64명, 38%)보다 1.5배 가량 많았고, ‘미혼’이 116명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연령의 경우 ‘20,30대’가 전체의 76%(130명)을 차지해 상당히 젊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이 83%(141명)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월평균소득의 경우 ‘101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응답자들이 54%(97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방식의 경우, ‘개인 작업’을 하는 비율이 58%(96명)으로 ‘공동 작업’을 하는 비율(39%)에 비해 높았고, 작업 형태의 경우 ‘문화예술창작’(24%), ‘카페 및 음식점 영업’(18%), ‘문화예술매개’(1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형태의 경우 ‘연립/다세대 주택 개조’(28%), ‘단독주택’(25%), ‘상업용 빌딩’(21%) 순으로 일반적인 사무 공간보다 주택을 활용한 작업 공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남동 창조인력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5-2>에서 정리하였다.

〈표 5-2〉 연남동 창조인력 일반 특성

구분	보기	빈도수(명)	비율
성별	남	64	38%
	여	106	62%
결혼 여부	전체	170	100%
	미혼	116	68%
	기혼	50	29%
	기타	4	2%
	전체	170	100%
연령	20대	45	26%
	30대	85	50%
	40대	31	18%
	50대 이상	8	5%
	전체	170	1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	11%
	대학교 재학	9	5%
	대학교 졸업	110	65%
	대학원 재학 이상	31	18%
	기타	2	1%
	전체	170	1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9	17%
	101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63	37%
	201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34	20%
	301만원 이상 - 400만원 이하	14	8%
	401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7	4%
	500만원 이상	8	5%
	기타	15	9%
	전체	170	100%
작업 방식	개인작업	98	58%
	공동작업	66	39%
	기타	6	4%
	전체	170	100%
작업 형태	문화예술창작 (예술가, 작가)	41	24%
	문화예술기획 (기획자, 프로듀서)	26	15%
	창작공방 및 매장 운영	21	12%
	문화공간운영 (갤러리, 연습실 등)	4	2%
	작업실 + 카페 및 음식점 운영	16	9%
	카페 및 음식점 운영	31	18%
	기타	31	18%
	전체	170	100%
거주지 형태	단독주택	42	25%
	단독주택/빌라 개조	27	16%
	연립/다세대주택 개조	47	28%
	상업용 빌딩	35	21%
	기타	19	11%
	전체	170	100%

2. 연남동 창조환경 요인분석

사전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연남동 창조환경의 30개 요소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3>은 개별 요소에 대한 선호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정리한 것으로, 연남동 창조인력들은 연남동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을 분위기’, ‘독특한 문화 공간 (카페, 공방, 작업실 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예술가/작가 등 다양한 창작 인력 유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반면 상대적으로 ‘휴먼 타운 (주거환경관리사업)’, ‘동진 시장’, ‘화교 문화 (중국 음식, 가옥 등)’, ‘오래된 주택과 빌라/연립’, ‘기사식당 거리’, ‘게스트 하우스 증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편차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화교 문화 (중국 음식, 가옥 등)’, ‘기사식당 거리’,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저층 구조의 주거 단지’, ‘화교 거리’, ‘게스트 하우스 증가’ 등이 높은 표준 편차 값을 보여 다른 요소들에 비해 선호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특한 문화 공간 (카페, 공방, 작업실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위기’,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을 분위기’, ‘이주민/방문객에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자연스러운 교류와 공감의 분위기’, ‘작업실과 문화소비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트렌드’, ‘예술가/작가 등 다양한 창작 인력 유입’ 등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비슷한 선호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에 대한 선호도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 (선호도 순)	평균 (7점 만점)	표준편차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을 분위기	5.87	1.224
독특한 문화 공간 (카페, 공방, 작업실 등)	5.80	1.209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5.70	1.341
예술가/작가 등 다양한 창작 인력 유입	5.63	1.296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5.52	1.355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위기	5.50	1.212
양질의 독특한 음식문화 발달	5.39	1.484
작업실과 문화소비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트렌드	5.34	1.292
자연스러운 교류와 공감의 분위기	5.30	1.268
실험적인 시도를 허용하는 분위기	5.27	1.362
교통의 편리함과 뛰어난 접근성	5.21	1.526
가로/공공 공간의 적극적 활용 (카페, 장터)	5.20	1.462
가로수길과 경의선 공원화	5.15	1.580
이주민/방문객에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5.15	1.240
저층 구조의 주거 단지	5.15	1.616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5.14	1.632
문화매개인력 유입 (기획자, 제작자 등)	5.07	1.552
진취적이고 활기찬 분위기	5.04	1.360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 기회	4.98	1.501
홍대 문화의 영향권 내 위치	4.83	1.423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및 참여	4.83	1.515
20-30대 젊은이들의 유입	4.70	1.587
휴먼 타운 (주거환경관리사업)	4.25	1.479
동진 시장	4.22	1.574
화교 문화 (중국 음식, 가옥 등)	4.22	1.687
오래된 주택과 빌라/연립	4.11	1.523
기사식당 거리	4.10	1.649
게스트 하우스 증가	4.09	1.628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	4.05	1.585
화교 거리	3.96	1.649
총 평균	4.96	1.460

각 요소별 선호도 평균과 표준편차의 총 평균값(각각 4.96, 1.460)을 기준으로 2X2 (선호도 고/저 X 편차 고/저) 매트릭스를 구성해 보면 총 4개의 그룹을 도출할 수 있다.

선호도도 낮고 편차도 낮은 그룹은 설문 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요소로 ‘홍대 문화의 영향권 내 위치’가 유일하게 위치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연남동 창조인력들이 연남동을 홍대 문화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기 보다는 새로운 문화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호도는 낮지만 편차가 높은 그룹에는 ‘기사식당 거리’, ‘오래된 주택과 빌라/연립’, ‘화교 문화’, ‘휴먼 타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이 속해 있다. 이 그룹에 속한 요소들은 설문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선호도는 낮은 편이지만, 일부 창조인력들의 경우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그룹에 속한 요소들은 다른 창조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연남동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호도는 높고 편차는 낮은 그룹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을 분위기’, ‘독특한 문화 공간 (카페, 공방, 작업실 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예술가/작가 등 다양한 창작 인력 유입’,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그룹은 대부분의 연남동 창조인력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요소들로 연남동 창조환경의 중심 특성이라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호도와 편차가 모두 높은 그룹은 ‘양질의 독특한 음식문화 발달’, ‘교통의 편리함과 뛰어난 접근성’, ‘가로/공공 공간의 적극적 활용 (카페, 장터)’, ‘가로수길과 경의선 공원화’, ‘저층 구조의 주거 단지’,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등의 요소가 속해 있다. 이 그룹은 전반적으로 연남동 창조인력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요소들로 일부 창조인력들에게는 추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그룹에 속한 요소들의 목록은 <표 5-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4> 선호도 및 편차에 따른 연남동 창조환경 요소 구분

	선호도 저	선호도 고
편차 고	(선호도 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및 참여 20-30대 젊은이들의 유입 휴먼 타운 (주거환경관리사업) 학교 문화 (중국 음식, 가옥 등) 동진 시장 오래된 주택과 빌라/연립 기사식당 거리 게스트 하우스 증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 학교 거리	(선호도 순) 양질의 독특한 음식문화 발달 교통의 편리함과 뛰어난 접근성 가로/공공 공간의 적극적 활용 (카페, 장터) 가로수길과 경의선 공원화 저층 구조의 주거 단지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문화매개인력 유입 (기획자, 제작자 등)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 기회
편차 저	홍대 문화의 영향권 내 위치	(선호도 순)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을 분위기 독특한 문화 공간 (카페, 공방, 작업실 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예술가/작가 등 다양한 창작 인력 유입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위기 작업실과 문화소비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트렌드 자연스러운 교류와 공감의 분위기 실험적인 시도를 허용하는 분위기 이주민/방문객에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진취적이고 활기찬 분위기

본격적인 요인분석에 앞서 본 설문 데이터가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데에 적절한 자료인지, 즉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865)와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유의확률 $p < .001$)를 체크하였고 그 값들이 각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KMO 및 Bartlett 검정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86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2617.086
	df	435
	Sig.	.000

앞서 밝힌 대로 본 연구에서는 배리맥스 직각회전 방식을 활용한 주성분 분석 방식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0개의 변수가 총 8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추출된 8개의 요인은 전체 분산의 69% 이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요인분석을 통해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제곱합적재값			회전제곱합적재값		
	합계	분산 (%)	누적 (%)	합계	분산 (%)	누적 (%)	합계	분산 (%)	누적 (%)
1	9.585	31.949	31.949	9.585	31.949	31.949	5.457	18.190	18.190
2	2.643	8.810	40.759	2.643	8.810	40.759	3.712	12.373	30.563
3	2.103	7.010	47.769	2.103	7.010	47.769	2.587	8.624	39.187
4	1.667	5.557	53.326	1.667	5.557	53.326	1.981	6.604	45.791
5	1.354	4.514	57.840	1.354	4.514	57.840	1.920	6.400	52.191
6	1.221	4.069	61.910	1.221	4.069	61.910	1.742	5.808	57.998
7	1.120	3.732	65.642	1.120	3.732	65.642	1.732	5.774	63.772
8	1.023	3.409	69.051	1.023	3.409	69.051	1.583	5.278	69.051
.									
.									
.									
30	.116	.386	100.000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요인 1은 창조환경의 핵심 요소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예술가/작가 등 다양한 창작 인력 유입’,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 기회’ 등의 8개 요소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위기’, ‘이주민/방문객에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포함한 5개 요소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화교 거리’, ‘기사 식당 거리’를 포함한 4개 요소로 구성되었다. 요인 4는 ‘오래된 주택과 빌라/연립’, ‘저층 구조의 주거단지’,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을 분위기’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5는 ‘게스트 하우스의 증가’ 등을 포함한 3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요인 6은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포함한 3개 요소, 요인 7은 ‘휴먼 타운 (주거환경관리사업)’를 포함한 2개 요소, 마지막 요인 8은 ‘홍대 문화의 영향권 내 위치’를 포함한 2개 요소로 구성되었다. 도출된 요인들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Cronbach α) 값을 구한 결과 대부분이 탐색적 연구에서의 판정 기준값인 0.6 이상을 기록했으나 요인 6과 요인 8의 경우, 각각 0.599, 0.581의 값을 지니므로 추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각 요인별 구성 요소와 크론바하 알파 값은 표0에 정리되어 있다.

〈표 5-7〉 회전된 성분행렬

	Component							
	1	2	3	4	5	6	7	8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831	.279	-.02 ₉	.233	.054	.057	.055	.023
예술가/작가 등 다양한 창작 인력 유입	.828	.230	.085	.086	.056	.177	.131	.064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824	.236	.026	.215	.043	-.01 ₂	.037	.070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 기회	.716	.215	.032	-.00 ₉	.201	.061	.078	.071
독특한 문화 공간 (카페, 공방, 작업실 등)	.708	.122	.015	.086	.177	.234	.316	.057
문화매개인력 유입 (기획자, 제작자 등)	.694	.150	.071	-.13 ₆	.087	.107	.128	.244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및 참여	.538	.400	.021	-.19 ₄	.121	.120	.257	.006
작업실/문화소비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트렌드	.537	.363	-.05 ₅	.112	.072	.149	.210	.148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위기	.228	.817	.065	.153	.055	.117	-.07 ₅	.165
이주민/방문객에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151	.710	.023	.248	.144	.049	-.07 ₂	.244
실험적인 시도를 허용하는 분위기	.387	.697	.101	.127	.060	-.05 ₁	.094	.032
자연스러운 교류와 공감의 분위기	.446	.692	.018	.161	.023	.080	.175	-.04 ₇
진취적이고 활기찬 분위기	.268	.687	-.02 ₅	-.13 ₁	.040	.040	.236	-.04 ₃
화교 거리	.041	-.00 ₁	.922	.092	.027	.021	.043	.008
기사식당 거리	-.10 ₀	-.08 ₃	.821	.054	.125	.055	.033	-.05 ₈
화교 문화 (중국 음식, 가옥 등)	.119	.160	.790	-.01 ₁	-.04 ₄	-.01 ₁	-.04 ₇	.231
동진 시장	.190	.297	.460	.400	-.08 ₁	-.03 ₆	.303	-.11 ₆
오래된 주택과 빌라/연립	.033	.045	.089	.824	-.05 ₉	.026	-.02 ₄	.008
저층 구조의 주거 단지	.060	.119	.072	.671	.116	.196	.137	-.11 ₀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을 분위기	.314	.279	-.03 ₀	.520	-.12 ₃	.257	.050	.286
게스트 하우스 증가	-.01 ₂	.069	-.08 ₄	-.00 ₃	.797	.079	.279	-.07 ₃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	.307	.100	.148	-.03 ₆	.774	.006	.014	.150
20-30대 젊은이들의 유입	.447	.093	.107	.046	.594	.061	-.07 ₅	.268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091	.084	.144	.152	-.06 ₆	.812	.002	-.03 ₉
교통의 편리함과 뛰어난 접근성	.228	.011	-.07 ₈	.140	.156	.716	.033	.152
가로/공공 공간의 적극적 활용(카페, 장터)	.304	.282	-.05 ₉	-.06 ₇	.218	.430	.410	-.03 ₇
휴먼 타운 (주거환경관리사업)	.320	.040	.059	.150	.128	-.08 ₆	.758	.198
가로수길과 경의선 공원화	.262	.170	.090	.076	.130	.202	.598	.342
홍대 문화의 영향권 내 위치	.193	.048	-.00 ₉	-.05 ₄	.171	-.02 ₈	.222	.769
양질의 독특한 음식문화 발달	.129	.427	.311	-.00 ₈	-.02 ₅	.220	.135	.595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표 5-8〉 창조환경 구성요인 세부 요소

창조환경 요인 (세부 요소 수)		세부 요소	신뢰도 (α)
1	(8) 독창적 영역 (네트워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예술가/작가 등 다양한 창작 인력 유입,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 기회, 독특한 문화 공간 (카페, 공방, 작업실 등), 문화매개인력 유입 (기획자, 제작자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및 참여, 작업실&문화소비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트렌드	.913
2	(5) 관용적 정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위기, 이주민/방문객에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실험적인 시도를 허용하는 분위기, 자연스러운 교류와 공감의 분위기, 진취적이고 활기찬 분위기	.865
3	(4) 전통적 문화	화교 거리, 기사식당 거리, 화교 문화 (중국 음식, 가옥 등), 동진 시장	.791
4	(3) 고유한 경관 환경	오래된 주택과 빌라/연립, 저층 구조의 주거 단지,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을 분위기	.616
5	(3) 방문객 유입	게스트 하우스 증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 20-30대 젊은이들의 유입	.711
6	(3) 지지 기반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교통의 편리함과 뛰어난 접근성, 가로/공공 공간의 적극적 활용(카페, 장터)	.599*
7	(2) 개선된 경관 환경	휴먼 타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수길과 경의선 공원화	.698
8	(2) 홍대문화	홍대 문화의 영향권 내 위치, 양질의 독특한 음식문화 발달	.581*

*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항목으로 추가 분석 (군집 분석 및 회귀 분석)에서는 생략

3. 연남동 창조인력 군집분석

연남동 창조환경 요인의 선호에 따른 집단을 나누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나온 요인점수들 중 낮은 신뢰도 값을 보인 요인 6과 요인 8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요인점수들을 이용하여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 군집 1 <역동적환경추구형>, 군집 2 <전통적문화환경추구형>, 군집3의 <안정적환경추구형> 등 3개의 창조환경특성별 군집을 도출하였다. 각 군집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각각 62명, 75명, 33명이다. 군집분석을 통해 구분된 3개의 그룹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6개 요인을 기준으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1’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인 1’의 ‘독창적 영역’ 요인의 경우 세 군집에게 있어 선호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로, ‘요인 1’의 ‘독창적 영역’에 속한 개별 요소들에 대한 선호도 값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모든 군집들이 ‘요인 1’의 ‘독창적 영역’을 선호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어지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독창적 영역’ 요인 내에 일반적인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창조인력’과 ‘네트워크 요소’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인 1’의 ‘독창적 영역’ 이외의 나머지 요인들의 경우, 군집들마다 선호하는 정도가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종 군집 중심 값에서 그 부호가 양(+)이면 해당 요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군집이고, 반대로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해당 요인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군집 1 <역동적환경추구형>의 경우 요인 2의 ‘관용적 정서’와 요인 7의 ‘개선된 경관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연남동의 창조적인 분위기와 개선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그룹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요인 3의 ‘전통적 문화’, 요인 4의 ‘고유한 경관환경’, 요인 5의 ‘방문객 유입’에 대해서는 그 선호도가 상당히 낮은 편으로, 연남동의 전통적인 분위기나 모습, 그리고 새로운 방문객들의 유입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집 2 <전통적문화환경추구형>의 경우 요인 3의 ‘전통적 문화’, 요인 5의 ‘방문객 유입’, 요인 7의 ‘개선된 경관환경’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데, 연남동의 전통적인 문화를 좋아하며 새로운 방문객들의 유입을 반기는 그룹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남동의 창조적 분위기를 대변하는 개방성, 다양성, 실험성 요소로 구성된 요인 2의 ‘관용적 정서’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군집 3 <안정적환경추구형>의 경우 군집 2의<전통적문화환경추구형> 경우와는 달리 요인 2의 ‘관용적 정서’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고 반대로 오래된 주택이 있는 요인4의 ‘고유한 경관환경’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서 연남동의 개방적이고 다양한 창조적이고 관용적인 정서는 좋아하면서도 주변경관환경은 연남동의 고유한 특징인 오래된 저층부 주택가의 편안하고 조용한 경관환경을 선호하는 그룹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 요인 5의 새로운 ‘방문객들의 유입’, 요인 7의 ‘개선된 경관환경’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9> 연남동 창조환경 선호에 따른 군집분석

요인	군집의 중심값			분산분석			
	군 집 1 (N=62)	군집 2 (N=75)	군집 3 (N=33)	평균 제곱	자유도	F	유의 확률
1 독창적 영역 (네트워크)	.06126	.05247	-.23436	1.126	2	1.128	.326
2 관용적 분위기	.07851	-.29880	.53160	8.202	2	8.976	.000
3 전통적 문화	-.36435	.28932	.02698	7.266	2	7.856	.001
4 고유한 경관 환경	-.83847	.29789	.89828	38.435	2	69.671	.000
5 방문객 유입	-.53893	.61269	-.37994	25.463	2	36.013	.000
7 개선된 경관 환경	.19803	.33699	-1.13793	26.840	2	38.868	.000

또한 각 군집 별 선호도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1 <역동적환경추구형>의 경우 문화예술창작 및 기획/매개 작업을 하는 창조 인력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며 주로 홍대에 있는 집단과 교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군집 분석 결과와 대비해 보면, 문화예술 종사자로서 다양성, 개방성, 유연성 등의 요소를 갖는 ‘관용적 정서’ 요인2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선된 경관환경’ 요인7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홍대에 있는 집단과 교류하기 때문에 연남동의 전통적인 분위기에는 관심이 적으며 지가 상승으로 인해 작업실을 옮겨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방문객들의 유입에 따른 상업화 경향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군집 2 <전통적문화환경추구형>의 경우, 카페 및 음식점 등의 문화소비업종을 운영하는 비중이 높으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의 결과를 대입해 보면 연남동의 동진시장, 기사식당, 화교타운 등의 ‘전통적 문화’ 요인3과 이국적인 분위기를 선호하고 오래된 주택과 골목길 같은 ‘고유한 경관환경’ 요인4를 좋아하고 있으며 카페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문객들의 유입’ 요인5를 반기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 3 <안정적환경추구형>은 개인 작업 비중이 높고 창작 공방 및 매장을 운영하는 창조 인력의 비중이 높으며, 홍대에서 이주한 비율이 높지만, 주로 교류하는 집단은 연남동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군집은 지가 상승에 가장 민감한 군집으로 새로운 방문객들의 유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군집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주로 개인작업을 통해 창작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남동의 ‘관용적인 분위기’ 요인2와 편안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인 ‘토착 경관환경’ 요인4는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0〉 군집 간 차이 추가 분석

구분	군집1 〈문화예술 창작형〉	군집2 〈문화소비매장 운영형〉	군집3 〈1인창조기업/ 공방형〉	전체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	5.03	5.27	5.66	5.26
개인작업 비중	56%	55%	67%	58%
주요 업무 내용	문화예술창작 및 기획	카페 및 음식점 운영	창작 공방 및 매장 운영	-
소득 수준	중	상	하	-
홍대에서 이주한 비율	28%	31%	42%	32%
주요 교류 집단 비중 - 연남동	30%	33%	42%	34%
주요 교류 집단 비중 - 홍대	48%	32%	21%	36%

4)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창조환경 요인

마지막으로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군집별로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8개의 요인점수 중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2개의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는 총 4개의 아이템으로 측정하였으며 타당성 검사(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크론바하 알파) 결과 높은 적합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Cronbach α = .924)

전체 설문 대상의 응답 및 각 군집별 응답 기준으로 총 4회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군집 3을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의 경우 그 표본수가 다른 군집에 비해 적은 이유 등으로 인해 검정통계량(F) 값이 매우 낮아 유의미한 모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F = 1.500, p-value = .217)

전체 설문 대상의 응답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가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5와 요인 7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요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가 낮고 이 두 요인이 창조지역의 핵심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특징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각 군집별 (군집 1과 군집 2)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설문 대상의 응답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군집 1의 경우 요인 1과 요인 2만 종속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집 1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관련 창조인력들의 경우, 핵심적인 창조환경 특성과 창조적인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는 반면,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에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군집 2의 경우 요인 1, 요인 2, 요인 4, 요인 5가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요인 5의 경우 전체 응답 기준으로 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군집 2에 있어서는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카페 및 음식점을 운영하는 창조인력이 주류를 이루는 군집 2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회귀분석 모형에 대한 설명과 결과는 다음의 <표5-11>, <표5-12>, <표5-13>에 정리하였다.

〈표 5-11〉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응답 대상

모형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검정통계량(F)	유의확률(p-value)
회귀	65.521	6	10.920	10.831	.000
잔차	164.340	163	1.008		
총(합계)	229.860	169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p-value)
	B	표준 오차	Beta		
상수	5.261	.077		68.318	.000
요인 1	.375	.077	.322	4.860	.000
요인 2	.301	.077	.258	3.903	.000
요인 3	.229	.077	.197	2.969	.003
요인 4	.319	.077	.273	4.128	.000
요인 5	.008	.077	.007	.098	.922
요인 7	.040	.077	.035	.521	.603
종속변수: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					
결정계수 (R Square): .285					

〈표 5-12〉 회귀분석 결과: 군집 1 대상

모형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검정통계량(F)	유의확률(p-value)
회귀	31.583	6	5.264	7.910	.000
잔차	36.602	55	.665		
총(합계)	68.185	61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p-value)
	B	표준 오차	Beta		
상수	5.111	.252		20.301	.000
요인 1	.395	.128	.350	3.078	.003
요인 2	.413	.139	.353	2.964	.004
요인 3	.153	.127	.137	1.208	.232
요인 4	.254	.177	.191	1.437	.156
요인 5	-.230	.143	-.197	-1.608	.113
요인 7	.048	.139	.042	.347	.730
종속변수: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					
결정계수 (R Square): .463					

〈표 5-13〉 회귀분석 결과: 군집 2 대상

모형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검정통계량(F)	유의확률(p-value)
회귀	32.487	6	5.415	5.813	.000
잔차	63.335	68	.931		
총(합계)	95.822	74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p-value)
	B	표준 오차	Beta		
상수	4.773	.192		24.802	.000
요인 1	.391	.129	.317	3.020	.004
요인 2	.236	.117	.213	2.010	.048
요인 3	.177	.136	.136	1.307	.196
요인 4	.649	.188	.393	3.459	.001
요인 5	.467	.157	.329	2.978	.004
요인 7	.066	.158	.045	.420	.676

종속변수: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
결정계수 (R Square): .339

제 3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연남동에 거주하는 창조인력을 대상으로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창조환경 요인을 도출하고 그 요인들을 기반으로 창조인력의 세부 군집을 그룹화하여 군집별 특징을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은 총 8개의 요인으로 구분된다. 요인 1은 창조환경의 전반적인 특징을 대표하며, 요인 2는 창조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요인 3은 연남동의 전통적인 고유한 문화와 관련된 요인으로 서울의 다른 창조지역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요인 4는 조용한 저층 주택 단지로서의 연남동의 특징을 대변한다. 요인 5는 창조지역 확장으로 인한 새로운 방문객들의 증가를, 요인 6은 연남동이 지니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요인 7은

주거 환경 개선 요인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요인 8은 이국적 분위기의 특성을 설명한다.

둘째, 연남동의 창조인력은 크게 세 군집으로 구분되며 각 군집별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군집 1의 경우, 문화예술창작과 기획을 주로 하는 그룹으로 연남동의 창조적인 분위기와 주거 환경 개선을 선호하며 홍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의 경우, 카페 및 음식점을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남동의 전통적인 문화, 새로운 방문객들의 증가, 주거 환경 개선을 선호하는 그룹이다. 마지막으로 군집 3은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으로 주로 홍대에서 이주해왔지만, 현재는 연남동에서 개인 작업을 주로 하며 연남동의 창조인력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기는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 곳의 창조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창조환경의 조성은 다양한 요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8개의 요인은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내용을 타 창조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도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하나의 창조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조성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둘째, 다양한 창조인력 그룹 간의 특성 차이와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드러났듯이 연남동에는 세 군집의 창조인력이 존재하며 이들이 연남동에 거주하는 이유와 연남동에 매력을 느끼는 요소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더 나아가 각 그룹 간에서는 상충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곳의 창조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그룹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성장하고 더 창조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지금까지 도시와 지역과 연계한 창조인력 관련 선행연구들은 플로리다 (2002)의 창조계층 이론에 기초한 창조계층의 도시별 공간분포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에 치우쳐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창조환경에 대한 거시적인 담론으로는 개별적인 지역 상황에 기초한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자연발생적으로 창조인력들이 밀집하는 지역의 특성과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별성을 갖는 점은 기존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실제 대상지역의 창조인력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탐색적 연구방법을 통해 창조환경의 요소를 도출하였고, 창조인력들의 군집별 선호요인과 창조환경 특성을 세분화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현재 연남동에 입지한 창조인력 관련업종으로는 커피전문점 및 카페 58개, 레스토랑 16개, 주점11개, 소자본상점 및 사무실 10여개, 미술작업실 18개, 음악 작업실 및 스튜디오 8개소, 공방 16개, 디자인사무실 19개, 출판사 60여개, 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 7개 등 총 260여개가 파악되었다. 창조인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2010년 이후 조성된 게스트하우스 30개소 등을 포함하면 창조인력 관련업종의 연남동으로의 이전은 2010년을 기점으로 2012에서 2013년에 이룰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연남동 소재 대부분의 소자본상점이 1~3인의 종사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략 연남동에서 활동을 하는 창조인력은 최소 5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소지가 확인된 연남동 거주⁸⁶⁾ 문화예술인은 118명이며 주소지는 미확인되었으나

설문조사과정에서 거주가 확인된 예술가 30여명, 작업실이나 원룸에 세입자로 거주하거나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개인작업자를 포함하면 현재 연남동에는 200여명 이상의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르는 회화나 사진 등의 미술, 밴드나 인디레이블의 음악, 출판 및 방송작가, 창작공방 중심의 공예, 건축과 디자인 분야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광고, 영화, 영상, 무용, 엔터테인먼트, 문화기획 등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이는 홍대미대의 영향을 받은 미술 분야와 홍대 앞 클럽을 대변하는 인디음악 분야의 예술가들이 홍대와 인접한 연남동에 거주하거나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출판과 관련한 작가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는 연남동을 비롯한 마포구에 출판사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 영상 방송관련 종사자들은 방송사와 영화사가 인근인 여의도, 상암 DMC 등에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유입된 경우로 보인다. 실제로 주소지는 알 수 없었으나 심층인터뷰와 설문과정에서 연남동을 찾거나 거주하는 예술인들 중에서 방송과 영화관련 종사자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연남동에 거주하는 창조인력을 대상으로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창조환경의 특성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요인들을 기반으로 창조인력의 세부 군집을 그룹화 한 후에 군집별 특성의 지역 선호 요인과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과 선호요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 분석을 통해 설문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연남동 창조환경 요소별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인 분석의 결과로 추출된 요인 점수를 이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군

86) 거주예술인은 자택, 세입자, 작업실을 포함하여 연남동에 거주지를 두고 주소지가 파악된 경우이다. 그 외에 연남동 원룸에 세입자로 있거나 작업실을 두고 활동하지만 주소지가 불분명한 사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연남동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은 실제 조사된 인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 별 선호도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군집 별 개인 특성에 대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각 그룹별로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창조환경 특성과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30개의 창조환경을 이루는 세부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연남동만의 「독창적인 영역」과 관련한 요소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창작인력’과 더불어 유통 및 소비와 관련한 ‘문화매개 인력’의 유입, ‘자유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창조인력의 집적, ‘독특하고 예술적인 문화공간’, ‘작업실과 문화소비업종의 복합공간’, ‘이국적인 음식문화의 발달’ 등이 있다. 「시장 기능」과 관련한 요소는 ‘교통의 편리함과 뛰어난 접근성’, ‘홍대 문화의 영향권 내 위치’, ‘저렴한 임대료’ 등의 요소가 도출되었다. 「문화환경」과 관련한 요소는 연남동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특성들이 응답되었는데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을 분위기’, ‘저층 구조의 주거단지’, ‘오래된 주택과 연립’, ‘공공공간의 활용’, ‘가로수길과 경의선길 공원화’, ‘휴먼타운’, ‘기사식당거리’, ‘화교거리’, ‘동진시장’, ‘화교문화’ 등의 요소들이 있다. 「네트워크」요인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분야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 기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자연스러운 교류와 공감의 분위기’ 등의 요소가 추출되었다. 「관용적 요인」을 이루는 요소들로는 ‘게스트하우스 증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 ‘2-30대 젊은이 유입’ 같은 젊고 다양한 외지인의 유입과 함께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분위기’,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위기’, ‘실험성을 허용하는 분위기’, ‘진취적이고 활기찬 분위기’ 등의 정서적 요인이 있다.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에 대해 주성분 분석 방식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0개의 변수가 총 8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추출된 8개의 요인은 전체 분산의 69% 이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요인 1>은 창조환경의 전반적인 특징을 대표하며, <요인 2>는 창조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요인 3>은 연남동의 전통적인 고유한 문화와 관련된 요인으로 서울의 다른 창조지역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요인 4>는 조용한 저층 주택 단지로서의 연남동의 특징을 대변한다. <요인 5>는 창조지역 확장으로 인한 새로운 방문객들의 증가를, <요인 6>은 연남동이 지니고 있는 시장기능의 특성을, <요인 7>은 주거 환경 개선 요인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요인 8>은 이국적 분위기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을 ‘독창적 영역’, ‘관용적 정서’, ‘전통문화’, ‘고유한 경관환경’, ‘방문객 유입’, ‘지지기반’, ‘개선된 경관환경’, ‘홍대문화’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요인과 연남동 창조환경의 구성요인에 대한 비교를 통해 연남동만의 독특한 창조환경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인 창조환경 특성 중에서 ‘독창적 영역’, 관용적 정서, ‘네트워크’ 요인은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연남동만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은 일반적으로 ‘문화환경’ 요인에 속하는 ‘전통적 문화’, ‘고유한 경관환경’, ‘개선된 경관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연남동은 특별히 문화환경 요인이 세 개의 특성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특성에 따라 연남동 창조인력의 군집별 특성도 구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남동의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 간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즉, 연남동 창조환경의 특성은 강한 특성을 보이는 요인과 약한 특성을 보이는 요인이 있다. 일반적인 창조환경 특성요인에서 ‘독창적 영역’과 ‘네트워크’ 부분은 연남동 창조환경의 중심 특성인 ‘독창적 영역’ 요인으로 합쳐져서 가장 강한 핵심적인 선호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모든 군집에서 ‘독창적 영역’ 요인을 가장 선호하는 특성으로 꼽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요인은 ‘관용적 정서’ 요인이다. 연남동에서 가장 낮은 신

뢰도를 보이며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요인은 ‘지지기반’ 요인으로서 일반적 창조환경의 특성에서는 ‘시장기능’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즉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에서 ‘시장기능’ 요인은 아직 강한 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창조환경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 간에 창조인력의 선호도와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연남동 창조환경의 30개 요소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소별 선호도 평균과 표준편차의 총 평균값(각각 4.96, 1.460)을 기준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해 보면 세부 요소를 총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선호도가 높고 편차가 낮은 그룹이 갖는 요소는 대부분의 연남동 창조인력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요소들로서 연남동 창조환경의 중심 특성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 그룹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을 분위기’, ‘독특한 문화 공간 (카페, 공방, 작업실 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예술가/작가 등 다양한 창작 인력 유입’,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선호도도 낮고 편차도 낮은 그룹은 설문 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요소로 ‘홍대 문화의 영향권 내 위치’가 유일하게 위치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연남동 창조인력들이 연남동을 홍대 문화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기 보다는 새로운 문화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연남동에 입지한 창조인력은 크게 세 군집으로 구분되며 각 군집별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연남동 창조환경 요인의 선호에 따른 집단을 나누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나온 요인점수들 중 낮은 신뢰도 값을 보인 <요인 6> 지지기반 요인과 <요인 8> 홍대문화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요인점수들을 이용하여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 군집 1 <역동적환경추구형>, 군집 2 <전통적문화환경추구형>, 군집3의 <안정적환경추구형> 등 3개의 창조환경특성별 군집을 도출하였다.

군집 1의 <역동적환경추구형> 경우, 문화예술창작과 기획을 주로 하는 그룹으로 연남동의 창조적인 분위기와 주거 환경 개선을 선호하며 홍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의 <전통적문화환경추구형>의 경우, 카페 및 음식점을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남동의 전통적인 문화, 새로운 방문객들의 증가, 주거 환경 개선을 선호하는 그룹이다. 마지막으로 군집 3 <안정적환경추구형>은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으로 주로 홍대에서 이주해왔지만, 현재는 연남동에서 공장 등의 개인 작업을 주로 하며 연남동의 창조인력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기는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군집은 다시 지역별, 장르별로 창조환경 특성의 선호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군집별로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설문 대상의 응답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창적 영역’, ‘관용적 정서’, ‘전통문화’, ‘고유한 경관 환경’ 요인이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유입’과 ‘개선된 경관환경’ 요인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요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가 낮고 이 두 요인이 창조지역의 핵심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특징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각 군집별 군집 1 <역동적환경추구형>, 군집 2 <전통적문화환경추구형>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설문 대상의 응답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군집 1의 경우 ‘독창적 영역’, ‘관용적 정서’ 요인만 종속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집 1 <역동적환경추구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관련 창조인력들의 경우, 핵심적인 창조환경 특성과 창조적인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는 반면,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에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군집 2 <전통적문화환경추구형>의 경우 ‘독창적 영역’, ‘관용적 정서’, ‘고유한 경관 환경’, ‘방문객 유입’이 연남동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방문객 유입’ 요인의 경우 전체 응답 기준으로는 유의미한 영향력

이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군집 2에 있어서는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카페 및 음식점을 운영하는 창조인력이 주류를 이루는 군집 2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시사점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창조인력 집적지역은 창조적인 환경을 형성해 내고 궁극적으로 창조환경으로 발전하게 된다. 초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지만 창조환경의 특성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갖춘 성장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문화적인 창조성과 생산성을 갖추지 못한 채 소비 공간과 자본의 유입은 이내 급속한 상업화로 이어져 지역의 창조성과 실험성은 사라진다. ‘자생적인 문화생태계’를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의 단계를 지나 지역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환경과 창의성을 발현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연남동의 창조인력의 유입은 홍대 앞 문화의 지리적 이전과 진화로 부터 비롯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연남동만의 고유한 창조환경을 형성하고 발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남동에 유입된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환경요인을 일반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창조인력 내에서도 선호요인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연남동을 홍대 앞을 대체하는 지역으로 보기보다는 연희동, 망원동, 성산동 등 관계 속에서 타 지역과는 구별되는 연남동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 곳의 창조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창조환경의 조성은 다양한 요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8개의 요인은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내용을 타 창조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도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하나의 창조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조성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셋째, 다양한 창조인력 그룹 간의 특성 차이와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드러났듯이 연남동에는 세 군집의 창조인력이 존재하며 이들이 연남동에 거주하는 이유와 연남동에 매력을 느끼는 요소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더 나아가 각 그룹 간에서는 상충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곳의 창조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그룹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성장하고 더 창조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고정민, 『창조지구, 문화생산의 전위』,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9.
- 구문모, 2005. 창조산업의 경제적 기여와 서울시의 정책적 함의, 서울시연구, 제6권 제4호, 12. pp. 101-120.
- 김미경, 배웅규, “저층주거지 내 거주자 및 건축물의 연계분석을 통한 거주특성 규명 연구: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휴먼타운 시범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3권 제5호, 2012.
- 김병수, 김내영, 최정한, 『지역의 재구성』, 알트, 2012.
- 김승남, 「재택근무, 주거 및 고용입지, 가구 통행수요의 관계: 수도권 지역의 정보화 직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김신성, 「문화소비 확산에 따른 저층주거지의 변화 특성 연구: 연남동 일대 문화소비관련 업종으로의 용도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김신성 외, 『커뮤니티 폐선부지와 만나다』, 서울 지역활성화 센터, 2011.
- 김형우, 「기존 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필지단위 건축계획 연구: 주민참여형 재생 주거지 연남동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마포구, 「마포구 사회조사」, 2011.
- 라도삼, 「문화특화지역의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 박세훈 외,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1.
- 박은실, 「창조적인 도시(Creative City)조성을 위한 정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미발행), 2004.
- 박은실, “도시재생과 문화정책의 전개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17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 29-34. 2005.
- 박은실, 「도시재생 및 문화도시 프로젝트와 문화예술경영」,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심포지엄, 서울역사박물관, 2008. 5. 30.
- 박은실, “창조도시의 의의와 사례”, 『도시정보』, 통권 제317호(2008-08), 대한민국

- 토도시계획학회, pp. 3-16, 2008. 8.
- 박은실, “국내 창조도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월간국토」, 통권 322호 (2008-8), 국토연구원, pp. 45-55, 2008. 8.
 - 박은실, 「서울컬처노믹스 전망과 대안」, 서울시 의회 세미나, 2008. 10
 - 박은실, “창의경제의 기반 창의도시”, 「창의경제와 문화예술의 역할」, 전택수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 박은실, “문화와 도시계획: 오래된 역사, 새로운 만남”, 『컬처노믹스 시대의 도시론 : 도시문화전략의 쟁점 · 경험 · 과제』, 국토연구원, 2014.
 - 신정란, 「홍대지역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인적요인에 관한 연구: 홍대지역의 젊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심상민, “1인창조기업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8. PP. 5-26.
 - 안내영, 신도시 중심의 장소성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분당 신도시의 야탑, 서현, 정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이재수, 이동훈,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실태분석과 정책대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2.
 - 이택면, 『숨페터』, 평민지식마당 7, 평민사, 2001.
 - 전경원, 『동·서양의 하모니를 위한 창의학』, 학문사, 2005.
 - 전병태 외, 「창조경제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전지훈, 「창조도시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전지훈, 「창의적 환경에 관한 창조산업의 수요자 지향성 연구: 고양문화산업진흥지구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정석, “마을에 답이 있다. 마을공동체에 길이 있다”, 「마을공동체 주도의 지역발전」, 제26회 대도시행정세미나, 2012. 11.
 - 진창종, 「홍대앞 주거지의 상업화 과정 및 특성에 관한 분석-: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 관점에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진현, 강우란, 조현국, 「기업 내의 조직창의성 모델」, 삼성경제연구소, 2012. 11.
 - 최정환, 「욕망의 플랫폼 홍대앞 클럽」, 「로컬리티 인문학」 5호, 현장비평,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연구단, 2011 5.

- 최지은, 「창의성의 체제모델에서 양방향성에 대한 시계열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최지은 외, 「창의적 환경지원 교수학습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0.
- 한기수, 외국인 밀집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주거환경 선호요인 분석: 글로벌 빌리지 6곳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홍석기, “외국인 100만 시대를 위한 서울시의 다문화 전략”, 「SDI 정책리포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6.2. 제13호.

□ 외국문헌

- Adelman I, and Cynthia Morris,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7.
- Amabile, T. M., Growing Up Creative: Nurturing a Lifetime of Creativity New York: Crown, 1989.
- Amabile, T. M., Creative in the Context, Colorado: Westview Press, Inc. 1996.
- Athene Donald, The Observer, Guardian, Sunday 3 February 2013.
- Baeker, G., Concepts, Trends and Developments in Cultural Planning, Municipal Cultural Planning Project, Canada. 2002.
- B. Faujas de Saint Fond, A Journey Through England and Scotland to the Hebrides in 1784, 2 vols. (Glasgow, 1907), vol. 2, pp. 245-6.
- Bianchini, F. & Parkinson, M. (eds),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1993.
- Bianchini, F., Cultural Planning in: Greed, C Social Town Planning London, Routledge, 1999.
- Bishwapriya, S., (eds.) Comparative Planning Cultures, Routledge, 2005.
- Boden, M., The Creative Mind: Myths and Mechanisms: London, George Weidenfeld and Nicolson Ltd. 1990.

- Borja, J. and Castells, M. Local and Global: Management of Cities in the Information Age, Earthscan Publications, London, 1997.
- Camagni, R., Maillat, D., Matteaccioli, A. (Eds.), Ressources naturelles et culturelles, milieux et développement local. Neuchatel: EDES, 2004.
- Caves, R., Creative Industries: Contracts between Art and Commerce, Cambridge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 Costa, P. (2008), "Creative Milieus, Gatekeepers and Cultural Production: Evidence from a Survey to Portuguese Artists", Review of Cultural Economics, Vol. 11, N^o 1, June 2008, Korea Association for Cultural Economics, pp. 3-31.
- Boschma and Fritsch, Creative Class and Regional Growth in Europe, The Future of European Regions, 2007.
- Broadbent, J., Emerging Concepts in Urban Space Design, Routledge, 1990, 안건혁, 온영태 역, 공간디자인의 사조, 기문당, 2010.
- Christophe, M., and Lubart, T.,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Creativity: Past, present, and future perspectives on creativity in France and French-Speaking Switzerland', in James Kaufman and Robert Sternberg (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Cooke, P., Lazzeretti, I., Creative Cities, Cultural Cluster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vestigaciones Regionales, 2008.
- Csikszentmihalyi, M.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Harper Collins, New York, 1996.
- Csikszentmihalyi, M.,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Harper Perennial; 4 TRA edition, 1997.
- David Emanuel Andersson , Åke E. Andersson , Charlotta Mellander, Handbook Of Creative Cities,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1.
- Dewey, John, Art as Experience, New York, Carpricorn, 1934.
- DCMS,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2008. FEB.
- Evans, G., Cultural Planning, Routledge, NY, 2001.
- Evans, G., & Foord, Jo. et. (2006) Strategies for Creative Spaces and Cities

- :Lessons Learned, Cities Institute,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London Development Agency.
- Evans, G., Creative Cities, Creative Spaces and Urban Policy, Urban Studies, 2009; 46(5/6); 1003-1040
 - Florida, R.,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Perseus Books Group, N.Y., 2002.
 - Florida, R., & Tinagli, I., Europe in the Creative Age, DEMOS. 2004.
 - Florida, R.,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N.Y., 2005.
 - Florida, R., Creative Class 2nd ed., 2011, 리차드 플로리다 저, 이길태 역, 신창조계급, 북콘서트, 2011.
 - Firestien, R. L.. The power of product. In S. G. Isaksen, M. C. Murdock, R. L. Firestien, & D. J. Treffinger (Eds.), Nurturing and developing creativity: The emergence of a discipline (pp. 261-277). Norwood, NJ: Ablex. P262. 1993.
 - Gerard J. Puccio, John F. Cabra, J. Michael Fox, Helene Cahen, Creativity on demand: Historical approaches and future trends,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ngineering Design, Analysis and Manufacturing, 24, pp.153-159. 2010.
 - Glaeser, E. (1994) Cities, information, and economic growth, Cityscape, 1(1), pp. 9-47.
 - Glaeser, E. (1998) Are cities dy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12, pp. 139-160.
 - Glaeser, E. (2000) The new economics of urban and regional growth, in: G. Clark, M. Feldman & M. Gertl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pp. 97-10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 P, Cities in civilization,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98.
 - Hall, Peter, Cities of Tomorrow: An Intellectual History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in the 20th Century, Blackwell, 1996, 임창호 역, 내일의 도시 :20세기 도시계획 지성사, 한울, 2000.
 - Harvey, D., Paris, Capital of Modernity, Routledge, 2003, 김병화 역,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생각의 나무, 2005.
 - Hebdige, D., Hiding in the Light: On Images and Things, Routledge, 1989.

- Heilbron, John, Creativity and big science, Physics Today, November 1992.
- Helmut K. Anheier, Cultures and Globalization Cities, Cultural Policy and Governance, SAGE Publications Ltd, 2012.
- Hernando de Soto, 2000, The Mystery of Capital, Basic Books, 윤영호 역, 자본의 미스터리, 세종서적, 2003, p.246-247.
- Higgins, E. T.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1280-1300. 1997.
- Howkins, J., Creative Ecologies: Where Thinking is a Proper Job, UQP and Transaction (USA), 2009.
- Howkins, J.,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Allen Lane, Penguin Press. 2001.
- Isaksen, M. C. Murdock, R. L. Firestien, & D. J. Treffigner (Eds.), Understanding and recognizing creativity: The emergence of a discipline, pp. 299-330. Norwood, NJ: Ablex.
- Jacobs, D., Jane Jacobs' legacy : science of and love for the creative city, ArtEZ Press, 2008.
- Jacobs, J., Cities and the Wealth of the Nations, Random House, 1984.
-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york : Vintage Books. 유강은 역, 미국대도시의 죽음과 삶, (주)그린비 출판사, 2010.
- James C. Kaufman, Robert J. Sternberg PhD.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Creativity (Kindle Locations 193-196). Kindle Edition
- Jerry Z. Muller, The Mind and the Market, 2002, 제리 멀러 저, 서찬주, 김청환 역, 『자본주의의 매혹』, Human & Books, 2006.
- Johansson, B., Karlsson, C., Westin, L., eds., Patterns of a network economy, Springer-Verlag, 1994.
- Kaufman, James and Robert Sternberg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Creativ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Landry, C. & Bianchini, F., The Creative City, Demos, London, 1995.
- Landry, C.,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Comedia, Earthscan Ltd., London, 2000.
- Landry, C., The Art of City Making, Comedia: London. 2006.

- Lavanga, M., Cultural Cluster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Integrating Urban Knowledge & Practice, Gothenburg, 2005.
- MacKinnon, D.W., Creativity and Transliminal Experience,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Volume 5, Issue 4, pages 227-241, December 1971.
- Margaret A. Boden, The Creative Mind: Myths and Mechanisms, 고빛샘 역, 21세기북스, 2000, pp.12-13.
- Mommaas, Hans. Cultural Clusters and the Post-industrial City: Towards the Remapping of Urban Cultural Policy, Urban Studies, Vol. 41, No. 3, March, pp.507-532. 2004.
- Monclus, J. & Guardia, M., eds., Culture, Urbanism and Planning, ASHGATE Publishing, 2006.
- Mumford, L., Regions-To Live In. Survey, 1925.
- Mumford, L., The Culture of Cities, Mariner Books, 1938.
- National Research Council, Beyond Productivity: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National Academy Press, 2003.
- O'Connor, J.,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London: Arts Council England. 2007.
- Osborn, F. Alex, Your Creative Power: How to Use Imagination, New York, Scribners, 1952.
- Orrell, D., Economyths : ten ways economics gets it wrong, 경제학 혁명: 신화의 경제학에서 인간의 경제학으로, 김원기 역, (주)행성비, 2010.
- Putnam R. D., Leonardi, Robert and nanetti, Raffaella Y.,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Rhodes, M., An analysis of creativity. Phi Delta Kappan, 42, 1961, 305-310.
- Ruskin, J., The Stones of Venice. Volume the First. The Foundations, Smith, Elder & Co., London, 1851.
- Sennett, R., Craftsman, 2008, 장인: 현대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 김홍식 역, 21세기 북스, 2010.

- Sennett, R., Together : the rituals pleasures, and politics of cooperation, 2012, 투게더: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기, 김병화 역, 현암사, 2013.
- Sasaki, Masayuki, Iwanami Shoten, 2002, 창조하는 도시, 정원창 역, 소화, 2004.
- Simonton, D.K., Creative productivity and age: A mathematical model based on a two-step cognitive process, Developmental Review, 4(1), 1984. 3, pp. 77-111.
- Simonton, D.K., Artistic creativ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cross and within Gen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6), 1984, 6, P.1273.
- Simonton, D. K. Creative Expertise: A life-span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K. A. Ericsson (Eds.), The road to excellence (pp. 227-253).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96.
- Stevenson D., Cities And Urban Ciltures, Open University Press, 2003.
- Tao, Z. & Wong, Y.C. Richard, Hongkong: From Industrialized City to a Center Manufacturing-related Services, Urban Studies, 39(12), 2002.
- Throsby, D. Economics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Törnqvist, G., Contemporary industrialization : spatial analysis and regional development, London [u. a.] : Longman, ISBN 0582485924., 1978. pp. 86-109.
- Törnqvist, G., The Geography of Creativity,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1.
- UNCTAD. 2010. Creative Economy Report 2008. UN. FEB.
- UNCTAD. 2008. Creative Economy Report 2010. UN. FEB.
- Weil, Francois, Historie de New York, Gladding, Jody (TRN), Columbia University Press, 뉴욕의 역사, 문신원 역, 궁리, 2003,
- Zukin, S., The Cultures of Cities, Blackwell, 1995.

창조인력 심층면접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인터뷰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박은실의 박사학위 논문인 <연남동 창조인력 선호요인 및 창조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귀하의 의견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박사과정 박은실 (espark39@gmail.com)

조사자:

조사일시:

<설문응답자 인적사항>

이름(상호명):

성별:

연령:

학력:

업종(직업) : 복수직업 포함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사항 >

1. 귀 매장의 업종(예술분야) 및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개인의 히스토리를 파악할 것)
2. 귀 매장의 개점시기는 (이주시기 및 작업실 오픈시기)는 언제입니까?
3. 연남동 이전에는 어디서 어떤 매장(작업실)을 하였습니다?
4. 귀 매장(작업실)의 개점 전 건물용도 및 개점 후 건물용도 변화는 어떠합니까?
5. 귀 매장(작업실)의 건물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자가, 전세, 월세 등)
6. 주요 이용자는? (매장주의 경우)

< 연남동에 대한 이전동기, 인식 및 만족도 >

7. 연남동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8. 연남동에 매장(작업실)을 오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동기 구체적으로)
9. 연남동에 대한 첫인상과 현재인상은 변화하였습니까? (연남동 인식의 변화)
10. 연남동의 변화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1. 연남동에 이전한 것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 연남동의 창조환경 구성 요인 >

(독창영역)

1. 연남동 창조인력의 고유한 영역과 독창성은 무엇입니까?
2. 귀하의 창작 및 작업방식에 대한 고유성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3. 귀하의 작업과 관련한 라이프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주중, 주말, 월간, 연간/일과 여가의 분리 여부, 저녁, 주말시간의 활용여부)

(시장기능)

4. 연남동의 정체성을 홍대문화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가 생각하는 홍대앞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서교, 상수, 합

정, 연희 등 주변지역과 연남동을 비교하여 인식하는 정도)

6. 귀하의 작업이나 일과 관련해서 귀하가 생각하는 지지기반이나 시장(마켓)기능은 무엇입니까?

(문화환경)

7. 연남동을 대표하는 고유한 문화와 상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연남동의 물리적인 환경과 특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리적 특징, 건축물 저층부 활용, 가로환경, 골목, 거리, 매장 및 공방의 인테리어 분위기)

9. 연남동의 저층부 주택단지 특성이 지금의 거리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다양한 매장과 공방, 카페 등이 공존하는)

10. 물리적인 측면에서 가로공간과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것(카페, 장터, 등)에 대한 입장 및 선호도. 환경에 대한 변화 유무 (매장주의 입장과 예술가는 사용자의 입장)

11. 경의선 개통, 휴먼타운 등 개발에 대한 생각은?

(네트워크)

12. 귀하의 매장을 주로 찾는 사람들은? (매장주)

13. 연남동(또는 홍대앞)에서 귀하가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소는? (예술가)

14. 귀하가 주로 교류하는 사람들은? (연남동을 포함한 홍대앞에서 교류하는 인적네트워크의 범위)

(관용적 정서)

15. 시민들과의 관계나 소통은 활발하다고 느끼십니까? (교류여부, 친밀도, 선호도, 갈등관계 등)

16. 귀하는 연남동의 공동체 특성이나 정서 또는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터뷰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자유롭게 질문과 응답을 진행함

[부록 2]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인식 설문지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박은실의 박사학위 논문인 “창조인력 유입을 통한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귀하의 의견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14호(통계작성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본 조사의 내용 및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귀하의 평안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2013년 10월

연구 지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안건혁 교수

연구 책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박사과정 박은실

설문 관련 문의: 0810kimyj@naver.com / espark39@gmail.com

조사 일시	2013년 () 월 () 일					
1. 설문 대상	이름		핸드폰		이메일	
2. 점포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 - () 번지			

Part 1. 연남동의 창조환경 특성에 대한 인식

다음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연남동의 창조 환경 특성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가 선호하는 수준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오른쪽에서 골라 해당란에 표시(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혀 선호하지 않음 ←————→ 전적으로 선호						
저층 구조의 주거 단지	(1)	(2)	(3)	(4)	(5)	(6)	(7)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1)	(2)	(3)	(4)	(5)	(6)	(7)
교통의 편리함과 뛰어난 접근성	(1)	(2)	(3)	(4)	(5)	(6)	(7)
오래된 주택과 빌라/연립	(1)	(2)	(3)	(4)	(5)	(6)	(7)
7~80년대 경관과 골목길	(1)	(2)	(3)	(4)	(5)	(6)	(7)
쾌적하고 걷기 좋은 가로 공간	(1)	(2)	(3)	(4)	(5)	(6)	(7)
가로/공공 공간의 적극적 활용 (카페, 장터)	(1)	(2)	(3)	(4)	(5)	(6)	(7)
가로수길과 경의선 공원화	(1)	(2)	(3)	(4)	(5)	(6)	(7)
기사식당 거리	(1)	(2)	(3)	(4)	(5)	(6)	(7)
화교 거리	(1)	(2)	(3)	(4)	(5)	(6)	(7)
동진 시장	(1)	(2)	(3)	(4)	(5)	(6)	(7)
휴먼 타운 (주거환경관리사업)	(1)	(2)	(3)	(4)	(5)	(6)	(7)
독특한 문화 공간 (카페, 공방, 작업실 등)	(1)	(2)	(3)	(4)	(5)	(6)	(7)
게스트 하우스 증가	(1)	(2)	(3)	(4)	(5)	(6)	(7)

4.

	← → 전혀 선호하지 않음 전적으로 선호						
예술가/작가 등 다양한 창작 인력 유입	(1)	(2)	(3)	(4)	(5)	(6)	(7)
문화매개인력 유입 (기획자, 제작자 등)	(1)	(2)	(3)	(4)	(5)	(6)	(7)
다른 점포주(공방, 카페)들과의 교류	(1)	(2)	(3)	(4)	(5)	(6)	(7)
기존 주민들과의 교류	(1)	(2)	(3)	(4)	(5)	(6)	(7)
다양한 외국인 거주자들	(1)	(2)	(3)	(4)	(5)	(6)	(7)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	(1)	(2)	(3)	(4)	(5)	(6)	(7)
20-30대 젊은이들의 유입	(1)	(2)	(3)	(4)	(5)	(6)	(7)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 기회	(1)	(2)	(3)	(4)	(5)	(6)	(7)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1)	(2)	(3)	(4)	(5)	(6)	(7)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작업자들	(1)	(2)	(3)	(4)	(5)	(6)	(7)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은 작업자들	(1)	(2)	(3)	(4)	(5)	(6)	(7)

5.

	← → 전혀 선호하지 않음 전적으로 선호						
개인적 성향이 존중되는 열린 커뮤니티	(1)	(2)	(3)	(4)	(5)	(6)	(7)
공동체적 주민 커뮤니티	(1)	(2)	(3)	(4)	(5)	(6)	(7)
홍대 문화와의 차별성 (비상업성 등)	(1)	(2)	(3)	(4)	(5)	(6)	(7)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및 참여	(1)	(2)	(3)	(4)	(5)	(6)	(7)
화교 문화 (중국 음식, 가옥 등)	(1)	(2)	(3)	(4)	(5)	(6)	(7)
작업실(공방 등)과 문화소비업종(카페,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트렌드	(1)	(2)	(3)	(4)	(5)	(6)	(7)
홍대 문화의 영향권 내 위치	(1)	(2)	(3)	(4)	(5)	(6)	(7)
양질의 독특한 음식문화 발달	(1)	(2)	(3)	(4)	(5)	(6)	(7)

6.

	<div> <div>전혀 선호하지 않음</div> <div>←————→</div> <div>전적으로 선호</div> </div>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을 분위기	(1)	(2)	(3)	(4)	(5)	(6)	(7)
이주민/방문객에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1)	(2)	(3)	(4)	(5)	(6)	(7)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위기	(1)	(2)	(3)	(4)	(5)	(6)	(7)
실험적인 시도를 허용하는 분위기	(1)	(2)	(3)	(4)	(5)	(6)	(7)
자연스러운 교류와 공감의 분위기	(1)	(2)	(3)	(4)	(5)	(6)	(7)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트렌드가 공존하는 문화	(1)	(2)	(3)	(4)	(5)	(6)	(7)
진취적이고 활기찬 분위기	(1)	(2)	(3)	(4)	(5)	(6)	(7)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분위기	(1)	(2)	(3)	(4)	(5)	(6)	(7)

Part 2. 연남동에 대한 태도

다음은 귀하가 연남동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가 생각하는 수준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오른쪽에서 골라 해당란에 표시(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만족도

	<div> <div>전혀 선호하지 않음</div> <div>←————→</div> <div>전적으로 선호</div> </div>						
나는 연남동에서의 거주 경험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나는 연남동의 이웃(동료)들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나는 연남동의 분위기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전반적으로, 나는 연남동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충성도

	<div> <div>전혀 선호하지 않음</div> <div>←————→</div> <div>전적으로 선호</div> </div>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남동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한다.	(1)	(2)	(3)	(4)	(5)	(6)	(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남동을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1)	(2)	(3)	(4)	(5)	(6)	(7)
나는 온라인 상에서 연남동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게재한다	(1)	(2)	(3)	(4)	(5)	(6)	(7)
나는 앞으로도 계속 연남동에 거주할 것이다.	(1)	(2)	(3)	(4)	(5)	(6)	(7)

Part 3. 개인적 특성

9.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가 생각하는 수준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오른쪽에서 골라 해당란에 표시(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_____ 사람이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전혀 동의하지 않음 ←————→ 전적으로 동의함 </div>						
창의적인	(1)	(2)	(3)	(4)	(5)	(6)	(7)
독창적이며 새로운 생각을 잘 떠올리는	(1)	(2)	(3)	(4)	(5)	(6)	(7)
활발한 상상력을 가진	(1)	(2)	(3)	(4)	(5)	(6)	(7)
일을 완벽하게 하는	(1)	(2)	(3)	(4)	(5)	(6)	(7)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	(1)	(2)	(3)	(4)	(5)	(6)	(7)
믿을만하게 일을 하는	(1)	(2)	(3)	(4)	(5)	(6)	(7)
조용한	(1)	(2)	(3)	(4)	(5)	(6)	(7)
수다스러운	(1)	(2)	(3)	(4)	(5)	(6)	(7)
외향적이며 사교적인	(1)	(2)	(3)	(4)	(5)	(6)	(7)
에너지가 넘치는	(1)	(2)	(3)	(4)	(5)	(6)	(7)
사려 깊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함	(1)	(2)	(3)	(4)	(5)	(6)	(7)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며 이타적인	(1)	(2)	(3)	(4)	(5)	(6)	(7)
용서를 잘하는	(1)	(2)	(3)	(4)	(5)	(6)	(7)
쉽게 침울해 지는	(1)	(2)	(3)	(4)	(5)	(6)	(7)
우울한	(1)	(2)	(3)	(4)	(5)	(6)	(7)
걱정을 많이 하는	(1)	(2)	(3)	(4)	(5)	(6)	(7)

Part 4. 작업방식 및 환경 특성

다음은 귀하의 작업 방식 및 환경 특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가 생각하는 수준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표시(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귀하께서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어떤 장르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① 영화 ② 음악/공연 ③ 미술 ④ 시나리오/문학 ⑤ 도서/출판 ⑥ 건축
⑦ 공예 ⑧ 광고/영상 ⑨ 디자인 ⑩ 방송/연예 ⑪ 요리/음식
⑫ 기타 ()

11.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업무에 종사하십니까?

- ① 문화예술창작 (예술가, 작가) ② 문화예술매개(기획자, 프로듀서)
③ 창작공방 및 매장 운영 ④ 문화공간운영(갤러리, 연습실 등)
⑤ 작업실 + 카페 및 음식점 운영 ⑥ 카페 및 음식점 운영
⑦ 기타 ()

12.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십니까?

- ① 개인작업 중심 ② 공동작업 중심 ③ 기타 ()

13. 귀하께서 연남동에 이주하거나 작업실(또는 점포)을 개점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14.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거주지나 작업실(또는 점포)의 규모 및 계약 방식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방식을 선택하시고 지불 금액을 적어 주세요.

규모	계약 방식
총 () 평	① 자가 (구매 금액:)
	② 전세 (전세 보증금:)
	③ 월세 (보증금: / 월세:)
	④ 기타 ()

15.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거주지나 작업실(또는 점포)의 개점 전 건물 용도는 무엇입니까?

- ① 주택 ② 동종 업종 시설 ③ 타 업종 시설 (이전 업종:)
④ 기타 ()

16.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거주지나 작업실(또는 점포)의 건물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 ② 단독주택/빌라 개조 ③ 연립/다세대주택 개조 ④ 상업용빌딩
⑤ 기타 ()

17. 귀하께서 연남동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사람을 통한 입소문 ② 신문, 방송, 잡지 등 보도매체
③ 인터넷 ④ 우연한 방문 ⑤ 예전부터 거주
⑥ 기타()

18. 귀하께서 인식하는 “홍대 문화”의 물리적, 상징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복수 응답)

- ① 홍대 앞 (극동방송국에서 산울림극장) ② 서교동 ③ 상수동
④ 합정동 ⑤ 동교동 ⑥ 연남동 ⑦ 연희동
⑧ 기타()

19. 귀하께서 연남동으로 오시기 전의 거주지나 작업실(또는 점포)은 어디였습니까? (18번 문항 참고)

- ① 홍대 앞 () ② 홍대 외 지역 ()

20. 귀하께서는 주로 어느 지역에 위치한 집단과 교류하십니까?

- ① 연남동 ② 홍대 앞 ③ 그 외의 지역 ()

21. 귀하께서 인식하는 연남동의 대표적인 가로 및 장소는?

- ① 휴먼타운 ② 기사식당 ③ 화교거리 ④ 가로수길
⑤ 동진시장 주변 ⑥ 경의선 ⑦ 경성고등학교 주변 ⑧ 기타 ()

Part 5. 일반적인 응답자 사항

2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3. 귀하께서는 현재 결혼을 하셨습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24.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2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학교 재학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재학 이상

26. 귀하의 한 달 평균 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50만원 미만 ② 51만원~100만원 ③ 101만원~200만원
④ 201만원~300만원 ⑤ 301만원~400만원 ⑥ 401만원~500만원
⑦ 501만원~600만원 ⑧ 601만원~700만원 ⑨ 701만원~800만원
⑩ 801만원~900만원 ⑪ 901만원~1,000만원 ⑫ 1,001만원 이상

* 성의 있는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

■ 동진시장 구역 창조인력 인터뷰 종합분석

<연남동에 대한 인식>

1. 연남동의 정체성

- 동진시장 골목상권 입점 요인으로 첫째, 저렴한 임대료(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50만원 선)와 두 번째 이유로는 오래된 주택가의 조용한 느낌과 함께 70~80년대를 느낄 수 있는 옛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정감있는 동진시장과 정겨운 골목길 풍경이라는 의견이 주
- 연남동에 대한 첫인상으로는 조용하고 저층부 주택주거환경이라는 인식과 상징적인 요소로는 골목길(동교로 46길)과 동진시장이 압도적이었으며, 그외 화교(중국식당), 기사식당, 가로수길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
- 홍대앞 범위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대부분 홍대의 문화가 팽창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 연남동을 홍대앞에 인식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좀 멀다는 인식과 정서적(홍대의 상업화와 아직은 정감있는 연남동)으로도 많이 다르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홍대문화가 확장된 범위는 상수동을 비롯하여 합정, 서교, 동교, 연남까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연희동과 망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도 있었음. 심지어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상암동까지 번져가고 있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음.
- 연남동의 변화의 요인으로는 상업화로 변질된 홍대문화에 대한 염증과 지나치게 비싼 임대료 문제로 홍대를 떠나게 되었으나, 이미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나 활동무대인 홍대 인근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홍대로의 접근이 유리한 연남동의 경제적이고 지리적 편리성이라는 요인이 작용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2. 지역의 특성

- 서울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미로 같은 골목길의 재미요소와 저층구조의 주거풍경 형성(동교로 46길 일대)이 특징으로 분석됨.
- 상업화된 홍대와 정치가들의 주거지로 부촌으로 인식하고 있는 연희동 사이의 샌드위치 같은 지리적 특징으로 문화의 불모지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연남동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의 특성은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시골 같이 조용하고 차분하면서 인정이 살아있는 주민들의 성향으로분석할 수 있음.
- 오래전부터 화교들이 모여살게 되어 중국요리로 유명하고, 전문가들이 유입되면서 1인 창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음. 또한 홍대앞에 살던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작업공간을 옮기면서 비교적 폐쇄적이었던 지역이 경의선개통 등의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외부인에게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주민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오래된 재래시장(동진시장)의 형태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음. 새로 들어오는 가게들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구성을 하기보다 시실리나 리브레와 같이 시장통의 정감어린 느낌을 그대로 인테리어로 적용하거나 살리고 있는 외부적인 특징을 보임.
- 동진시장 내 신 점포(6개)와 구 점포(7개)의 혼재되어 있어. 동진시장 일대는 아직은 '변화기'로 판단됨.

- 지하철 2호선 밖에 없어 교통이 불편했던 연남동이 최근 공항철도 및 경의선 개통으로 접근성 양호하다는 물리적 특성도 거론됨.
- 각자 차별화된 맛이 상당부분 분포되어 있음. 예를 들어 화교들이 모여살다보니 중화 요리가 유명하고, 국밥집으로 유명해진 기사식당,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멕시코, 태국 음식 등 세계 여러나라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동교로(철길) ~ 가로수길 입구: 기사식당,
 - . 동교로(가로수길 입구) ~ 성미산로: 중국음식점(화교)
 - . 동진시장 일대:태국, 일본, 멕시코 음식점
- 주로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노인들이 모여살던 연남동에 최근 신축건물들이 들어 서고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신혼부부나 젊은층이 모여들면서 다양한 연령층과 부와 빈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고, 아직은 상업화의 전도가 미약한 건물주의 경제관념도 또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동진시장 골목(동교로 46길)과 시실리 포차 대로변(성미산로)을 제외한 이면 주택가의 외부 유동인구 거의 없음.

3. 대표가로에 대한 분석

3-1. 동진시장 후면 골목(13개 점포, 80m)

- 1층 소형점포 형태의 기존 골목상권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1,2년 사이 소자본 전문가가 운영(1인창업)하는 개성있는 문화소비공간의 입점되고 (플레이스막, 책방 피노키오, 은나비공방, 가족공방 등의 작업실, 카페이심, 리브레, 그리고 타이전문식당 톡톡, 카레전문 히메지, 일본가정식 40키친 중심),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에서 문화소비공간으로 변경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즉, 기존 오래된 소형 점포(미용실, 식당, 이불집 등) 운영자의 은퇴로 인한 빈 점포 발생과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인한 1인 창업 형태의 문화소비공간이 입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문화불모지를 찾아 동진시장 일대에 문화공간으로는 처음 들어온 ‘플레이스막’을 비롯하여 ‘카페이심’이 문화소비공간 입점 러시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홍대앞에서 운영한 기존 (이심)카페의 단골손님과 창의인력 커뮤니티가 카페의 이전에 따라 함께 유입된 것으로 분석됨. 게다가 (리브레)카페의 방송 출연으로 타지인 방문이 급증하고 있어 젊은층의 유동인구 증가도 동진시장 일대의 변화된 특징으로 분석됨.

3-2. 동진시장 정면 도로(50개 점포, 190m)

- 왕복 2차선도로의 좌우 1층 상점과 소형빌딩, 저층부 주택이 혼재된 상권 형성이 형성되어 있으며, 1년 전(2012년 8월 오픈)시실리포차가 들어오면서 저녁이면 컴컴했던 동진시장 일대가 야간가로 활성화(새벽 5시까지 운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3~40대의 젊은 1인창업자와 40년된 오래된 점포(기름집, 철물점)가 혼재된 동진시장의 가로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기존 중·소형 구 점포(38개)와 이자카야 및 카페 등의 신 점포(12개)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
- 하루가 다르게 새로 생기고 있는 이자카야나 포차들의 영향으로 젊은 예술가들(특히 밴드나 인디 음악가)이 동진시장 인근에 모여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선택 요인>

저층부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연남동의 물리적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주거환경이 수익환경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임. 즉 비교적 쉬운 저층부 주거의 수익성주거의 변경을 위해 1층의 용도변경이 최근 1,2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한 물리적

환경변화에 따라 최근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개인공방이나 카페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

특히 동진시장 일대는 보통 30, 40년 정도를 지역주민인 어르신들이 운영하던 홍어집, 돼지갈비집, 미용실, 철물점 등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홍대근처에서 작업을 하거나 카페를 운영하던 30~40대의 젊은 사람들이 홍대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와 조용한 주택가를 찾아 연남동으로 자리를 옮긴 카페(시실리포차, 리브레, 이심 등)나 개인 작업공간(은나비공방, 가족공방, 복디자인 형태와내용사이 등)을 운영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미로같은 오랜 골목이라는 물리적 환경의 특징이 있어 재미있고, 특히 애완동물과 함께 골목을 산책하기에 좋은 거리라는 인식이 많음.

1. 예술가의 입장

-작은 공간은 1인 작업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게다가 오래된 주택가나 동진시장이라는 정감있고 옛스러운 장소적 매력에 끌려 몰려들고 있음.

-특히 예술가들은 무엇보다도 대부분 홍대에 네트워크(친구포함)이 있어 홍대근처에서 비교적 저렴한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장소를 연남동으로 생각하고 있음. 또한 공방을 운영하는 작가들의 경우 주말 프리마켓이 홍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대에서 가깝고 임대료도 저렴할뿐더러 작업하기에도 조용한 연남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근처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카페(이심, 리브레 등)들이나 맛집(타이음식점 툇툇, 카레 히메지, 일본가정식 40키친 등)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동진시장 일대가 자연스럽게 골목가로공간이 형성되고 있어 장르를 뛰어넘는 예술가(음악, 미술, 에디터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어 예술가들의 느슨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음.

-지금처럼 적당히 조용하고 인심이 살아있는 골목이 유지되기를 원함. 홍대처럼 대기업상권이 들어오거나 상업화로 인해 유입인구가 너무 많아져 번잡스러운 거리가 될까봐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됨.

2. 카페+전문가의 입장

-저층부 주택의 1층은 양호한 입점 조건이 되며 개성있는 인테리어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소자본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차별화된 카페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3. 가게의 입장

-예술가나 카페+전문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즉 저층부 주택가의 작은 공간과 저렴한 임대료가 유입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됨.

<공동체 특성 >

대부분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온순하고 정감있는 인적 환경인 것으로 파악됨. 또 그런 느낌이 좋아서 들어온 공방, 책방, 디자인사무실, 카페, 음식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몇몇 적극적인 주민을 비롯해 프레이스막이나 피노키오 책방 앞 평상에서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공감대 형성과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면서 상생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1. 예술가, 카페+전문가의 입장

-주로 1인 창작 작업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자 작업 방식에 있어서도 개성을 보임. 또한 공간 운영비용 마련과 교육희망자 수요 충족을 위해 강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주로 작업실에 하루(평균 오전 10시~오후 8시)를 보내고 있으며, 근처에서 점심(히메지, 40키친, 톡톡)을 해결하거나 인근 카페(이심, 리브레)휴일에는 재료준비와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됨.

2. 가게의 입장

-동네의 조용하고 정겨운 느낌이 좋아서 동진시장쪽에 자리를 잡게 된 가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향이 인정이고 온순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매장의 수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동진시장 일대의 주택가의 특징은 조용하고 정겨운 동네와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네트워크>

아직은 주민들과 새로 생겨나는 카페나 공방들과의 교류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크게 충돌도 없는 상태임.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랜 단골이자 사랑방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었던 돼지갈비집, 홍어집, 철물점, 미용실 등이 사라지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출함.

동진시장의 또하나의 사회적 양상으로는 단골카페(이심)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커피 문화를 통해 예술가들의 느슨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며, 서로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지만 서로에 대해 인정하고, 위안을 받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각자의 작업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1. 예술가, 카페+전문가의 입장

-작업실에는 개인적인 관계자 외의 사람은 방문하지 않음.

-홍대앞보다는 근처인 동진시장이나 연남동 일대의 문화소비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음.(카페이심, 리브레, 멕시코식당, 40키친, 중화요리집, 기사식당 등)

-유사 종의 작가들과 교류하거나 관련된 공동체와 느슨한 교류가 있음.(홍대앞 제너럴터터 협동조합, 연남동 새끼, 텃밭가꾸기 동호회 등)

-주민들과는 인사하는 정도의 교류와 몇몇 주민들과는 골목길 평상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거나 가벼운 모임을 하는 정도의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가게의 입장

-주로 주민, 주변 상인, 단골 등이 주방문객이었으나, '리브레'의 방송 출연이 후 외부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영업시간 이후 보통 인근에 있는 심야식당이나 술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예, 시실리포차, 기사식당, 그 외 심야식당 등)

-홍대앞을 다른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위해 가지는 않으며, 주로 인근 점포주들과 동진시장 및 연남동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주민들과는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지만, 가볍고 편한 관계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됨.

<정서요인>

주민들은 보통 조용하고 차분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 평화로운 느낌이지만, 상업화로 인해 방문객 급증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문화소비공간 증가에 대한 기존 주민 입장은 호의적인 상태임.

1. 예술가, 카페+전문가의 입장

-주민들은 보통 조용하고 차분하고, 친근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예술가들은 자신의 창작활동을 위해 개방적이고 각자의 작업에서는 개성을 보이는 성향이 나타남.

-처음엔 생소함과 기존 예술에 대한 괴리감으로 주민과의 소통이 쉽지 않았다는 플레 이스막은 대안공간으로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교류에 적극적이고, 다양하고 진취적이 며 실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2. 가게의 입장

-가급적 인근 가게나 공방, 예술가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지역주민들께는 피해를 끼 치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개방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매출신장보다는 자기만의 개성과 철학의 실천을 우선시하며, 주민과 어 울리고자 하는 의지

■ 종합의견

-연남동의 변화를 홍대문화의 팽창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결국 상업화 될 것으로 예상함.

-상업화가 진행되고 연남동만의 고유한 핵심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홍대처럼 문화가 퇴색하고 변질될 것으로 예상함.

-자본의 유입으로 상업화가 진행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결국 창의인력은 또다시 튕겨져 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연남동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1세대가 사망 등의 이유로 다음세대로의 교체 시 상업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동진시장의 경우 소유자인 동진화학의 회장이 기존까지는 동진시장의 매각이 나 활용 을 절대적으로 불허하고 있었지만 현재 아들의 관리하에서 시장 내부를 ‘잡지’에 임대한 상태임.

-연남동이 고유한 정체성과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장소(hot spot)를 기 반으로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물리적인 개발과 상업화는 지역에 거스를수 없는 흐름이지만, 지역과 주민을 위해 다져 지고 이니셔티브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내 창의 인력의 보호 장치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창의인력의 연남동 유입배경은 홍대문화의 포화와 염증, 그리고 지지세력의 홍대 인근 활동(거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주거환경, 저렴한 임대료 등이 있으며, 그 중 저렴 한 임대료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주민 또는 창의인력의 공동체적 특징 중 하나는 느슨한 네트워크 형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휴먼타운 구역 창조인력 인터뷰 종합분석

<연남동에 대한 인식>

1. 연남동에 대한 정체성

- 공방의 경우 연남동에 작업실 오픈의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임대료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작업하기에 조용한 환경도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었음. 홍대상권 근처라는 점과 교통의 편리하여 연남동을 선택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 휴먼타운의 경우 최근 들어온 공방은 이미 공방이 여기저기 있는 동네라는 주변의 소감을 통해 유입된 공방들이 있었음.
- 홍대앞 범위에 관한 질문에는 대부분 거리상 홍대와 가깝지만, 홍대는 거대 상권이고, 연남동은 주택가 이미지가 강해서 다른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변화의 부분에서는 홍대의 상권의 포화상태에서 예술가들이 유입되었다는 의견들도 있었음.
- 홍대앞 범위에 대해서는 작게는 홍대앞 놀이터로만 보는 사람들과 넓게 서교, 상수, 합정을 포함해서 인식하는 등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단 홍대상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인식하는 점은 일치함.
- 상징적인 장소는 기사식당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길을 설명할 때도 기사시장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그러나 요즘은 경의선 공원이 상징적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2. 지역의 특성

- 건물은 기존의 저층주택과 새로 지어진 빌라 두 가지로 나뉘짐. 이에 따라 거주자도 두 분류로 나뉘짐. 기존에 살던 연령층이 높은 층과 단독세대 구성된 연령층이 낮은 층(20~30대)으로 나뉘짐.
- 문화소비 관련 업종 점포는 휴먼타운 쪽 성미산로를 기준으로 상하로 나눌 때(상: 주민센터 포함 위쪽 구역, 하: 커뮤니티 센터 포함 아래쪽 구역) 아래쪽 구역에 분산되어 있음. 위쪽 구역 동교로 41길 위쪽 성미산로 29길은 점포수가 거의 없고 신축빌라수도 적으며 아직까지 저층주택가가 주를 이룸.
- 대부분 주택가라서 점포수가 늘어 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임.
- 점포가 들어간 형태는 주택가 1층에 차고지를 개조한 경우와,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활용한 경우, 신축건물 1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 건물의 크기는 경성중고 지역과 비교 해 봤을 때 좀 더 작은 크기의 저층 주택이 주를 이룸.

3. 대표가로에 대한 분석(대표가로: 동교로 41길)

- 구획별로 잘 정리가 된 상태이고, 대표가로는 미니 가로수 길로 볼 수 있음. 미니가로수길에는 ER(커피+디자인 사무실), 모모크레프트(직물공방), CUESTA(레스토랑+기타강습), Something Out(커피+아웃도어), 커뮤니티 센터가 있음.
- 점포주들은 휴먼타운에서 동교동 41길(미니 가로수길)을 대표 가로로 인식하고 마을 행사도 이 길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음,
- 실제로 동교동 41길이 다른 뒤쪽 길보다 임대료 더 비싸다고 함(정확한 금액차이는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임)
- 동교동 29길은 공원부지와 맞닿아 있는 길로 카페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음. (인터뷰 사례에서 이쪽 공원을 보고 카페를 열었다고 이야기한 사례도 있었음) 아직은 변화

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좁은 도로로 주차 및 자동차 운행 시 인도로 넘어오는 문제가 있음.

<환경 측면>

1. 카페+전문가, 공방 입장

- 단독주택이 많아서 큰 도시와 달리 어렸을 때 살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주어 작업하기에 좋은 지역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임.
- 저층부 주택가가 지금의 거리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점주들이 많았음. 또한 예술가 및 자신의 특색을 가진 점주들이 지금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생각 함.
- 요즘 게스트하우스 급증과 신축건물을 짓기 위한 잦은 공사로 인해 상업화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커뮤니티 공간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종에서는 공원조성에 대해 활용도에 대한 기대감과 공원조성으로 임대료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2. 가게의 입장

- 로이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더 많은 개발과 구획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함

<영역 측면>

1. 카페+전문가, 공방 입장

- 예술가의 경우 매우 조용하게 자신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오픈한지 6개월이 안된 공방이 많아, 아직 주민들 및 예술가들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은 상태임. 서로 얼굴 알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임. 주민들은 조용하편이고 활발한 교류는 아니지만 오래 사신 어른들끼리의 교류가 있는 정도로 파악됨.
- 대부분 일과 여가의 분리가 없고, 아직 오픈하지 얼마 되지 않아 점포 운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여가시간은 전시회 혹은 영화를 보는 등 여가인 동시에 일에 대한 구상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답변이 많았음.

2. 가게입장

- 카페+전문가나 공방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

<네트워크 측면>

1. 카페+전문가, 공방의 입장

- 창작공간 새끼, 카페 ER의 경우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새끼의 경우 홍대 프리마켓 관련 예술가와 주민들과 교류를 하고, 창작활동들을 하고 있음. 두 공간 모두 예술가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면서, 주민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공간임.
- 공방의 경우 작업공간과 판매샵, 수업진행을 세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음. 외부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관련 제품을 만드는 수업을 개설해서 1회 체험 혹은 장기 커리큘럼으로 진행됨. 외부에서 찾아오는 이용자들이 많음.
- 대부분 공방들은 주민들과는 큰 교류는 없지만 간단히 인사하는 정도임. 공방에 종류에 따라 주민 이용자 분포도가 다름. 예를 들어 키키 가죽공방의 경우 근처 주민 분들이 가죽 수선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고 휴과 놀다 도예공방의 경우 젊은 주부들이 아이와 함께 수강을 하는 경우가 약간의 비율을 차지함.

2. 가게의 입장

- 근처 회사 직원들이(출판사, 여행사) 이용하거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

모의 경우 예약제인 레스토랑으로 외부인들이 많고 주민분들은 뭐하는 곳인지 관심 갖는 정도임.

-예술가 및 작가, 영화관련 종사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정서측면>

1. 카페+전문가, 공방의 입장

-정서 또는 분위기, 공동체적 특성에 대한 답으로는 다양하고 실험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이 모인 점을 다양하게 느끼고, 기타 공동체적 행사 진행에 대해 실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2. 가게의 입장

-카페+전문가나 공방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종합의견

-개발은 막을 수 없지만, 거대상권이 들어와서 상업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공동적으로 나타남. 기존의 분위기를 유지한 채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음.

-휴먼타운 쪽은 공방들 위주로 많이 있었고 입주한지 얼마 안 된 공방들은 커뮤니티 형성이 잘 되어있지 않고 있음.

-올해 입주한 공방의 경우 이미 연남동에 예술가 및 공방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개받아 오는 경우도 있었음. 예술가가 많고 공방들이 많은 동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

-창장일상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 새끼와 ER이 주민들과의 교류 및 예술가의 모임장소로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줌마네 또한 연남동 주민들과 더 많은 교류를 위해 사업을 준비중에 있음. (11월14일 마을행사)

-건물들은 기존 저층주택과 신축빌라 두 개로 나뉘지는 것이 특징임

■ 경성고등학교 구역 창조인력 인터뷰 종합분석

<연남동에 대한 인식>

1. 연남동에 대한 정체성

- 카페, 디자인 사무실, 의류업종등 공통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찾아 연남동으로 오게 됐다고 한다. 이전에 홍대앞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이 있었고, 홍대부근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 오래 전부터 연남동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집과 가까운 곳에 사업장을 구하게 된 경우도 많다.
- 카페나 아틀리에, 의류업종을 통틀어 작업실, 사무실과 판매업을 한 공간에서 꾸려나가고 있는 양상이 있다. 작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 판매도 해나가는 형태의 공간들.
- 홍대앞 범위에 대한 견해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차를 많이 보이는데 큰길가를 경계로 시끄럽고 복잡한 곳을 홍대앞이라고 규정하는 분들이 주를 이룬다. 연남동을 그곳에서 쫓겨나거나 조용한 동네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형성한 또 다른 문화권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 홍대역세권을 중심으로 근접성에선 홍대앞고 비교해 비슷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홍대앞과 달리 유흥을 즐기러 오는 젊은 층은 걸러진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기도 한다.
- 상징적인 요소로는 동교동과 연남동을 경계짓는 일명 연남동 가로수길을 많이 꼽는다. 이 곳은 예전의 가로수길처럼 가로수들이 만들어준 편안한 가로 분위기를 중심으로 최근 2-3년새에 많은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신사동 가로수길의 예전 시작단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 아직은 쾌적한 분위기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편안하고 친근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반대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화교나 기사식당을 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

2. 지역의 특성

- 이 곳은 특이 할 점이 없는 서울에 여느 동네와 같은 분위기의 골목들로 이루어진 동네다. 정형화된 필지들과 자연발생한 삐뚤삐뚤한 골목들이 함께 형성된 모습들이 흥미롭다.
- 예전엔 큰 양옥 주택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동네였었는데 최근 들어 큰 주택들을 허물고 원룸이나 다세대 빌라들을 지어 자취생들과 게스트하우스에 세를 주는 형태의 건물들이 급증했다. 지금도 동네 곳곳에 끊임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기존 큰 주택들을 사무실용도로 사용하는 출판사들이 모여 있는 동네였었는데 요즘엔 파주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있는 상태라고 한다.
-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혼자사는 직장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주로 원룸이나 다세대에 세들어 살고 있다. 음악, 미술, 영화, 문학등 종사자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출판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여러종류의 점포들이 모여 있는 것 빼고는 점점이 산재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다세대 빌라촌에 게스트하우스들이 구석 구석 자리해있고, 예술가들의 작업실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이 없어 파악이 어렵다.
- 이 지역또한 기존에 창고나 차고로 쓰이던 작은 공간들을 개조해 세들어 있는 형태가 많이 보인다. 작은 공간을 개성있게 꾸밀수 있어서 선호한다는 의견도 몇몇 있었다. 최근엔 신축건물도 눈에 띄게 늘어 신축건물의 1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식은 편안하고 인정받고 따뜻한 인상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예술

가들의 경우에도 자유롭게 열려있는 사고의 사람들이 많고, 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주민들을 볼 때 연남동자체의 자정능력을 믿고 기대하고 있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과는 보통 갈등없이 호의적인 이웃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

3. 대표가로에 대한 분석(대표가로: 월드컵북로6길)

- 연남동 남쪽으로 동교동과 맞닿은 부분에 500미터 가량의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가로수길이 형성이 되어 있다. 4-5년 전까지만 해도 오래전부터 있던 동네 식당 몇 개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대략 20-30개의 새로운 점포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몇몇 곳이 공사중이다. 신사동 가로수길과 비교하여 신흥 상권으로 일컬어 연남동 가로수길이라고 부른다.
- 경성고 지역의 대표적인 도로변 상권으로 크고 작은 카페와 술집, 음식점들은 이곳에 거주하는 예술인들과 출판인들, 주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고루 이용하고 있다. 계중에 미술인 음악인 영화인들은 비교적 큰 상권인 이 곳 보다는 골목 곳곳에 숨어 있듯이 자리잡은 작고 조용한 카페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웃으러(휴머니스트 카페)의 경우는 4년전 이곳에 점포가 전무할 때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장사를 하던중 작년 건물주로부터 쫓겨나 지금의 휴머니스트 출판사 자리로 옮겨 장사를 해야했다고 한다. 이 가로를 중심으로 부동산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함.
- 조사하면서 놀랐던 부분은 공원 부지를 중심으로 나뉘는 반대편 기사식당, 휴먼타운 지역을 모르거나 거의 가지 않는 응답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 철도부지와 코롱아파트로 양분되어 있는 연남동의 지형적 특성이 사람들의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문화환경 측면>

- 연남동의 가로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밌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불어 자신들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있고, 시각적인 면에서나 정서적인 면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한다.
- 공방이나 카페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서로 손님으로 만나게 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여가 시간엔 서로의 공간에 가서 새로운 작업을 배우고 하는 모습도 흥미롭게 보인다.
- 물론 저층부의 동네분위기가 일조를 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동네를 찾아 오게 된게 맞지만 그전에 홍대인근의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 온 이유가 먼저라고 한다. 예전엔 홍대에도 편안하고 조용한 골목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싸고 쾌적하게 있을 수 있었지만 최근 2007-8년을 시작으로 상권이 홍대 전체로 퍼지면서 그런 틈새공간들도 다 사라졌고 주변을 찾다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홍대의 상업화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 공공공간의 활용에 대한 입장은 반반정도 나뉜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위배되고 위험하고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어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기는 재밌는 풍경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영역측면>

- 예술가들을 따로 인터뷰 할때와 달리 카페나 바, 공방등 공간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해보니 창작자들간의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가 있었다. 혼자 집에서 작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산책을 하고 기존의 술집을 다니며 생활하는 예술인들과 새로운 공간에 모이길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기는 예술가들의 부류가 있구나 하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공간을 운영하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서로간의 소통이나 협업에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많은 활동을 해 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 혼자 공간을 운영하거나 홈페이지 음식, 핸드메이드 공예등 장인정신을 가지고 일에 몰두하는 응답자들이 많아 여가시간도 일에 매진해야한다는 답변들이 많았다. 혹은 서로의 공간에 가거나 따로 시간을 내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응답자가 많다.

<네트워크 측면>

1. 카페+전문가, 공방의 입장

- 대규모의 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부정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기획으로 하는 경우가 아직 많고 지금의 환경에 맞지 않는 옛스러운 방법으로 소통을 이끌려고하는 억지 기획이라는 의견이 몇몇 나왔다.
- 반면에 작은 공간들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샵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바자회등 삶에 맞아맞는 작고 진정성있는 커뮤니티 활동은 당연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 서로의 공간들에 모여 수다를 떨고 서로의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하는 활동들이 두드러진다. 남은 공간에서 손님 의 전시회를 기획해 준다거나 작업을 상영해준다거나 하는 작은 규모의 재밌는 이벤트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 카페나 바 같은 경우엔 동네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의류점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고 좋아해줘서 신기하다고 한다. 연남동 원주민들의 따뜻하고 다른 곳보다 열려있는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서측면>

1. 카페+전문가, 공방의 입장

- 대체적으로 비슷한 의견들이다. 자유롭고 열려있고 잘 놀고 흐트러져있고 재밌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다.
- 원주민들도 따뜻하고 잘 수용하고 적극적인 면을 띠는 입장이다. 건물을 소유한 주민들은 보통 개발을 지향하게 되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아 놀랍다는 의견도 있다. 연남동 성산동 이 부근의 주민들이 옛날부터 이상하게 외골수 같은 성향이 많다는 얘기도 있다.

2. 가게의 입장

- 카페+전문가나 공방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종합의견

- 지금의 변화들은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주민들 또한 재밌게 바라보고 함께 변화속에 참여 하면서 풍요로워 짐을 몸소 느낀다고 한다.
- 이제 속속 들어오는 비교적 큰 자본들의 행태에 직접 피해를 받기도 하고 그로인한 동네 분위기의 부정적 변화들을 보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 개발이 누구의 이익이 되면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밀비재하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는 쪽이다. 이익인 사람보다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 1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에서 겪어야될 피해들을 우려했고, 그보다 그후 부동산차원에서 입을 피해들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을 우려했다.
- 공원조성은 대부분 환영을 하는 입장이나, 공사가 너무 오래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잘 알고 있었다.

■ 예술가 인터뷰 종합분석

<연남동에 대한 인식>

1. 지역의 특성

- 홍대로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경우가 많다. 대학교 때 맛있는 중국집, 기사식당을 찾아와 처음 알게 된 경우나 찐집이나 작업실을 구하다가 부동산 아저씨를 따라 처음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됨.
- 홍대앞의 인식은 개인적인 차가 많았는데, 지금의 상업적 상권이 형성된 부정적 의미의 '홍대앞'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엔 서교동을 홍대앞이라고 규정짓는 반면에 홍대 문화가 퍼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서교동을 중심으로 어떤 문화를 형성해 살아가고 있는 주변 지역들을 포함한 '홍대앞'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엔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과 연남동까지 홍대앞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유입시기는 5-10년 사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당시 연남동은 기사식당으로 유명하고 화교들이 모여사는 조용하고 편안한 동네라는 인식이 많았고, 최근 1-2년 사이 변화들을 인지하는 정도의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물리적 환경 측면>

1. 예술가의 입장

- 지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홍대까지 나가지 않고 가까이서 맛있는 카페나 빵집, 음식점들을 이용할 수 있어 만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 많은 예술가는 지금 생겨나고 있는 공간들을 잘 이용하지 않고 있었고 이전의 오래된 음식점들을 즐겨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지금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고 동네가 재밌어져서 좋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 거리에 외부 사람들이 많아졌고 주말 밤에 부쩍 시끄러워 지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거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게스트하우스의 급증으로 외국인들이 많아진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임대료가 저렴하고 작은 공간들이 많은 특성이 지금과 같은 소규모 공방과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재밌게 운영될수 있게 만들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또 물리적 특성보다는 임대료를 더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으로 분석됨.
- 가로공간과 공공공간의 활용에 대한 입장은 개인적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 재밌고 여유로운 거리의 풍경을 만들어져서 좋다는 의견과 공공공간을 상업적용도로 사용한다는 데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타남.

<영역 측면>

1. 예술가의 입장

- 홍대쪽 사람들과 비교한 답이 많았는데, 연남동에 오는 사람들은 비교적 여유가 있고 유틸 있고 재밌는 일을 꾸미려는 경향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덜 상업적이고 조용히 작은 공간 안에서 치열하지 않게 소박하게 각자의 작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이 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예술가들의 일상은 불규칙적인 경우가 많았으며, 늦게 일어나고 밤에 작업하고 주말과 평일의 개념도 분명치 않은 것으로 분석됨. 또 여가와 업무의 구별도 없는 편임.
- 작업을 위해 다른 돈벌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경우엔 일반 직장인들처럼 생활을 하고 밤시간과 주말시간에 작업을 하는 식인 것으로 파악됨.

〈네트워크 측면〉

1. 예술가의 입장

- 새로 생긴 공간들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예전부터 다니던 오래된 곳들을 선호하고 주로 찾는 경향을 보임.
- 카페나 공방 등은 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집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됨. 중국식당(향미, 하하, 흥복)이나 기사식당을 일상적으로 많이 찾고, 술집(옥타, 하하)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시설이나 장소라기보다 산책로 연남동을 자주 이용하고, 식당, 마트 등 일상생활의 장소로써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연남동에 대한 상징적 요소로는 기사식당이 가장 많았고, 중국집, 화교 순으로 분석됨.
- 인적 교류는 홍대 전반에 있는 같은 부류의 예술가들과 나누고 있고, 디자인, 영화, 음악, 미술, 문학등 장르의 구별없이 두루두루 많이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음. 여러 장르의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주민들과는 그냥 이웃으로써 소통을 하긴 하진만, 적극적인 작업방식으로서의 소통은 대부분 하고 있지는 않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관용 측면〉

1. 예술가의 입장

- 홍대 상권을 피해 조용하고 저렴한 곳을 찾아 연남동을 찾은 사람들이 많고, 여유있고 재밌는 움직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남.
- 같은 취향들의 사람들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그런 공간에 노력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인상도 많은 것으로 파악됨.
- 공동체라기보다는 개개인의 움직임들이 있고 술자리에서 정보를 나누고 일이 꾸며지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종합의견

- 변화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있는 입장이 대부분이고, 재밌는 동네 분위기가 스스로 조성되는 현상에 긍정적이지만, 상업적인 움직임도 많이 감지가 되어 지금 홍대의 흥청망청 문화소비나 어수선한 상권처럼 될까봐 우려하는 마음도 큰 것으로 분석됨.
- 주민들과 상인들의 인식이 홍대와 많이 달라서 자정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많은 것으로 파악됨.
- 개발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지만, 어쩔 수 없이 담담히 받아들이는 편임.
- 공항철도 공원조성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끌려온 공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함.

A Study on Regional Preference Factors of Creative Class

– Focusing on the Creative Milieu Characteristics of
Yeonnam-dong, Seoul –

Park, Eun Sil

A DISSERTATION
IN
URBAN DESIGN

Presented to the Gradu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Advised by Professor
Ahn, Kun-Hyuck

School of Civil, Urban, and Geo-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2014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Regional Preference Factors of Creative Class

– Focusing on the Creative Milieu Characteristics of
Yeonnam-dong, Seoul –

Park, Eun Sil

School of Civil, Urban, and Geo-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creative milieu appears in a complex system of social, cultural and emotional elements beyond the physical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re are certain factors in a creative milieu preferred by creative class, which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importance of geographical factors of creativity – the importance of a place where creativity arises and information is exchanged. Historically, the areas where creative class is highly concentrated were found to be closely related to certain periods or under conditions. A high concentration of creativity that emerges in certain periods and places is based on the environment where creative class, creative outcomes, and creative processes are organically connec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such places make up a creative milieu.

The study, looking at high population densities of creative class in certain places, aim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creative class and a creative milieu, and regional preference factors of creative class. In addition, the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a creative milieu based on the regional preference factors of creative class, and to reveal the correlation among the constituents of a creative milieu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reative class in a place. In particular, for pract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 creative milieu, Yeonnam-dong, Seoul, was selected as a research subject, which has continuously attracted creative class since 2008.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developing Yeonnam-dong as a unique, creative milieu and sustainable environment.

As for the methodology, the study found the constitue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a creative milieu of Yeonnam-dong on the creative class living in the area and conducted another survey based on the interviews. As a result, 30 variables were drawn and categorized into 8 factors, and compared for analysis with 5 general factors comprising a creative milieu. The study named factors 'originality,' 'emotional tolerance,' 'traditional culture,' 'distinctive landscape,' 'visitor influx,' supporting base, 'improved landscape,' and 'the Hongdae area culture,' respectively. Based on the factors, creative class was divided into some groups to compare regional preference factors and satisfaction for each group. Finally, the implications were drawn by compa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creative milieu and Yeonnam-dong,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Yeonnam-dong was found to have the unique creative milieu characteristics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factors of a general creative milieu with those of Yeonnam-dong. Among the factors of a general creative milieu, 'originality,' 'emotional tolerance,' and 'network' showed a strong presence in the creative milieu characteristics of Yeonnam-dong. On the other h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area are the factors such as 'traditional culture,' 'distinctive landscape,' and 'improved landscape,' all of which, in general, belong to the 'cultural environment' factor.

Second, deviation was found among respective factors that constitute the creative milieu of Yeonnam-dong. That is, the creative milieu characteristics of Yeonnam-dong had the factors showing strong and weak characteristics. The general creative milieu factors, 'originality,' and 'network,' work as the most essential preference factors combined with 'originality,' the key of the creative milieu characteristics of Yeonnam-dong. In other words, 'originality' has been selected the most preferred creative milieu characteristic in all groups, which is followed by 'emotional tolerance.' The factor that shows the lowest reliability and has no significance in Yeonnam-dong is 'supporting base' with a marketplace function.

Third, preferences and deviations of creative class were found among the factors comprising a creative milieu.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30 factors of a creative milieu based on preference, the factors were divided into 4 groups. The sub-divided factors that the group with high preference and low deviation has are those with shared preference of a majority of the creative class of Yeonnam-dong,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key characteristic of the creative milieu of the area. On the other hand, the group with low preference and low deviation has a factor of 'location influenced by the Hongdae area culture,' which most survey respondents thought negatively of. This shows that a majority of the creative class of Yeonnam-dong perceives the place as a new culture than as an extension of the Hongdae area culture.

Fourth, the creative class in Yeonnam-dong is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Dynamic Environment Seekers>, mainly cultural artists and directors, were found to prefer the creative atmosphere and improved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o work in the Hongdae area. Most <Traditional Cultural Environment Seekers> run a cafe or a restaurant, and prefer traditional culture, increase of new visitors, and improved residential environment of Yeonnam-dong. Finally, the <Stable Environment Seekers> who show the highest satisfaction with the area, have moved from the Hongdae area and worked in personal workplace. They also have enjoyed interactions with the creative class in Yeonnam-dong.

Lastly,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Yeonnam-dong by each group. The result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responses of the entire respondents of the survey indicated that the factors, 'originality,' 'emotional tolerance,' 'traditional culture,' and 'distinctive landscape' had positive influence on satisfaction with the area. However, the factors, 'visitor influx,' and 'improved landscape' showed no significance, which might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se factors have overall low preference and are the characteristics that are secondary rather than primary. However,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y group showed a large difference compared with the result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responses of the entire respondents of the survey. The Dynamic Environment Seekers, the creative workers involved in the cultural arts, are heavily influenced by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 creative milieu and creative atmosphere, but not so by other secondary factors. On the other hand, as for the Traditional Culture Seekers, 'originality,' 'emotional tolerance,' 'distinctive landscape,' and 'visitor influx' were proved to influence satisfaction with Yeonnam-dong.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the 'visitor influx' might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group mainly consists of creative workers who run a café or a restaur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irst, a place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creative class creates a creative environment and evolves into a creative milieu eventually. While it appears spontaneously in the initial stage, such a place has to go through a growth stage with self-sustainability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creative milieu. The influx of consumption space and capital without cultural creativity and productivity leads to rapid commercialization, resulting in the disappearance of creativity and productivity from the area. To have 'self-sustainable cultural ecosystem' deeply rooted in a place, and mature the place after a growth stage,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environment which is preferred by creative class and in which creativity is developed.

Second, although the inflow of creative class into Yeonnam-dong

originated from geographical relocation and evolution of the culture of the Hongdae area, it would be necessary to create and develop a creative environment specific to Yeonnam-dong. To explain environmental factors preferred by the creative class in Yeonnam-dong based on general factors has limitations, and preference factors can vary within the creative class. Therefore, to understand a creative milieu, a complex, multilateral approach is required, as a creative milieu results from interactions among various factors.

Thir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 between the creative class groups. As shown in the study results, three groups of creative class reside in Yeonnam-dong and there are huge differences in the reasons why they live in the area and the factors that they find attractive about the area. Furthermore, it was identified that the groups pursue different and mutually conflicting values. Therefore, for continuous growth and expansion of a creative milieu, institutional/political support would be required for the each group to build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nd to produce more creative outcomes.

Keywords: creativity, creative class, creative milieu, Hongdae area culture, Yeonnam-dong, regional preference factor

Student Number: 2003-30947

